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다 같이,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삼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냉전시대에 국가와 민족이 분단되었다. 독일은 4년전에 정치 지리적 통일을 이룩하고 지금은 사회경제적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정치 지리적 통일도 이루지 못했다.

통일은 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 변혁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을 따로 떼어서 통일의 영향을 조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통일의 시작은 기성세대가 하지만 통일의 완성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한다. 청소년은 통일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주역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고 통일에 대해 준비를 하여야 한다. 통일은 정치적 합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경제적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통일은 민족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사회적 변혁이므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청소년자신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적절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변혁을 잘 극복하고 통일을 완수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문제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문제, 폭력문제, 실업문제 등이 발생하는 원인분석과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독일정부의 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비록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건의 차이가 있지만, 독일통일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의 조사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청소년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독일통일에 관한 국내연구서와 독일책 번역본, 그리고 독일현지에서 얻은 독일어 원전 등을 자료로 삼아 주로 문헌을 분석 정리하는 조사연구다. 국내에서 출판한 책들은 대부분 독일통일에 관련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 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어서, 거기서 청소년에 관련되는 내용을 따로 골라야 했는데, 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독일어 원서를 주로 사용했다. 특히, 독일 사회학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독일에 가서 만난 청소년관련 정부관리와 민간단체 지도자와 연구원들과 면담해서 얻은 정보도 참고하였다.

이론을 가지고 학술적인 논문을 쓰기보다는,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의 큰 변화속에서 청소년들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책을 조사하여, 통일된 독일사회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썼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독일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넓게 조사하기보다는 몇가지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 연구는 독일 교육의 변화와 문제점, 동서독 청소년들의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의식, 노동환경과 청소년실업, 그리고 청소년폭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독일통일은 단순한 정치경제적 통일이 아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체제가 통일된 것이므로, 특히 사회주의 사고방식에 젖은 동독청소년들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므로, 청소년들이 의식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독일통일이 서독의 자본주의가 동독의 사회주의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교육은 제도, 교육내용, 방식 등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교육대상은 청소년이 대부분이므로 교육개혁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터이니, 그 상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재적인 동독정부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쳐부수었고, 독일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단결된 집단행동으로 무너뜨렸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독일이 통일된 뒤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것이 청소년의 집단폭력이었다. 특히 독일에 노동자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극우적인 사상과 결합되는 양상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스럽게 지켜

보고 있다.

통일독일의 제일 큰 당면문제가 동독경제의 회복이요 그 중에서도 실업자 구제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한다. 동독청소년들은 여러가지로 불리한 처지에서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 나가게 되어 실업에 대해서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한다.

교육문제, 폭력문제, 실업문제는 현재 독일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청소년문제이다. 남북통일도 서로 다른 두체제의 통일이므로 청소년들의 의식을 동질화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남북통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딪치게 되리라고 생각되어 독일통일과 청소년의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동독과 서독 청소년들이 통일과정에서 인생과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의식을 조사했다. 인생관, 정치관, 경제관, 사회문화관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동독과 서독 청소년들의 의식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동독의 교육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제일 어려운 청소년문제인 청소년폭력을 다루었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조사하였다. 다른 문제들은 주로 동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지만, 폭력문제는 동독과 서독이 별 차이 없이 심각하다. 특히 극우주의적인 태도와 외국인을 배척하는 감정이 청소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독일의 노동환경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실업문제를 살펴보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동독지역의 경제적 붕괴라고 말한다. 동독지역의 경제사정과 노동환경을 알아보고, 청소년실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과 사회적 결과를 조사하고, 청소년 직업훈련과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 대신에 독일통일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시사하는 점을 적었다. 앞에서 조사연구한 것에 근거해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청소년정책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간단히 지적했다.

I.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의식

동서독 통합의 역사적 과정을 지켜본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인들은 타의에 의한 분단과 냉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와 열망 등을 경험했다. 청소년들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동서독 통합을 지켜보았다. 특히 동독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식적,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경험했다. 그리고 1989년 이전에 이미 그들의 정체성, 희망, 환상을 상실했고 종종 저항과 야당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SED정부의 붕괴이후 짧은 시간동안 개혁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 무엇보다도 정치적 참여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이상화된 서구와의 통일을 꿈꾸는 즐거움이 생겨났다. 개인적 자유, 소비의 매력, 제한없는 여행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위협적인 실업,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불확실성, 시장경제 사회에서의 냉혹한 경쟁, 동독과 서독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많은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Förster, Friedrich, 1992.9) 반면에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 청소년보다 덜 불안한 가운데 사회변혁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서독 통합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통합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청소년들에게 지워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동서독 통합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의 통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많다. 그 중에서 Hans Bertran(DIJ)과 Walter Friedrich(ZIJ)가 중심이 되어 1990년 6월 뮌헨의 독일청소년연구소(DIJ)와 라이프찌히의 청소년중앙연구소가 15-16세의 9학년 대도시 학생들(서독 1,231명, 동독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장에서는 이 조사를 토대로 하고 그외 독일에서 조사된 여러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동서독 통합과 관련하여 독일 청소년들이 나타낸 태도를 알아보았다. 동독 청소년과 서독 청소년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분석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양독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였고 그들 태도의 차이가 앞으로 동서독 통합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통일교육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식을, 첫째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인생관, 둘째로 정치적인 입

장, 셋째로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 넷째로 사회 및 문화생활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인생관

분단 이후에 태어나 이질적 사회에서 성장한 동서독 청소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차이나는 지는 매우 큰 관심사이다. 동서독 통합이전에는 충실하게 조사된 서독 청소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동독 청소년의 조사 자료가 없었다. 동독 청소년의 인생관을 조사한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질문과 출판 통계 때문에 그 결과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동서독 통합과정에 조사된 DIJ와 ZIJ의 보고서는 중요한 조사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통일을 경험한 동서독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관련하여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현실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아의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등의 조사를 분석하여 동서독 청소년의 인생관을 비교하였다.

1) 삶의 목표

삶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에서,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예측할

〈표 I - 1〉 삶의 목표(아주 강함 또는 강함)

	서 독	동 독
관심있는 일을 하는 것	95.8%	97.4%
안전한 직업	91.8%	96.0%
쾌적한 생활	84.9%	85.8%
가족의 회생이 없는 것	82.1%	82.9%
높은 수입	76.7%	83.8%
개인 능력 발휘	76.7%	79.1%
끊임없는 욕구의 실현	71.4%	83.3%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70.4%	72.4%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	60.4%	56.2%
다른 사람에 봉사	42.2%	46.3%
가능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32.0%	29.4%
정치적 활동	10.7%	13.9%

자료 : Gille, 1992 : 20, 재편집.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 때 어디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독일 청소년의 최고의 삶의 목표는 “관심있는 일을 하는 것”(서독 95.8% ; 동독 97.4%)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한 직업”(서독 91.8% ; 동독 96.0%), “쾌적한 생활”(서독 84.9% ; 동독 85.8%) 등의 순으로 동서독 청소년이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특히 동서독 청소년 사이에 차이를 보인 것은 “안전한 직업”(서독 91.8% ; 동독 96.0%), “높은 수입”(서독 76.7% ; 동독 83.8%), “끊임없는 욕구의 실현”(서독 71.4% ; 동독 83.3%) 등에 동독청소년이 더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안전한 직업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서 겪어보지 못한 실업에 대해 동독청소년들이 높은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에 대한 불안은 동독청소년에게 매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 높은 수입의 경우는 동독청소년들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끊임없는 욕구를 실현하는 것도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즉 이타주의에서 동독청소년이 서독청소년보다 크게 높지 않은 점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 동독청소년은 46%, 서독청소년은 42%가 응답하였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참여가 사회주의 교육모델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항목에서 동독 청소년들과 서독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Inglehardt의 “결핍 가설”로 설명될 수 있겠다. 사랑과 인간적인 결합 등의 “후기 물질적인” 욕구는 기본이 되는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야 비로소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독 청소년의 물질적 풍요의 차이와 사회주의 교육의 효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Gille, 1992 : 21).

이처럼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동서독 청소년들이 오랫동안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삶의 목표를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동서독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실에 대한 만족도

동서독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궁금한 일이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인 서독에 흡

수된 동독의 청소년들에게 독일 통합은 특별한 경험이며,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태도 조사는 후술하기로 하고, 동독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표 I - 2〉 동독 청소년의 심리적 만족도(11-12학년)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불만족
자신의 성격	32.0%	57.0%	9.0%	2.0%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	48.0%	47.0%	5.0%	.0%
전체적인 인생	36.0%	53.0%	8.0%	3.0%
학교와 직업 교육	17.0%	48.0%	31.0%	4.0%

자료 : Müller, Schubarth, 1992.9 : 25.

이 표에서 동독 청소년은 자신의 성격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다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도 불만스러운 태도(35.0%)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독일 통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인 통합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는 각 영역의 통합노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과연 동서독 청소년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통합의식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자.

우선 전체 독일의 결함에 대해서는 동독청소년(57.6%)이 서독청소년(43.5%)에 비

〈표 I - 3〉 결함 의식과 삶의 만족도(아주 강함 또는 강함)

	서 독	동 독
결함의식		
독일 전체	43.5%	57.6%
자기 지역과 전체	39.9%	27.9%
삶의 만족도	80.6%	49.3%

자료 : Schubarth, 1992 : 68, 재편집.

하여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독일전체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서독청소년(39.9%)의 만족이 높고, 동독청소년(27.9%)의 그것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청소년의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높지만 현실적인 통합현상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함으로써 대부분의 제도나 문화가 서독의 것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자기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서독청소년은 80.6%인데 비하여 동독청소년은 49.3%로 동독청소년이 상당히 불만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 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동독청소년이 더 좋다고 평가한 부분은 교육기회의 평등(서독 35.0% ; 동독 35.8%), 노동권(서독 21.0% ; 동독 47.6%) 뿐이었고, 그외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서독 59.4% ; 동독 10.1%), 환경보호와 유지(서독 60.2% ; 동독 2.3%), 여행의 자유(서독 59.5% ; 동독 1.3%), 자유선거(서독 41.9% ; 동독 6.4%), 자유 경제질서(서독 31.5% ; 동독 1.1%)등에서는 큰 불만을 보였다. 이처럼 동독청소년들은 서독청소년에 비하여 현실적 삶에 불만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이에 따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위르겐 뵐의 조사연구에서 서독청소년들은 동독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서독이 수십년동안 노력해서 얻은 열매를 동독은 거저 먹으려 한다는 것이다.(뵐, 1994)

〈표 I-4〉 다른 지역과의 비교(더 좋음)

	서독	동독
여성의 평등권	37.2%	29.6%
의사표현의 자유	59.4%	10.1%
환경보호와 유지	60.2%	2.3%
여행의 자유	59.5%	1.3%
교육 기회의 평등	35.0%	35.8%
노동에 대한 권리	21.0%	47.6%
법 앞의 평등	32.3%	15.6%
자유 선거	41.9%	6.4%
의료 기본 공급	44.8%	41.4%
자유 경제 질서	31.5%	1.1%
소수의 보호	27.3%	24.2%

자료 : Hoffmann-Lange, 1992 : 91, 재편집.

3) 미래에 대한 기대

독일 사람들은 독일통합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므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는 매우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우선 개인적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서독 청소년 모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I - 5〉 개인적 미래에 대한 기대

	서 독	동 독
낙관적	39.0%	32.0%
낙관적인 편	49.0%	51.0%
비관적인 편	9.0%	14.0%
비관적	1.0%	2.0%

자료 : Jaide, 1994 : 18.

서독 청소년의 88%, 동독 청소년의 83%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서독 청소년의 10%, 동독 청소년의 16%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서독 청소년이 동독 청소년보다 다소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서독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도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서독 청소년의 61%, 동독 청소년의 58%가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표 I - 6〉 “나는 내가 계획한 일에 도달하리라고 믿는다”

	서 독	동 독
많이 믿는다	61.0%	58.0%
조금 믿는다	33.0%	36.0%
거의 믿지 않는다	4.0%	5.0%
전혀 믿지 않는다	.0%	.0%

자료 : Jaide, 1994 : 19

다음으로, 통합 독일의 미래에 대한 태도의 조사 결과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서 독	동 독
우정의 발전	88.4%	87.3%
동료애의 발전	73.1%	74.0%
유럽의 평화	68.6%	79.6%
학업,직업적 진출	56.7%	40.3%
독일 자기 지역의 발전	38.3%	43.8%
독일 다른 지역의 발전	31.3%	72.6%
환경문제의 극복	11.5%	20.7%

자료 : Gille, 1992 : 30, 재편집.

미래에 대한 기대를 물었더니 아주 기대한다거나 기대한다는 대답이 “우정의 발전”(서독 88.4% ; 동독 8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독청소년은 “동료애의 발전”(서독 73.1%)에, 동독청소년은 “유럽의 평화”(동독 79.6%)에 높은 기대를 걸었다. 특히 동서독 청소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독일 다른 지역의 발전”(서독 31.3% 동독 72.6%), “환경문제의 극복”(서독 11.5% ; 동독 20.7%) 항목이었다.

우정, 동료애 등에 높은 기대를 보인 것은 매우 희망적인 결과이다. 비록 지금은 동서독 청소년들 사이에 반목과 비판적 태도가 있으나, 그것은 결국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래에는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동서독 통합으로 이념적 냉전이 완전히 해소되고 유럽의 평화에 동서독 통합이 기여한다는 면에 동독 청소년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학업과 직업적 진출에 있어서는 동독청소년이 여전히 불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낙후되어 있는 동독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큰 불안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에 대한 평가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통하여 사회와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동반하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동독 청소년은 극심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극단적 변화가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현실적인 불편함과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동독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동서

독 통합의 역사적 과정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동독 청소년의 자기평가 결과가 다음 표들에 나타나 있다. 동독 청소년의 77.0%가 그들의 현재상태와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59.0%는 그들이 강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역시 59.0%의 동독 청소년은 그들의 신념을 위해 살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35.0%는 위험한 상황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불안해 하였다.

〈표 I-8〉 동독 청소년의 자기 평가(1)

	동 의	약간 동의	모 를	약간 거부	거 부
나는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	35.0%	42.0%	19.0%	4.0%	.0%
나는 내 신념을 위해 산다	23.0%	36.0%	35.0%	5.0%	1.0%
나는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	16.0%	43.0%	32.0%	7.0%	2.0%
위험한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	15.0%	20.0%	34.0%	21.0%	10. 0%

자료 : Förster, Friedrich, 1992.9 : 8.

또 다른 조사도 낙관적인 동독 청소년의 자기 평가를 보여준다. 96.0%가 현재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역시 96.0%가 자기 행동목표에 대한 자기확신을 말하고, 95.0%가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록 44.0%의 동독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시하고, 37.0%가 고독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그것이 동독 청소년의 낙관적인 자기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소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 고독하지만, 대부분이 현재 행복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다.

〈표 I-9〉 동독 청소년의 자기 평가(2)

	동 의	약간 동의	약간 거부	거 부
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	72.0%	24.0%	4.0%	.0%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이를 자신이 있다	64.0%	32.0%	4.0%	.0%
나는 일에 대한 추진력이 있다	36.0%	59.0%	5.0%	.0%
나는 미래가 두렵다	4.0%	40.0%	41.0%	15.0%
나는 고독하고 혼자있다고 느낀다	2.0%	35.0%	49.0%	14.0%

자료 : Müller, Schubarth, 1992.9 : 27.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동독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대해 고독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감에 넘쳐 있으며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족 통일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향해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지금의 불편함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창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매우 중시하여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해 동서독 청소년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독 청소년들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동독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서독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그 내용면에서는 동서독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 노동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대체로 여성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또는 사회생활에의 참여 형태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독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응답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의 의견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즉 동서독의 남자 청소년은 여전히 보수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

〈표 I - 10〉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아주 찬성 또는 찬성)

	서 독		동 독
정치는 남성의 일이다	여자	6.4%	4.6%
	남자	19.2%	21.4%
실업율이 높을 때는 기혼자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여자	6.4%	4.2%
	남자	16.9%	13.4%
가사 노동은 원래 여성의 일이다	여자	7.1%	6.1%
	남자	28.5%	33.0%

자료 : Gille, 1992 : 40, 재편집.

2. 정치적 입장

동서독 통합 이전에 실시한 정치적 입장의 조사는 양독 청소년들을 다른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서독에서는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의 비판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 정치적 관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독의 조사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가지는 의미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동서독 통합이후의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독일통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 독일통합의 속도와 기대, 새로운 국가의 우선적인 정치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동독청소년에게 새롭게 주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새로운 국가의 제도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지, 독일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동독 청소년과 서독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기준의 하나는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입장 구분이다. 이 구분은 현재 독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여기서 좌파와 우파적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우선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정치적 내용의 평가에서는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인다.

우파적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독일과 독일인을 찬미하고,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표시한다. 그리고 폴란드, 터키, 베트남, 아프리카, 러시아, 루마니아인들과 같은 외국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유대인을 아주 미워하고, 좌파, 황색인종, 공산주의자를 거부한다. 이에 비하여 좌파 청소년은 우파에 단호하게 저항하지만, 외국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관용적이며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엄격히 거부한다. 우파 청소년들은 좌파 청소년들보다 덜 이타주의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은 극우적 세계관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출세주의라는 것을 반영한다. 심리적 영역에서 좌파 입장의 청소년은 우파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압도되어 있다. 그들은 덜 성공적이고, 덜 낙관적이며, 덜 활동적이고, 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이러한 우파와 좌파적 입장의 구분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1) 정치적 정보를 얻는 경로

양독의 청소년들이 정치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양독 청소년은 정치정보를 얻기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지의 순으로

〈표 I - 11〉

정치 정보를 얻는 경로

	서 독	동 독
텔레비전	91.1%	94.9%
라디오	71.3%	88.4%
일간지	59.5%	74.4%
잡지/주간지	36.3%	42.4%
대화	45.2%	55.6%
학교 수업	47.5%	38.0%

자료 : Six, Hoffmann-Lange, 1992 : 53, 재편집.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에 비해 모든 경로에서 높은 반응을 보여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대화에서도 서독 청소년의 45.2%에 비하여 동독 청소년이 55.6%로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독 청소년이 정치적 정보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불안한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서독 청소년보다 동독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독일 통합에 대한 평가

동서독 청소년들의 독일 통합에 대한 평가는 통합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반응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서독의 흡수통합으로 다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동독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는 매우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의 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시각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

〈표 I - 12〉

독일 통합에 대한 동독 청소년의 태도 변화

	찬 성	반 대
89.11	45.0%	55.0%
90.2	78.0%	22.0%
90.3	79.0%	21.0%
90.4	78.0%	22.0%
90.6	81.0%	19.0%
90.8	82.0%	18.0%
90.9	82.0%	18.0%

자료 : Schubarth, 1992 : 77.

〈표 I - 13〉 “동서독이 통합되어서 나는 정말 즐겁다”(동독 청소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성 별	남 자	64.0%	33.0%	3.0%
	여 자	43.7%	50.0%	7.0%
정치적 입장	좌 파	7.0%	40.0%	53.0%
	우 파	84.0%	16.0%	.0%
전 체		53.0%	42.0%	5.0%

자료 : Förster, Friedrich, 1992.9 : 12.

다. 1989년 11월의 조사에서는 불과 45%의 찬성이었지만, 90년 2월에는 78%에 이르고, 점점 지지도가 높아져서 90년 9월에는 82%가 되었다. 독일통일의 기쁨에 대한 1992년의 조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기뻐하고, 좌파보다 우파가 더 기뻐하였다. 그리고 좌파적 동독 청소년은 동서독 통합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조사는 청소년들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준다. 통일이 되어 기쁘다는 응답은 동독 청소년(58%)이 서독 청소년(45%)보다 다소 많고, 통일독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동서독 통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동독 청소년(56%)이 서독 청소년(29%)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통일에 흥미없다고 응답

〈표 I - 14〉 동서독 통합에 대한 종합조사

		그렇다	반반	아니다
통일이 되어 기쁘다	서 독	45.0%	39.0%	15.0%
	동 독	58.0%	34.0%	7.0%
통일독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서 독	29.0%	40.0%	30.0%
	동 독	56.0%	33.0%	10.0%
독일 통일에 흥미없다	서 독	15.0%	29.0%	55.0%
	동 독	20.0%	23.0%	56.0%
과거의 동독 권력자들이 여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	서 독	54.0%	25.0%	20.0%
	동 독	66.0%	19.0%	15.0%
동독 비밀경찰이 여전히 두려움을 준다	서 독	45.0%	26.0%	27.0%
	동 독	53.0%	20.0%	27.0%

자료 : Jaide, 1994 : 15.

한 청소년도 동독 청소년(20%)이 서독 청소년(15%)에 비해 다소 많아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구동독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과 관계있는 문항으로 과거의 동독 권력자들이 여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은데, 동독 청소년(66%)이 서독 청소년(54%)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동독 비밀경찰이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항목에도 동독 청소년(53%)이 서독 청소년(45%)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동독의 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데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이 통합되던 날의 생각과 통합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때의 태도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르겐 뵘이 쓴 「헤이 오씨, 안녕 베씨」라는 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글은 199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무기명으로 “독일의 통일,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라는 주제로 1,000명의 동서독 학생(15-19세)들이 수필형식을 빌려 그들의 의견을 45분동안 쓴 것이다. 라인란트 팔츠 주와 튀링겐 주의 도시와 시골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100개의 작품을 읽은 후 내용의 종류에 따라 80가지의 대표적인 항목을 추려내었고, 이 항목에 따라 1,000개의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서독청소년의 글에서는 “너희들이 갈 곳이 한군데 있다, ‘가스실’이라고 쓴 학생이 있는가 하면, “통일은 최악의 사건, 통일은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한 동독 청소년도 있었다(뵘, 1994).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통일을 찬성하고 있다. 다음 표는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지지도이다. 통일에 대해 아주 찬성한다와 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의 합이 서독청소년은 65.6%, 동독청소년은 83.2%로 나타났다. 즉 동독청소년이 서독청소년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사실과 서독청소년

〈표 1 - 15〉 독일 통합에 대한 찬성

		서 독	동 독
남	자	70.3%	86.3%
여	자	60.6%	80.2%
전 체		65.6%	83.2%

자료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 184, 재편집.

들이 느끼는 통독으로 인한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독 여자청소년이 60%로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독일통합에 대한 평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서독에서는 정치적 중립입장의 청소년이 독일통합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동독에서는 우파가 제일 많이 지지했다. 동서독 모두 우파적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이 좌파적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보다 독일 통합에 대한 찬성율이 높았다.

〈표 I - 16〉 정치적 입장에 따른 독일 통합에 대한 찬성

	서 독	동 독
좌 파	46.4%	31.9%
중 간 파	73.0%	92.4%
우 파	58.2%	95.0%
전 체	65.6%	83.2%

자료 : Schubarth, 1992 : 75, 재편집.

3) 독일 통합의 속도와 기대

사실 독일통합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빨리 독일통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독일 통합은 한편으로는 독일인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급속한 통합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 - 17〉 동서독 통합의 속도

	서 독	동 독
너무 빠르다	36.3%	24.9%
조금 빠르다	38.0%	34.1%
적절하다	18.3%	32.3%
느리다	7.4%	8.7%

자료 : Schubarth, 1992 : 78, 지편집.

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 청소년들이 독일통합이 빠르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서독 청소년(74.3%)이 동독 청소년(59.0%)에 비해서 빠르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동독 청소년은 좀 더 빨리 동서독 통합을 통해서 유익하고 안정된 생활을 얻기를 바라고, 반면에 서독 청소년은 그리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동독 청소년의 상당수(32.3%)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동서독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 - 18〉 동서독 통합이 개인의 삶에 끼칠 영향

		긍정적	보통	부정적
남 자	서 독	24.2%	48.6%	27.1%
	동 독	31.7%	53.1%	14.2%
여 자	서 독	12.2%	60.8%	27.0%
	동 독	18.8%	68.0%	13.2%
전 체	서 독	18.1%	54.8%	27.1%
	동 독	25.4%	60.4%	14.2%

자료 : Schubarth, 1992 : 79, 재편집.

다음으로 동서독 통합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조사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독 청소년(25.4%)이 서독 청소년(18.1%)에 비해서

〈표 I - 19〉 정치적 입장에 따른 동서독 통합의 평가

		긍정적	보통	부정적
좌 파	서 독	5.6%	53.5%	40.8%
	동 독	4.4%	60.0%	35.5%
중 간 파	서 독	21.7%	58.4%	20.0%
	동 독	31.5%	59.3%	9.2%
우 파	서 독	29.6%	31.8%	38.6%
	동 독	55.0%	45.0%	.0%
전 체	서독	18.1%	54.8%	27.1%
	동독	25.4%	60.4%	14.2%

자료 : Schubarth, 1992 : 70, 75, 재편집.

동서독 통합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양독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동서독 통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우파적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좌파적 입장에 있는 청소년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파나 중간파의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동독 청소년들이 동서독 통합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정치적 목표

새로운 통일 국가의 우선적인 정치 목표가 무엇이나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들의 통일 독일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질서유지(서독 40.0%, 동독 26.9%)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통합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한 염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많은 실업자와 외국인에 대한 테러 등 사회 혼란이 심각한 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정부결정에 시민들이 더 많은 영향력(서독 25.3%, 동독 38.8%), 경제성장의 높은 수준(서독 3.6%, 동독 17.5%), 자유로운 의사표현권의 보호(서독 31.1%, 동독 16.8%)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통합의 수동적 입장에 있는 동독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독청소년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부적응과 동독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0〉 가장 중요한 정치 목표

	서 독	동 독
질서 유지	40.0%	26.9%
정책 결정에 시민의 영향력	25.3%	38.8%
경제 성장	3.6%	17.5%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보호	31.1%	16.8%

자료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 172, 재편집.

5)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동독 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전체주의 사회에서 생활해왔으므로 새로운 민주주의 사

회에 대한 부적응과 함께 많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양독 청소년들 의식의 비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우선 동서독 통합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양독 청소년의 태도는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 -21〉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서 독	동 독
매우 만족	27.0%	8.0%
어느 정도 만족	62.0%	72.0%
불 만	9.0%	19.0%

자료 : Jaide, 1994 : 26.

독일 민주주의에 대하여 서독 청소년은 89%가 만족하고, 동독 청소년은 80%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매우 만족”에 서독 청소년은 27%가 응답하였는데 동독 청소년은 8%만이 응답하였고, “불만”에도 서독 청소년은 9%가 응답하였는데 동독 청소년은 19%가 응답하여, 동독 청소년은 서독 청소년에 비해서는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 청소년이 서구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불편한 점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 시장경제의 불편함과 민주주의 실현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독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표 I -22〉에 나타나 있다.

〈표 I -2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포기할 수 없는 권리)

	서 독	동 독
자유권		
여행의 자유	77.5%	68.5%
소수의 보호	63.0%	50.8%
외사표현의 자유	93.7%	95.8%
자유선거	92.7%	96.6%
자유경제 질서	59.5%	58.4%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76.8%	87.0%
노동의 권리	74.4%	86.7%
법앞의 평등	88.6%	84.7%
여성의 평등권	82.1%	84.9%
기본 의료의 공급	73.1%	79.4%
환경보호와 유지	71.2%	77.7%

자료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 185, 재편집.

양독 청소년의 응답 경향을 보면 대체로 서독 청소년은 자유권에서 동독 청소년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인데 비하여, 평등권에서는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보다는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라온 서독 청소년과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및 전제주의 국가에서 자라온 동독 청소년의 사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유권에서는 동독 청소년이나 서독 청소년이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평등권에서는 동독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의 평등과 노동의 권리에 대하여 서독 청소년보다 높은 응답을 하여, 동독 청소년들이 현재의 교육기회가 자신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체제인 새 통일 국가에서 다음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표 I-23>에 나타나 있다.

<표 I-23> 민주적 권리와 정치목표 실현에 대한 평가
(충분 또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실현되었다)

	서 독	동 독
자유권		
여행의 자유	92.2%	77.9%
소수의 보호	42.2%	36.9%
의사표현의 자유	82.1%	63.0%
자유선거	92.9%	90.1%
자유경제 질서	82.1%	50.5%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69.8%	68.6%
노동의 권리	55.4%	47.4%
법앞의 평등	75.2%	57.1%
여성의 평등권	64.9%	61.5%
기본 의료의 공급	86.3%	79.1%
환경보호와 유지	23.9%	7.0%

자료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 186, 재편집.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응답을 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이 서독청소년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동독청소년의 응답만을 본다면 여행의 자유가 77.9%로 가장 많은 데 이것이 동독청소년이 가장 절실히 경험하는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르겐 뵘의 조사에서도 동서독 통합의 결과로 가장 기쁜 것의 하나가 여행의 자유라고 하였다(뵘, 1994).

6) 사회제도에 대한 믿음

통합이후 서독의 각종 제도가 동독지역에 도입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 - 24〉 사회제도에 대한 믿음(아주 강함 또는 강함)

	서 독	동 독
학제	43.4%	23.7%
법정	43.5%	37.8%
노조	21.9%	17.0%
경찰	42.0%	31.0%
의회	18.6%	12.9%
교회	29.9%	26.8%
정부	22.7%	22.0%
텔레비전	26.1%	24.8%
연방방위대	21.8%	12.5%

자료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 188, 재편집.

여러 제도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것은 학제, 법정, 경찰 등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신뢰를 보인 것은 의회이다. 앞서서와 같이 동독청소년은 서독청소년에 비하여 모든 제도에 대하여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과 서독의 제도가 동독청소년들에게 아직은 낯설고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에 익숙한 서독청소년들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청소년들이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나는 독일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서독에 있는 많은 외국인이 나를 괴롭힌다”, “독일인은 역사상 위대한 민족이다”는 독일 민족주의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 세 질문에 대해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보다 더 높

게 평가하였다. 나머지 세 질문 즉, “독일 민족주의는 좋은 것이다, 다만 나쁘게 사용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독일 복지국가를 건설한 강한 지도자가 다시 필요하다”, “나는 히틀러를 존경한다”는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이다. 이 세 질문에 대해서는 양독 청소년이 모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민족주의는 좋은 것이다, 다만 나쁘게 사용되었을 뿐이다”에서는 서독 청소년(13.1%)이 동독 청소년(10.9%)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우리는 독일 복지국가를 건설한 강한 지도자가 다시 필요하다”, “나는 히틀러를 존경한다”에 대해서는 동독 청소년(각각 15.8%, 10.1%)이 서독 청소년(각각 7.1%, 7.6%)에 비하여 다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표 I - 25〉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서 독	동 독
나는 독일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7.9%	63.9%
동서독에 있는 많은 외국인이 나를 괴롭힌다	30.1%	41.6%
독일인은 역사상 위대한 민족이다	15.6%	24.0%
국가사회주의, 독일 파시즘도 근본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다만 나쁘게 사용되었을 뿐이다	13.1%	10.9%
우리는 독일 복지 국가를 건설한 강한 지도자가 다시 필요하다	7.1%	15.8%
나는 히틀러를 존경한다	7.6%	10.1%

자 료 : Schubarth, Hoffmann-Lange, 1992 : 117, 재편집.

3. 경제적 태도

동서독 통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으로 서독이 통일경비를 전담하는 과정과 피폐된 동독경제를 떠맡아야 되는 부담,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동독인들의 충격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들도 경제적 현실을 보는 눈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실업문제, 주택 및 물가 문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동서독 통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동독 청소년이다.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은 동독 청소년에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재적응과 이미 익숙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직업전선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독 청소년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노어공부를 하고 영어시험을 치는 기분일 것이다.

동서독 통합의 경제적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 -26〉 동서독 통합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매우 많이/매우	반 반	거의/전혀
서 독	남 자	34.0%	32.0%	32.0%
	여 자	33.0%	38.0%	28.0%
동 독	남 자	28.0%	38.0%	38.0%
	여 자	31.0%	42.0%	27.0%

자료 : Jaide, 1994 : 15.

조사결과를 보면 30% 정도의 청소년이 경제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슷한 비율의 청소년이 두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양독의 청소년이 모두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하였지만 그 내용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경제적 결과가 두려움을 주고, 또는 별로 두려움을 주지 않는 지는 이후의 여러 경제적 태도조사 분석에서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대감과 청소년 특유의 빠른 적응과 방향전

〈표 I -27〉 동독 청소년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11-12학년)

	만 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불만족
부모와의 관계	63.0%	27.0%	7.0%	3.0%
자신의 주거상황	54.0%	29.0%	10.0%	5.0%
가족의 경제 상태	31.0%	44.0%	20.0%	5.0%
자신의 돈	31.0%	34.0%	22.0%	13.0%

자료 : Müller, Schubarth, 1992.9 : 25.

환이 이러한 상황적 위기와 정신적 혼란을 쉽게 극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위 표는 1992년의 조사를 표시한 것이다. 동독 청소년은 대체로 현재의 경제생활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는 만족스러워한다(90.0%). 가족과 청소년들의 긍정적 관계는 동독에서는 수년동안 기정사실이였다. 그러한 사회심리적 관계는 부모의 물질적 생활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동독 청소년들은 ‘집의 주거상태’에 83%가 만족하고, 가족의 재정상태에는 75.0%가 만족하고 있다. ‘자기 돈’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해방감을 주며, 생활목표의 충족은 개인적 지불능력에 관계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6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동독 청소년의 경제적 만족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낙관적인 미래관을 반영하는 것 같다. 자기 확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서독 각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아 보자.

다음의 두 표는 동독과 서독의 각 지역의 현재 경제상황의 평가이다.

〈표 I - 28〉 동독지역의 경제 상태

	서 독	동 독
매우 좋다	1.0%	2.0%
좋다	3.0%	3.0%
반반	17.0%	19.0%
나쁘다	46.0%	46.0%
매우 나쁘다	31.0%	30.0%

자료 : Jaide, 1994 : 25.

〈표 I - 29〉 서독지역의 경제 상태

	서 독	동 독
매우 좋다	17.0%	39.0%
좋다	51.0%	46.0%
반반	23.0%	13.0%
나쁘다	5.0%	1.0%
매우 나쁘다	1.0%	1.0%

자료 : Jaide, 1994 : 25.

동독지역의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는 서독 청소년(77%)이나 동독 청소년(76%)이 모두 나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지역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서독 청소년이나 동독 청소년 모두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동독 청소년은 85%가 좋다고 응답하여 서독 청소년의 68%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서독 청소년은 동서독 통합의 부담으로 서독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 그리고 동독 청소년은 과거 동독 경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서독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들은 장래의 각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동서독 청소년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 - 30〉 3년에서 5년사이 서독 경제상황

	서 독	동 독
매우 좋아진다	9.0%	28.0%
좋아진다	37.0%	42.0%
반반	37.0%	25.0%
나빠진다	14.0%	4.0%
매우 나빠진다	2.0%	1.0%

자료 : Jaide, 1994 : 20.

〈표 I - 31〉 3년에서 5년사이 동독 경제상황

	서 독	동 독
매우 좋아진다	13.0%	19.0%
좋아진다	42.0%	49.0%
반반	28.0%	22.0%
나빠진다	11.0%	7.0%
매우 나빠진다	5.0%	2.0%

자료 : Jaide, 1994 : 20.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보다 낙관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신들이 살았던 옛 동독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서독의 청소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서독 청소년은 서독 지역의 발전을 동독 청소년보다 더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과 서독 청소년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즉 동독 청소년들은 생산의 증대나 생활수준의 상승과 같은 경제의 효과에 관심을 두는데 비하여 서독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이나 노동

시장 정책, 임금정책, 사회경제 정책 등을 주로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2) 주택 및 물가 문제

수많은 외국인 망명자때문에 집세가 많이 올라서 주택문제도 청소년들에게 큰 불만으로 등장하였다. 주택문제는 서독 청소년에게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IFEP의 조사에 의하면 “동독과 서독에서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독 청소년은 1위가 주택난(74%)으로 응답하였다. 동독 청소년은 95%가 실업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지만 62%가 주택난을 지적하여 주택난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만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의 기본 권리이다. 국가는 충분한 주거공간을 위해 애써야만 한다”에 대해 평균 80%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주택은 단순히 시장법칙에 종속될 수 없는 특별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독 청소년은 84%가 동의하여 서독 청소년의 73%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특히 동독 청소년의 82%가 임대인의 전횡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상황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하여 동독 청소년의 88%가 동의하였고, 서독 청소년은 74%가 동의하였다. 단지 31%의 청소년이 국가적인 간섭은 개인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 1992)

51%의 동독청소년이 서독에 비해 낮은 임금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었다.(뵘, 1994 : 147) 반면에 서독 청소년은 14%만이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러한 인플레이는 동서독 통합이후 특히 동독 청소년들의 눈앞에 나타난 물질적 풍요가 그림의 떡이라는 좌절감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었다. 동독 청소년들은 동서독 통합으로 여행의 자유와 구매의 자유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물가의 인상은 이런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독청소년들은 1991년 중반기 정부의 세금인상에 대해 45%가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세금인상은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의 교육지책으로, 동독때문에 서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동서독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경제문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사회문화 의식

동독 청소년 뿐만 아니라 동독 시민도 사회주의체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동독인들은 억압과 굴종의 산물로서, 비굴하고 지나치게 순응하는 사람으로서, 활기없고 의존적이며 불만족하고, 억압된 공격이란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동서독 통합 이후 이제는 그러한 억압적 압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억압된 공격성이 폭발하여 외국인 학대와 소수에 대한 증오같은 사회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구동독의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데 불안이 별로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것은 시민의 자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의 부족이 동독에서는 안정성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생활관계의 확실성은 동서독 통합으로 심한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변했다. 동서독 통합은 동독인들에게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겨 주었다. 이제 이들은 동독인이 아니고 통일독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므로 동독 청소년은 자신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그 첫 걸음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동독 청소년과 서독 청소년은 과거의 동독생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서독 통합이후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옛 동독의 생활에 대해 지금의 청소년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동서독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옛 동독 생활에 대한 평가

1991년 여름 Die Spiegel잡지의 앙케이트 조사에서 동독인의 84%가 자신을 이등독일인이라고 대답하였다. 구동독에서는 많은 동독인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최상의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동서독 통합 이후 그러한 자부심은 무너지고 스스로를 이등국민으로 자처할 만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충격속에서 동독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였을까? 그리고 서독 청소년들은 또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그 결과가 다음 표에 나

〈표 I -32〉

옛 동독생활에 대한 평가

	서 독	동 독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34.5%	60.5%
활동적인 생활이 필요없다	63.2%	31.8%
인생이 지루하다	29.6%	15.3%
감시가 심하다	77.2%	66.4%
사회적 확실성이 크다	47.6%	84.2%
자신의 창의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53.5%	43.3%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안다	24.5%	43.8%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53.0%	65.2%
질투와 경쟁이 없다	26.4%	30.7%
너무 통제되었다	87.3%	67.1%
순응하는 사람은 잘 산다	72.5%	79.2%
서로 서로 돕는다	41.0%	58.3%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70.1%	66.7%
정치가를 믿지 않는다	55.9%	56.9%
청소년에게 좋은 사회다	40.0%	59.4%
자신이 감금되었다고 느낀다	76.4%	53.0%
성인에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32.4%	44.8%

자료 : Lenz, 1993.5 : 24.

타나 있다.

이 표는 동서독 청소년 사이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독 청소년이 옛 동독의 삶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많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서독 청소년은 동독의 생활을 명확히 부정적으로 본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동독 청소년의 15.3% 만이 동독의 삶이 지루하다고 보고 60.2%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사회적 확실성이 크다는 사실이 강조된다(84.2%). 58.3%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돕는다고 생각하고, 59.4%는 기존의 사회관련 단체가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잘 활동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동독 청소년들도 동독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후에 옛날을 미화하는 작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동독 청소년들은 과거의 동독 생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독생활은 너무 통제되었고(67.1%), 사람들이 너무 감시받았다고(66.4%) 생각한다. 43.2%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의 창의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보장이 좋았다는 사실뿐이다(동독학생의 84.2%와 비교하여 47.6%). 76.4%는 사람이 감금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7.3%는 통제를 언급하고, 사람들은 활동의 자유를 거의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63.2%이다.

2)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

급속한 동서독 통합은 그 과정에서 예상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물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사회문제도 있었고, 외국인 망명자 문제와 같이 시대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은 동서독 통합과정에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동서독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동서독 통합이 가져온 변화들에 대한 동독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두 표는 독일 통합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동독 청소년의 반응이다. 동독 청소년

〈표 I -33〉

통일 후의 유익한 변화

	동 독
여행의 자유	38.0%
의사표현의 자유	15.0%
개인적 발전 가능성	15.0%
생필품 공급	12.0%
일반적인 자유	12.0%
자유로운 직업 선택	6.0%
정치적 압력이 사라짐	6.0%
변화가 없어짐	6.0%
더 나은 스포츠와 문화	4.0%
시장 경제	3.0%
학교의 변화	3.0%
더 좋아진 생활 수준	2.0%
재정	2.0%
기술과 기계	2.0%
그밖의 정치적 변화	2.0%
새로운 친구	1.0%
유행	1.0%
잡지와 신문	1.0%
자유 선거	.0%
무응답	12.0%

자료 : Veen, Jaide, 1994 : 76.

	동 독
실업	23.0%
폭력과 범죄	10.0%
문제가 된 변화 없음	9.0%
재정적인 변	8.0%
독립성에 대한 요구	6.0%
일반적인 불확실성	6.0%
급진주의	5.0%
사회적 불확실성	5.0%
관료주의	5.0%
외국인 적대감	4.0%
직업에 대한 불안감	4.0%
경제 상황	4.0%
새로운 법률 상황	3.0%
동독의 불이익	2.0%
교육제도의 변화	2.0%
마약문제	2.0%
그밖의 정치적인 변	2.0%
서독인의 불손함	2.0%
주택난	1.0%
교통문제	.0%
무응답	17.0%

자료 : Veen, Jaide, 1994 : 77.

이 동서독 통합으로 일어난 가장 유익한 변화로 지적한 것은 여행의 자유(38%)였다. 여행의 자유는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항상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15%), 개인적 발전 가능성(15%) 등으로 응답하여,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라난 동독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독 청소년이 문제가 된 변화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실업(23%)이다. 다른 조사에서도 실업문제는 동독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폭력과 범죄(10%)로 응답하여 사회혼란과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부족한 현 상황을 말해준다. 그 다음으로 과거 동독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만들어 냈던 여러 기관이나 권력자들이 여전히 구태를 간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 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낸다.

〈표 I -35〉 사회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주 강함 또는 강함)

	서 독	동 독
주택난	82.1%	71.3%
폭력현상	74.6%	77.2%
실업	68.6%	81.3%
약물 남용	67.8%	78.3%
외국인에 대한 적개감정	58.8%	52.3%
우파 극단주의	60.3%	67.9%
에이즈	58.3%	64.7%
무분별한 사회분위기	42.3%	47.7%

자료 : Gille, 1992 : 34.

이 조사 결과는 동서독 청소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독 청소년은 주택난(82.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폭력현상(74.6%), 실업(68.6%), 약물남용(67.8%),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58.8%), 우파극단주의(60.3%), 에이즈(58.3%), 무분별한 사회분위기(4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청소년은 실업(81.3%)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약물남용(78.3%), 폭력현상(77.2%), 주택난(71.3%), 우파극단주의(67.9%), 에이즈(64.7%),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52.3%), 무분별한 사회분위기(4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서독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약물남용인데 동독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더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대해 50%이상의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위르겐 뵘의 조사에서도 실업이 가장 높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는 독일의 청소년이 현재 가장 압박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인데 그 결과가 다음 표로 정리되었다. 역시 사회주의 국가가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온 동독청소년들이 개인적 문제에 대해 28.1%로 낮게 응답하고, 서독 청소년은 58.7%가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였다. 동독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문제가 전면에 놓여 있다. 실업, 물가상승, 주택난, 일반적인 생활조건의 악화를 종합한다면 그러한 물질적 문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서독 청소년의 평균 24.0%에 비해 동독 청소년의 평균은 45.3%가 되었다.

〈표 I - 36〉

가장 압박받고 있는 것

	서 독	동 독
개인적 문제	58.7%	28.1%
직업적 미래	6.3%	18.1%
부모의 장래	0.3%	15.7%
실업	4.7%	23.7%
주택난	16.3%	5.4%
생활조건의 악화	1.7%	17.6%
물가 상승	7.2%	11.5%
외국인 확대	3.6%	5.7%
환경 문제	18.5%	7.6%
우파 극단주의와 민족주의	5.2%	10.7%
범죄와 폭력	5.0%	15.9%
외국인 문제	5.0%	3.5%
국제 문제	9.6%	8.3%
동독의 붕괴	1.7%	10.0%
민족적 정체성 문제	0.1%	5.9%
서독 사회의 문제	1.7%	13.9%

자료 : Lenz, 1993.5 : 26.

또한 동서독 청소년들의 분명한 차이는 점점 늘어나는 사회의 급진화와 폭력화에 대한 공포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우파극단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독 청소년의 5.2%에 비하여 동독 청소년들의 10.7%가 두려워하고, 늘어나는 외국인 적대감정은 3.6%에 비해 5.7%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와 야만성의 증가에 대한 걱정은 5.0%에 비하여 15.9%를 차지한다. 이러한 3가지 항목은 사회의 급진화에 대한 걱정으로 파악한다면 이 걱정은 서독의 12.1%에 비해 동독의 25.1%는 두배가 된다.

동독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영역은 두 독일국가의 통일과정과 관계된다. 이것은 서독식 사회질서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할 문제와 동독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다. 동독 청소년들의 25.9%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서독 청소년들은 단지 3.0%만이 그렇게 지적했다.

특히 동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92년에 실시한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조사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표 I -37〉

동독 청소년에게 위협을 주는 사회문제

	강 함	약간 강함	약간 약함	약 함
폭력의 증가	46.0%	39.0%	11.0%	4.0%
우파 극단주의 확산	41.0%	34.0%	17.0%	8.0%
비싼 생활비	24.0%	45.0%	27.0%	4.0%
이기주의 팽배	25.0%	39.0%	29.0%	7.0%
에이즈	30.0%	26.0%	28.0%	16.0%
외국인 유입	21.0%	31.0%	31.0%	17.0%
좌파 급진주의	15.0%	30.0%	39.0%	16.0%
개인적 어려움	12.0%	30.0%	46.0%	12.0%
동서독인 갈등	10.0%	29.0%	44.0%	17.0%
실업과 교육 미비	16.0%	26.0%	36.0%	22.0%
전쟁의 위협	12.0%	15.0%	40.0%	33.0%

자료 : Müller, Schubarth, 1992 : 24.

동독 청소년의 85%가 공격성과 폭력의 증가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75%는 우파극단주의의 확대를 통해, 69%는 생활비의 증가를 통해, 64%는 일상 생활에서의 이기주의를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1990년에 조사했을 때부터 나타났다. 비싼 생활비의 두려움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1990 : 60%, 1992 : 69%). 그에 비해 좌파급진주의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은 그 정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 45%로 상당히 남아 있다. 실업이나 학교졸업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부족에 대한 걱정은 2년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1990 : 55%, 1992 : 42%).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입장을 가진 청소년은 우파 급진주의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좌파 : 93%, 우파 : 40%), 폭력성과 공격성은 좌파가 70%, 우파가 74%,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좌파가 70%, 우파가 52% 위협을 느꼈다. 동독과 서독의 갈등에 대해서는 좌파가 43%, 우파가 27%,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좌파가 39%, 우파가 24%, 독일의 전쟁연루 가능성에 대하여는 좌파가 40%, 우파가 27% 두려움을 느꼈다. 외국인 이주에 대해서는 우파가 87%, 좌파가 22%, 좌파급진주의에 대해서는 우파가 64%, 좌파가 21%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문화적 관심

청소년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차적이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래 표에 정리되었다.

〈표 I - 38〉 청소년의 관심 영역(1)

	서 독	동 독
자연과 환경	70.2%	70.6%
스포츠	70.8%	67.0%
차역과학 기술	38.6%	35.3%
역사	32.0%	34.1%
경제	24.8%	38.9%
예술과 문학	25.9%	26.0%
정치	20.3%	27.6%
종교	22.6%	17.2%

자료 : Gille, 1992 : 37, 재편집.

서독청소년은 스포츠(70.8%)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연과 환경(70.2%), 자연과학과 기술(38.6%), 역사(32.0%), 예술과 문학(25.9%), 경제(24.8%), 종교(22.6%), 정치(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독청소년은 자연과 환경(70.6%)에 제일 관심을 보였고, 다음으로 스포츠(67.0%), 경제(38.9%), 자연과학과 기술(35.3%), 역사(34.1%), 정치(27.6%), 예술과 문학(26.0%), 종교(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다르지만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동서독 청소년들의 관심영역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질적 사회에서 살아왔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것은 미래의 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텔레비전방송의 개방 등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동서독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공감대를 생기게 한 것 같다.

또 다른 연구는 좀 더 자세하게 청소년의 관심을 묻고 있다.

〈표 I - 39〉

청소년의 관심 영역(2)

	서 독	동 독
환경 보호	72.0%	74.0%
여행	59.0%	80.0%
음악	58.0%	69.0%
가정	57.0%	78.0%
스포츠	43.0%	39.0%
유행	33.0%	51.0%
문학	32.0%	27.0%
영화	31.6%	29.0%
정치	29.0%	39.0%
자동차	25.0%	42.0%
기술	24.0%	34.0%
경제	23.0%	41.0%
라디오	22.0%	54.0%
연극, 발레	22.0%	13.0%
텔레비전	16.0%	28.0%
비디오	15.0%	27.0%
컴퓨터	13.0%	22.0%
종교	11.0%	15.0%
군사	11.0%	8.0%

자료 : Hofmann, 1992 : 56.

이 표에서 보듯이 질문한 영역이 다양한 만큼 청소년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서독 청소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임은 확실하다. 또한 동독 청소년에게도 여행(80%), 가정(78%)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서독 청소년과 동독 청소년의 관심사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몇몇 영역에서는 다소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경제 등에서 동독 청소년의 관심이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독사회에 새로 접촉한 청소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들이다. 특기할 것은 동독 청소년이 가정(78%)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서독 청소년의 가정(57%)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동독에서 가정이 중시되었고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가족적 단합이 필요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행항목은 여행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동독 청소년과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서독 청소년의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5. 소 결

독일 통합의 과도기에 조사된 청소년들의 의식은 현 사회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나 의식이 안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분석은 동서독 통합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변화에서 통합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통합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동서독 청소년의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생관

첫째, 동독 청소년들은 삶의 목표에서 안정된 직업과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가 서독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실에 대한 만족도에서 동독 청소년들은 학교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다.

셋째, 전체 독일의 결합정도에 대해서는 동독청소년이 서독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독일전체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독 청소년이 더 낮게 지적하여,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생활의 만족도에서도 동독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넷째, 독일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는 양독의 청소년들이 우정과 동료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일통합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동독 청소년들은 다소 고독하고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양독 청소년의 태도에 차이는 없었다.

2) 정치적 태도

첫째,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서독 청소년보다 동독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일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일부의 청소년은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간파와 우파가 통합을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좌파는 통합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그리고 대체로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보다 동서독 통합에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독일통합의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지적되고 특히 서독 청소년이 동독 청소년에 비하여 빠른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보였다.

넷째, 동서독 통합이 개인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정치목표로 질서유지가 지적되어 통합과정에서의 무질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동독청소년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여섯째,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양독 청소년이 모두 높으나 상대적으로 서독 청소년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권리에서 서독 청소년은 자유권에서 동독 청소년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에, 동독 청소년은 평등권에서 높은 응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동독 청소년은 교육기회의 평등과 노동의 권리를 서독 청소년에 비해 더 강조하였다.

여덟째,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에서 동독 청소년은 대부분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응답을 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동독 청소년은 서독 청소년에 비해 낮은 신뢰를 나타내었다.

열째, 동독 청소년은 독일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서독 청소년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3) 경제적 태도

첫째, 현재의 경제생활 상태에 대해 동독 청소년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동서독 청소년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상태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서독 지역의 경제상태는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구서독 지역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다.

셋째,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에서는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보다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동독 청소년은 주택난과 물가상승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독 청소년은 세금의 인상 등 독일통합의 비용을 서독이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4) 사회 및 문화 생활에 대한 태도

첫째, 구동독 생활에 대한 평가에서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동서독 통합으로 인한 사회변화 중, 동독 청소년은 유익한 변화로서 여행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적 발전 가능성을 들었고, 문제가 된 변화로서 실업, 폭력과 범죄를 들었다.

셋째, 가장 불안감을 주는 사회문제로서 서독 청소년은 주택난을, 동독 청소년은 실업을 지적하였다.

넷째,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동서독 청소년은 개인적 문제를 들었지만, 그 응답율에서 서독 청소년이 동독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지적한 것은 서독 청소년은 환경 문제와 주택난이었으며, 동독 청소년은 실업과 직업적 미래를 지적하였다.

다섯째, 동서독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스포츠, 환경 보호, 여행, 가정, 음악 등을 지적하여 비슷한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전 제품에 대해 동독 청소년이 서독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II. 교육의 변화

어느 나라의 청소년이나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교육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학문적 기능, 사회적 기능,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기능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짐으로써 교육제도도 달라지고 학교교육의 기능도 그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모습은 개인적 기능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사회적 기능과 학문적 기능이 보완되는 형태이겠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는 학교교육에서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어 마스 레닌주의 사상의 교화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동독의 학교교육은 통일이후 동독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 원인이 되었다.

이 장은 독일 통합 이후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하였고, 특히 동독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구서독과 구동독의 교육 제도가 어떠 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통일 이후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동독의 학교

동독에서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의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사회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의무교육은 6세에서 16세까지 계속된다. 일부학생들은 입학한지 8년 후에 약 10%가 도제생활을 시작하며, 다른 아이들은 8년을 마친 후에 정규 고등학교에서 연장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10학년을 모두 마친 아동은 누가 연장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때는 성적 이외에 정치적 사상적 자세와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 참작된다. 연장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준비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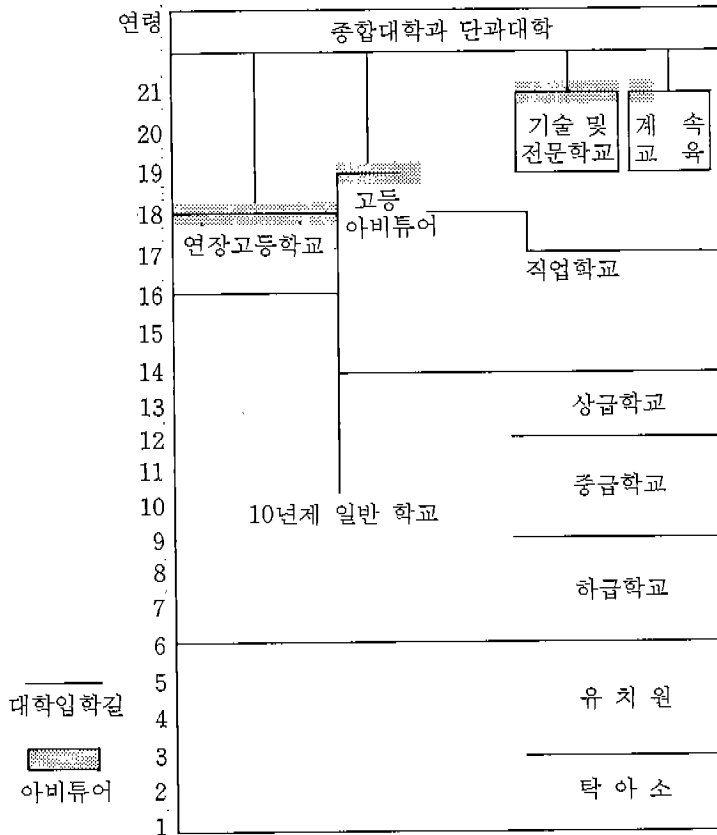
동독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청소년 단체를 통한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소년개척단(14세 미만의 아동조직), 지방당조직, FDJ(Freie Deutsch Jugend : 14-15세의 청소년)가 있다.

1) 학교제도

동독의 학교교육은 단선제였다.

〈표 II-1〉

동독의 학교 제도



자료 : 서정화, 1987 : 179.

2차대전 후 동독은 동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영향을 받아 스탈린식 학교제도를 모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자 동독의 교육제도도 크게 변하게 되었다.

스탈린식 교육이 행해지던 1958년까지 소련군정에 의해서 2/3이나 되는 교사들이 해고당하고 교사교육을 받지 않은 4만의 노동자와 농민들로 대체되었다. 학제에서는 8년제 국민학교에 기초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단일제 학교의 설립과 고

등교육에서는 서독의 김나지움과 구조가 비슷한 4년제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소련은 종합기술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훈련과 생산노동을 강조하니까, 동독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1959년에 학교체계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6-16세의 아동이 모두 다니는 10년제 일반종합기술학교라는 기본학교의 형태가 생겼다.

동독의 학제는 우선 탁아소에서부터 시작된다. 탁아소는 0세에서 3세까지의 아이가 맡겨지는데 기업체와 협동농장에서 정부허가를 얻어 설립하며, 건강성에서 관찰한다. 1987년까지 0세에서 3세까지 아동의 68%가 수용되었다.(신세호, 1993 : 257)

유치원은 1946년부터 단일제 교육제도의 취학전 교육으로 기능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유치원교육의 이념화가 강조되었다. 대부분이 국립이고, 아주 적은 수를 기업이 운영하였는데 종일제 수업을 하였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94%의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녔다.

일반 학교는 만 6세부터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0년 기간을 초급(1-3), 중급(4-6), 상급(7-10)학년의 3단계로 나누었다. 학생들은 5학년부터 직업교육과 러시아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7학년 때의 교과과정은 수학과 자연과목을 제일 강조하였고(34%), 다음에 언어교육(25%)과 사회교육(15%), 그 다음에 예체능교육(12%)과 기타 과목을 가르쳤다. 10년제 학교에서는 모두 18과목을 가르쳤다. 대학에 안 가는 학생은 9학년부터 직업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었다. 10학년 의무교육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설발시험을 거쳐서 1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약 10%정도가 뽑혔다. 11학년과 12학년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아비투어과정이다. 또 직업학교에도 아비투어코스가 있는데 기간이 3년이다. 그밖에 기술학교, 전문학교, 계속교육을 마치 고도 대학에 진학 할 수 가 있다(김영식, 1987 : 177 ; 신세호, 1993 : 257-59).

2) 직업 교육

동독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체에서 하는 이중 교육제도를 가졌다. 10학년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중에서 약 9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는 학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농업학교, 상업학교, 실업학교가 있고, 특수직업학교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였다. 동독 직업교육의 핵심기관은 기업아카데미인데 기업연합이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직원의 재교육을 맡았다. 기업체에서 배우는 실습교육은 매주 16시간이며 전체 수업시간의 40%를 차지하였다.

특히 기업내의 기술교육은 비숙련공을 숙련공으로 만드는 일이 과제인데, 교육기간은 2년이며 노동시간 외에 가르쳐서 숙련공(Meister)을 길러내었다. 옛 동독의 기술교육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이 되었으며, 1부인 사회주의 생산입문에서 이론을 배우고, 2부인 생산적 노동에서는 공장내에서 공장종업원이 가르쳤다(서정화, 1987 : 74 ; 신세호, 1993 : 259).

3) 대학 교육

동독대학의 학생수는 국가의 사회경제계획에 따라 정해졌다. 대학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20—25명씩 세미나 그룹을 만드는데, 공산당 청소년단체인 FDJ가 이 그룹들을 지도통제하였다. 학생들은 누구나 다 받는 기본장학금 외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장학금이 있었다. 대학생의 4분의 3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가 집에서 통학했다. 교육연한은 4년내지 5년인데 2년의 일반과정과 3년의 전공과정으로 나누어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에 동독에는 종합대학이 6개, 공과대학이 15개, 공업전문대가 3개, 농림업전문대가 2개, 경제법률대가 3개, 교육대가 10개, 예술대가 12개 있었다.

동독에서는 대학과 기업체의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대학생의 절반이상이 노동자와 농민출신이라는 점이 특색이었다. 교사양성제도는 가르칠 학년에 따라 선생될 사람의 교육기간이 달랐다. 유치원선생은 10학년 의무교육을 마친 다음 교육전문대학에서 3년 배우고, 일반학교 1-4학년 선생은 4년간 배웠다. 일반학교 5-12학년 교사는 교육대학, 공과대학, 종합대학에서 5년간 배웠다. 그다음 직업교육을 담당할 선생은 기계, 섬유, 전자, 건설, 식품, 데이터처리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주로 드레스덴, 막대블크, 켐어란 공대와 홀볼트, 라이프찌히 종합대학에서 배웠다(신세호, 1993 : 263-264 ; 서정화, 1987 : 175).

4) 성인 교육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을 강조하는데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직업적 전문지식을 쌓고 교양을 넓힐 기회를 많이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평생교육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노동자, 농민, 기업가, 고급관리 등 누구나 참여하였다. 중요한 성인교육기관으로는 통신대학, 야간대학, 국민대학, 기업체아카데미, 마을아카데미, 여성아카데미, TV아카데미, 클럽활동, 문화의 집 등이 있었다.

교육내용은 아주 다양하여 일반교육은 물론이고, 가정교육, 문화와 정치교육, 기술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국영기업체에 붙어있는 성인교육기관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배워서 생산성을 높이라고 근로자와 지도자를 다 가르쳤다. 그리고 국민대학이 많아서 220개나 되었는데 지정된 과정을 수료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었다(서정화, 1987 : 176).

이런 동독의 학교제도가 통일 후 서독의 학교제도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서독의 학교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2. 서독의 학교

서독은 3개의 특별시와 11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 7조 1항에서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하에 있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나서, 기본법 30조에서 “국가의 교육적 권한 행사나 과업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법이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각 주가 행한다”고 하여 주정부의 교육적 독립을 규정하였다. 연방정부의 교육행정은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자격에 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그 밖에도 주정부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증설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각급 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임용자격, 교육기간 등을 규제한다.

주정부는 주로 교과과목, 수업진행 방식, 과목별 시간배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를 위한 지침이나 지시와 급여 등을 맡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과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다. 학교운영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담당업무를 분리해 놓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최희선, 1991 : 252).

1) 학교 제도

이처럼 법으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교육정책에 관여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각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학제를 제외하고는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교육제도 등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다른 주의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인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48년부터 주문교장관회의가 시작되어 서독전체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독의 기본적인 학제와 바이에른주의 학제가 아래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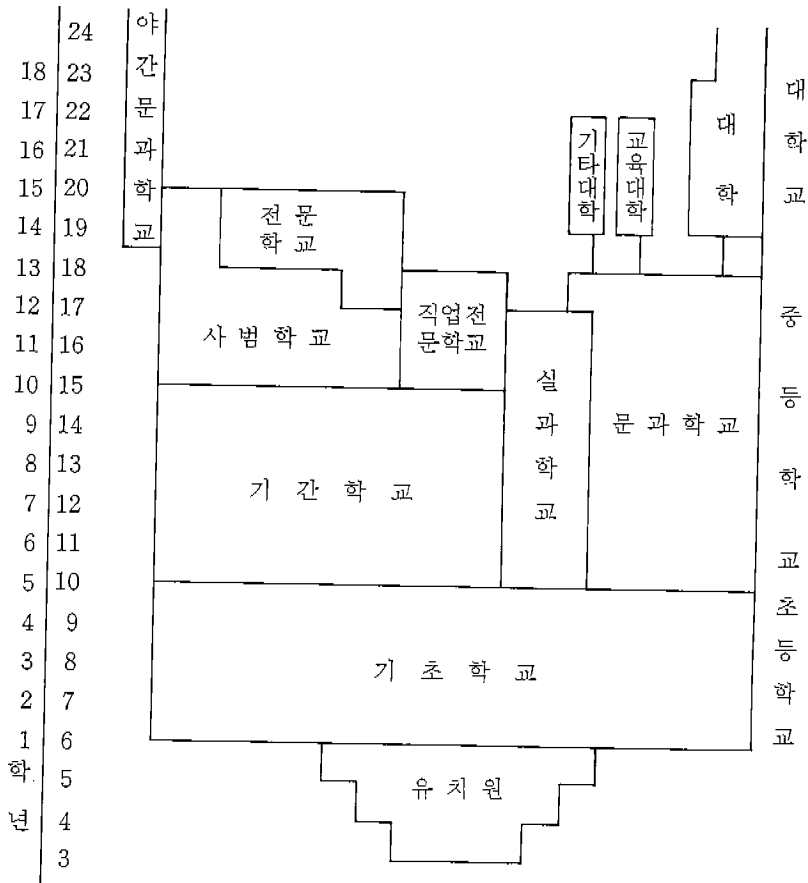
〈표 II-2〉

서독의 학교 제도

(연령)(과정)

종 합 대 학 기술단과대학 문과단과대학 예술단과대학				전 문 대 학 종합전문대학 행정전문대학		전문 학교	야간 학교	직업 향상 학교	23	고등 과정	
						현 장 근 무			22		
							21				
							20				
									19		
종 합 학 교	문 과 학 교	문과 학교	실업 상급 학교	직업 전문 학교	직업 학교 (전일 제)	이원화교육 (산학협동훈련)		18	2 단계 중등 과정		
						기초직업훈련		17			
				16							
		실 과 학 교		기 간 학 교				15	1 단계 중등 과정		
								14			
								13			
								12			
				공동교육과정		(상급학교 선택기간)				11	
										10	
		기 조 학 교								9	초등 과정
										8	
										7	
										6	
		유 치 원								5	유아 과정
4											
3											

자료 : 신세호, 1993 : 283.



자료 : 궤상만과 김영준, 1987 : 249.

이처럼 서독의 학교제도는 복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엘리트층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찍 직업전선으로 나갈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이다.

초등교육 과정은 4년제 기초학교(9개주)와 6년제 기초학교(2개주)이며, 중등교육과정은 실과학교(Realschule : 6년제), 문과학교(Gymnasium : 9년제), 기간학교(Hauptschule : 6년제)이다. 기초학교에 들어가기 전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이 가는 유아원이 있는데, 의무교육이 아니며 지역사회복지단체나 교회 등이 운영한다. 서독의 학교는

매년 8월 1일에 시작하는데, 그 해 6월 30일까지 만 6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 다닐 의무를 가진다. 의무교육기간은 교육법상 6세부터 18세까지의 12년이지만, 이것은 졸업후에 받는 직업교육까지 포함된 기간이므로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은 9-10년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기초학교를 마치면 기간학교, 실과학교, 문과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학교로 진학하는가는 부모와 자녀가 의논한 후 교사의 조언을 참고로 결정한다(최희선, 1991 : 256 ; 광상만, 김영준, 1987 : 251-252).

기간학교는 이전의 국민학교(Volksschule)에서 바뀐 이름이며 9-10학년까지 일반을 위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직업에 관한 지식을 배워서 공민적 자질과 직업적 기술을 익힌다. 이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업을 얻거나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10학년까지 마친 후 중등2단계로 진학하여 대학입시준비(Abitur)를 하기도 한다.

실과학교는 전에 중간 학교(Mittelschule)라고 불리었으며, 문과학교와 기간학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실제 직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10학년까지 계속되며 졸업 후 바로 실습에 들어가거나 계속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지만(대부분 2년간의 전문학교) 성적이 우수할 경우 문과학교에서 중등2단계 교육을 받기도 한다. 교과내용은 분량과 수준면에서 기간학교보다 더 많고 높으며 사회의 중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문과학교는 계속해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학문의 기초를 닦는 학교이다.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9학년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거쳐 대학준비반으로 진학하게 된다. 10학년을 마치면 학교의 성격에 따라 현대어, 고전어, 자연과학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내용이 달라진다. 이 학교는 관리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이처럼 세 가지 형태의 학교가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그 사이의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런 학교제도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더 뚜렷이 나타내고 4학년 말에 일찍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문적인 기초를 똑같이 갖게 하고, 그들의 진로결정을 중등2단계가 끝나는 때까지 미루어, 조기선발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학교(Gesamtschule)가 설립되었다. 종합학교는 1964년 함부르크 협정에서 논의되어 몇몇 주에서 실험단계를 거친후 1971년에 설립되었다. 종합학교는 1980년까지 약 180개교가 설립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이들 학교형태에 따른 학생수의 변화 추세를 보면 특히 문과학교의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표 II-4>
학교형태별 학생수의 변화

(단위 : 천명)

	1960		1970		1987	
	학생수	%	학생수	%	학생수	%
기간학교	5,290	78.8	6,348	70.7	3,740	54.3
실과학교	430	6.4	864	9.6	976	14.2
문과학교	852	12.7	1,380	15.4	1,656	24.0
특수학교	143	2.1	322	3.6	261	3.8
종합학교			62	0.7	261	3.7
계	6,715	100.0	8,976	100.0	6,894	100.0

자료 : 최희선, 1991 : 259.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과 음악, 예술, 기술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들 학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교육시키는 곳으로 입학 을 위해서는 Abitur가 필요하다. 수업은 초중등학교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교수나 강의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수업년한을 이수하면 졸업시기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학년이나 학급단위의 수업이 없고, 공부는 주로 개인이 하며, 따라서 강의 내용이나 교수를 따라 대학을 옮기는 일이 자유로운 편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 변화를 보면 1960년에서 1983년 사이에 음악 미술 대학생은 약 2.4배로 늘고, 일반대학은 4.1배로 늘었는데, 기술 전문대학은 6.3배로 늘었다. 전

<표 II-5>
고등교육기관별 학생수의 변화

(단위 : 천명)

	1960	1983
대 학	238.4	976.6
음악 미술 대학	8.5	20.4
기술전문 대학	44.2	276.2
계	291.1	1273.2

자료 : 최희선, 1991 : 258.

체 대학생중에서 예능계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어 1.6% 밖에 안되고, 기술전문대학생은 21.1%이다. 전체대학생의 4분의 3은 일반대학생이다.

2) 교육 과정

서독의 학교는 매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7월 31일에 끝나며,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겨울 학기,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여름학기로 구분된다. 연간 수업일수는 약 220일 정도이고, 방학기간은 140일이 넘는다.

서독은 비록 교육자치체가 잘 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교과과정은 Didaktik라는 연방정부의 규정으로 정해진다. 이 규정은 교수와 학습에서 취급하는 내용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서독의 교육내용은 동서냉전으로 분단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의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과거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다가 전쟁도 발국이 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노력이기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영향때문이기도 하다. 서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개인의 발전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 합리적인 사고의 발달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있다.

이러한 교육제도하에서 서독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준비하며, 학교는 이를 도와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터전을 제공한다. 각 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희선, 1991 : 264-275)

① 기초 학교

기초학교의 교육과정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Bayern주를 예로 들면, 기초학교의 교육목적이 학생들이 그 주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하고, 신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갖도록 하며,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과 개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목 편성과 그에 대한 시간배당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초학교에서 모든 교과목은 다 필수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과목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수업시간은 45분이 기준이며 필요한 경우 통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 하루 6시간 수업에서 50분간의 휴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성적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교사가 평가하여 정한다. 성적표는 기초학교에 다니는 동안 1,2학년때는 학년말에 한번, 3,4학년 때는 매 학기 말에 한번씩 받는다. 3,4학년부터 수학과 언어는

〈표 II-6〉 Bayern주와 NRW주의 기초학교 교과목과 배당시간수

		Bayern주				N R W 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종교		2	3	3	3	2	2	3	3
독일어				7	7			5	5
물상				4	4	6	7	3	4
수학		17	17	5	5	4	4	4	4
음악·운동				-	-				
미술				1	1				
음악		-	-	2	2	3	4	4	4
수예공작		-	-	2	2				
촉진활동		1	2	1	1	1-2	1-2	1-2	1-2
기초수업				-	-				
체육		2	2	2	2	3	3	3	3
합계		22	23	27	27	19-20	21-22	23-24	24-25

자료 : 최희선, 1991 : 267.

필기고사로 치른다. 성적표는 학교수업의 평가 결과와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발달행동에 대해 1,2학년은 진술식으로, 3학년은 진술과 평점으로, 4학년은 평점만으로 나타낸다. 평점은 1에서 6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1학년부터 2학년은 별 절차없이 진급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유급이 가능하다. 학년말에 진급과 낙제를 결정하는데, 전과목 평균이 4점 이상이면 진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유급되는데, 이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기초학교에서 유급되는 학생수는 1976년에 1학년은 전체학생의 4.1%, 2학년은 3.3%, 3학년은 2.3% 정도였다.(최희선, 1991 : 272)

② 중등 1단계

중등 1단계는 통상적으로 5-10학년에 해당되며, 기간학교, 실과학교, 문과학교, 종합학교를 말한다. NRW주의 예를 보면, 수업시간 배당에서 5-6학년은 주당 30-32시간으로 되어 있고, 7학년 이상에서도 34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독일연방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등 1단계의 수업과목과 그 시간 배당은 다음 표와 같다.

실과학교, 김나지움, 기간학교의 과목수나 시간 배당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표 II-7〉

독일연방의 중등1단계 학교별 수업과목 및 시간배당

		중 등 교 육 (1)											
		7 학 년			8 학 년			9 학 년			10 학 년		
		기간	실과	김나지움	기간	실과	김나지움	기간	실과	김나지움	기간	실과	김나지움
종	교	2	2	2	2	2	2	2	2	2	2	2	2
독	일	4	4	4	4	4	4	4	4	4	6	4	4
제1	외국어	4	4	4	4	4	4	4	4	4	6	4	4
수	학	4	4	4	4	4	4	4	4	4	6	4	4
역	사	2	2	2	2	2	2	2	2	2	—	2	2
사	회	1	—	—	1	—	—	1	1	1	4	1	1
지	리	2	2	2	2	2	2	1	1	1	—	1	1
물	리	2	2	2	2	2	2	2	2	2	2	2	2
화	학	2	2	2	2	2	2	2	2	2	2	2	2
생	물	2	2	2	2	2	2	2	—	—	2	2	2
실	업	3	—	—	3	—	—	4	—	—	2	—	—
음	악	2	2	2	2	2	2	2	2	2	—	—	—
미	술											2	2
수	예	—	2	2	—	2	2	—	2	2	—	—	—
예	공												
제	육	3	3	3	3	3	3	3	3	3	2	3	3
필	수	3	5	5	3	5	5	3	4	4	—	4	4
합	계	34	34	34	34	34	34	34	33	33	34	33	34

자료 : 최희선, 1991 : 270.

그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8〉

중등 1단계 3 학교 과목수와 시간배당 비교

기간학교	실과학교	김나지움
- 기초학교의 교과목에 실업과 영어 추가됨 7학년부터 수학과 영어에서 흥미와 능력에 따라 기초와 중급과정으로 반편성을 한다. 10학년에서는 직업(10A)과 대학(10B)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구분해서 반편성	- 필수선택과 ○78학년 : 불어, 사회학중 1과목을 택하여 1주 3시간씩 수업해야 한다. ○9-10학년 : 흥미와 능력에 따라 외국어, 과학(생물, 물리, 화학), 사회학, 특수교육, 공업, 전산, 예술/음악, 체육중 2과목을 택해 1주2시간씩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중 또 한과목을 택해서 1주4시간씩 수업을 받는다. 다시 말해 전학년에 걸쳐 필수선택이 4과목이다.	- 외국어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수업은 학급단위로 이루어 진다. 7학년부터 제2외국어가 부가된다. - 제1외국어 : 라틴어, 영어, 불어중 1과목 - 제2외국어 : 라틴어, 영어, 불어중에서 제1외국어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다. - 필수선택으로 9-10학년에 1과목을 택히 1주 4시간씩 더 깊이 공부해야 하는데 이때 제3외국어(그리스, 라틴어, 불어, 스페인어 등)를 필수선택으로 할 수 있다.

자료 : 최희선, 1991 : 265.

중등 1단계의 평가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기간학교에서는 독일어, 수학, 영어 중 한 과목에서 4점을 받지 못하거나, 전체평균이 4점이 못되었을 때 진급이 유보된다. 이때 재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실과학교에서는 독일어, 수학, 영어가 필수 과목이고, 김나지움에서는 독일어, 수학, 제 1,2 외국어가 진급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중등 2단계

중등 2단계는 각종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와 김나지움 상급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김나지움 상급단계는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슷하다. 11학년부터 시작되는 김나지움 상급단계는 Abitur 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 기간은 입문과정 1년과 Abitur 자격취득과정 2년으로, 13학년까지 3년 동안이며, 13학년말에 Abitur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입문과정의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의 예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I-9〉 11학년의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영역		교과목	1 학 기	2 학 기
인문예영	I.	독일어	3	3
	언어	외국어(5-10학년 간 공부한 외국어 중 택1)	3	3
	문학			
	예술	제 2외국어		3
영역	역	미술이나 음악	3	3
	II.	사회영역에서 택1	3	3
		사회영역에서 추가로 택1		3
수학	III.	수학	3	3
	자연과학	생물, 물리, 화학 중 택1	3	3
	기술영역	자연과학에서 한 과목을 더 택하거나 전산학		
		기술, 가정 중 택1	3	3
종교	교		2	2
	체육		2	2
선택과목			5	
계			30	31

자료 : 최희선, 1991 : 282.

입문과정의 주당 수업시간은 1학기에 30시간, 2학기에는 30-33시간이다. 이 입문

〈표 II-10〉 김나지움 상급단계 시험과목

자료: 최희선, 1991: 284.

3) 학교 생활

– 54 –

수업지침은 Bayern주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일깨워 주고, 직접 자신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습의 기쁨을 맛보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학교에서 1,2학년의 수업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고, 될수 있는 대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며, 본격적인 교과교육은 3학년부터 시작되게 한다. 또 NRW주의 경우는,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쁨을 맛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며, 다른 학생이나 다른 교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율과 질서를 익힐 수 있게 도와 준다. 또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수업시간이 너무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최희선, 1991 : 276-277)

수업방식은 전체수업과 개별수업, 협동학습 등을 병행해 나가기를 권장하고 있다. 기초학교는 교사와 학생수 비율이 1983년에 1 : 17이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사용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학교의 수업은 교사가 교실 가운데에 서서 새로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질문하고, 틀린 경우엔 고쳐 주며, 학습할 내용을 연습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연습하기를 반복하여 교실에서 학습내용을 다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제에 따라 소집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이나 실습을 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과 주제와 과제를 논의하고, 과제의 진척을 통제하며, 집단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1,2학년은 전체수업의 2/3, 또 3,4학년은 1/2 이상을 담임교사가 맡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전담한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해 그들을 따로 모아 보충 수업도 하게 된다.

기초학교의 수업이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중등1,2단계의 학교는 학교형태와 과정에 따라 학급구성도 달리한다. 즉 학급단위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교과목에 따라 능력과 흥미에 맞는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하기도 한다. 수업도 기초학교와 같이 집단활동인 직접탐사, 현장실습 등을 통해 이론과 실제경험이 조화되도록 하여, 학교형태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어 직업교육까지도 연결되도록 지도한다.

3. 동독의 교육개혁

독일통일은 옛 동독의 5개주가 서독에 병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독의 교육제도를 서독식으로 고치는 것이 통일 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자본주의 교육제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것 몇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개혁추진조직, 그리고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교육문제

한 사회의 체제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문제이다. 독일의 통일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가 많지만 세가지 문제, 즉 학제의 변경, 교사의 부족, 교육내용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1) 학제의 변경

사회주의 동독의 학제는 10년의 의무교육인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삼는 단선형이었으나, 통일이 된 후 동독의 교육제도는 단선제에서 서독식 복선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동독의 학교제도가 단선제에서 복선제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특히 학부모들은 중등과정의 4가지 진로중 어느것을 택해야 할지 판단기준이 서지 않아 당황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제도에 적응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까지도 낯선 서독학제에 익숙해지려고 고생하게 되었다.

학제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조약 제37조 1항은 동독의 옛 학교제도에서 취득한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의 졸업장과 자격증은 동독지역에서는 계속 유효하며, 그 취득기준이 서독과 대등할 때는 서독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일반교육과 대학교육의 졸업장과 자격증은 주정부 문교부에서, 또 직업교육의 경우는 그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서독과 대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박재윤, 백성준, 1993 : 292-93)

(2) 교사의 부족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선생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깊히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학교에 남게 된 교사들도 교사의 자질이 서독교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되어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과목과 영어교사의 재교육과 충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더구나 서독 교사들은 동독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꺼려하여, 동독에서는 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다. 선생 숫자가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선생들이 새로운 학교제도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전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방식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서, 학생들보다 선생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3) 교육내용의 변화

교육은 사람을 사회화시켜서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동독사람들에게 자본주의체제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크게 변하였다. 따라서 교과서는 모두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동독의 학교교재 출판사가 하나 있었는데 서독 출판사에 병합되었다. 통일된지 1년이 지난 1991년 9월까지도 교과서 공급량이 부족해서 심한 경우에는 한 학급에서 3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신세호, 1993 : 292)

교육과정과 내용이 바뀌면서 서독학교를 기준으로 동독학생들을 평가하게 되어서, 동독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다고 상급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독일연방정부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과대학 등에 동독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사회주의 동독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최선이고 자본주의는 모순이 많다고 가르치다가 이제는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가르치게 된 선생들은 난처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배우게 된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각급 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들의 시설 상태가 서독에 비해서 극심하게 낙후되어 있었으며, 교수, 교사, 행정가 등 교육관계 직원들이 체제 변화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동독지역내의 학교 분위기는 불안정하고 동독지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동독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심각했다. 자신들이 받은 교육이 서독사회에서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독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2) 개혁 방향

통일후의 교육통합에 관련된 정책과 주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일독일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 조직을 알아보고 개혁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2년 10월 통일되기 이전에 이미, 저항시민단체 위원회, 교회, 평화운동 집단들은 동독 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의 이데올로기화, 교육내용의 왜곡이나 결

여, 중앙집권적 구조에 대해 비판하였다.

1989년 가을에 동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10월 18일 Erich Honecker 정권의 붕괴, 11월 7일 공산정부의 붕괴, 12월 3일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사퇴 등은 동독 체제의 전환점인 동시에 동독지역의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특히, 동독교육부장관 Margot Honecker의 퇴각은 오랫동안 SED가 주도 해온 동독 교육제도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다.

1990년 8월에 체결된 통일조약은 제37조와 38조에서, 동독학교의 졸업자격과 학위의 인정문제, 교원채용을 위한 시험과 절차, 견습직의 자격증, 학제 변경에 관한 규정들, 대학생들의 전학문제, 대학진학 자격문제 등 학문과 연구에 관한 조항을 두어, 통일 후에 동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비하였다(독일정부, 1990 : 181-184).

이제 새로운 동독정부는 문화교육부, 학교 장학기관, 현직연수기관 등 새로운 행정구조를 단기간내에 설립하게 되었고,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대단히 어려웠는데, 여기에 쓰이는 방법과 절차가 동독인들의 정치적 과거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동독정부는 1990년 5월 신교육법을 발표하여 1965년 이래 시행되어 온 ‘통일 사회주의 교육체제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1990년 8월에 만들어진 ‘학부모 대표 규정’은 학부모대표의 권한과 의무, 학부모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 9월에는 ‘일반 및 직업학교 잠정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10년제 일반학교, 아비튜어학교, 장애아학교, 영재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적용되며, 이 법은 연방법의 원칙 아래에서 동독지역의 학제, 수업, 시험, 학교경영, 학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신세호, 1993 : 253-56).

1989년말 공산당이 붕괴되고 국가와 당의 권한이 명백히 분리되어 지금까지 당이 가졌던 권한이 정부로 넘어갔다. 학교행정을 맡았던 동독문교성, 직업교육을 맡았던 당비서국,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부로 삼분되어 있던 교육행정조직이 과도 정부때 “교육청소년부”로 통합되고, 1990년 3월 구동독 총선 후에는 “교육 학문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0년 5월 6일 지방 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에 협력위원회와 학교운영 구조들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민주화의 핵심은 선출된 부모, 교사, 학생, 재단의 대표자들이 구성하는 학교위원회의 설립이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장학기관이 신설되었고, 새로운 교육구 장학관, 주의 장학관, 그리고 교장들은 모두 새로 임명되었다.

1991년 7월 연방과 각 주는 동독 5개주의 대학과 연구를 위한 공동개혁안에 합의하였는데, 목표는 대학의 인사개혁, 유능한 학자들의 동독주에 계속근무 보장, 신진학자 육성, 대학생과 학자의 자질강화, 학술연구단체와 개별연구인의 대학으로 흡수, 대학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하부구조 확충으로 잡았다. 이 계획은 1991-1995의 5년간 수행되며, 총예산 소요액은 17억 6천만 마르크로 연방정부가 75%, 각 주가 25%를 부담하기로 하였다(주독대사관, 1992 : 84).

3) 개혁 추진 조직

서독의 교육운영 구조는 연방정부,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동기구, 주정부의 세 단계로 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일반적 관할권은 주정부에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교섭할 때 교육계획과 교육기관의 지원, 학문연구 추진이 지역성을 탈피하도록 주정부와 연방간의 협상을 조정한다고 통일조약 38조에 규정하였다.

서독의 11개 주는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졌다. 각 주는 교육영역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기관을 가졌다. 학교의 졸업과 교육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준을 주사이에서 통일시키는 원칙같은 것은 주문교부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각 주에 대한 추천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옛 동독에서는 모든 지역이 중앙집권적 교육구조를 가졌고 교육과정, 교수요목, 공휴일 제정, 교사훈련체제 등이 획일화되었다.

독일의 통일방식이 동독을 연방의 새 주로 가입시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통일 후 동독의 주정부와 교육기관은 새로 구성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독의 연방-주간 교육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었는데, 연방과 주정부 양쪽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문제들에 대한 협의기구이다. 이 기구는 동독지역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으로 나누어서, 사회주의 인간의 민주화교육, 상업과 회계학 등 자본의 교육을 강조하였다(신세호, 1993 : 273-274).

통일조약 직후인 1990년 10월 주문교부장관회의에서 교육정책의 시급한 과제로 교사시험 및 교사자격 인정 문제, 동독의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의 배제, 동독 청소년의 서독으로의 유입방지, 신설 5개주의 교육제도 개편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다.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 경제 제도의 개편 지원, 동독 청소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서독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초훈련과 심화훈련의 현대화 강화, 교육행정 당국의 개편과 연구 및 학자금에서의 자유 보장과 경제교

육개편 지원, 교육과 연구기관의 즉각적 협력 증진 등이었다.(신세호, 1993 : 274).

통일조약 37조에서는 교원의 신규보충을 위한 교원시험에는 주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였고, 주문교장관회의가 이에 상응하는 과도규정을 제정토록 하였다. 동독지역의 학제변경에 관한 규정들은 지역내의 각 주들이 결정하게 하였으며, 학위인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주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토록 하였고 위의 두 경우는 함부르크 협정과 문교장관회의의 추가 합의사항에 기초하도록 했다. 동독의 기술학교와 전문학교의 졸업장을 바탕으로 확인된 대학진학 자격은 1990년 5월 문교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하게 했다. 또한 학교 및 대학 졸업 후의 상급직업교육을 위한 전문학교와 대학졸업 인정과 관계된 기타 원칙과 절차는 주문교장관회의에서 마련토록 했다.

통일조약 13조에 의하면, 주 정부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기존의 동독학술 연구기관의 존폐에 관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기관의 개편은 연구성과가 있는 기관은 보존한다는 방침아래 학술심의회에 감정서에 기초하여 조치하게 했다(독일정부, 1990 : 163,182).

4) 개혁 내용

(1) 일반교육과 직업훈련

1989년 가을 동독이 몰락하여 “정치적 과목”의 내용이 바뀌어, 의무적인 군사교육과 공민교육이 철폐되고 새로운 “사회교육”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공산당의 이념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바꾼 것이다.

구동독의 붕괴는 외래어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노어가 의무과목이었으나 이제는 노어, 영어, 불어를 5학년부터 선택의무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영어를 제일 외국어로서 선택하는 학생(5학년)이 80% 정도이기 때문에(1990-1991년 학기) 영어교사가 부족하게 되었다. 노어 교사들은 노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전공을 바꾸었는데 대개 속성 영어 코스를 택하고 영어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념적 색채가 없는 수학같은 과목들은 옛날 교과서를 당분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이념성이 강한 독어, 역사, 사회 과목은 새 교재를 도입했다. 영어교재도 서독에서 도입하였다. 교재 출판을 위해서 서독연방정부는 통일 이전에도 독어, 역사, 지리, 영어 교재출판을 위해 3천 300만 마르크를 지원하였고, 통일 후 즉시 5천 5백만마르크를 지원하였다(주독 대사관, 1992 : 82).

1990년 7월초의 “경제, 통화, 사회통합 조약”과 구동독 국회는 1990년 9월 1일에 시작하는 학기부터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학교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직업학교와 실습공장에서 받는 학습과 훈련의 양쪽을 강조하는 직업훈련의 이중체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서 지방자치구가 직업학교를 관할하고 공장에서의 훈련은 공장의 고용주가 책임지고, 그 고용주는 다시 상공위원회, 주공예위원회, 일반의료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의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동독직업학교의 75%를 차지하는 기업형 직업학교 700개는 공통적인 직업학교로 바뀌었다. 통일독일의 직업교육 기본 방향은 동독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기초로 삼는 시장경제를 개발하는 것과 실업과 파트타임 근로를 극복하는 것이므로, 직업훈련센터의 기초훈련과 계속훈련 과정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은 1991년 훈련비용 보조금을 받았다. 기업의 추가자격 획득훈련, 재훈련, 기술향상훈련 등은 동독지역 경제회복에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되어, 1991년에 연방 고용공단은 70억 마르크를 사용하였다(신세호, 1993 : 260-261 ; 김태완 외, 1991 : 28).

(2) 대학 교육

서독의 대학교육 행정권은 주정부에 있으며 통일 후 이 원칙은 구동독 5개주와 동베를린시에 적용되었다. 통일 후 동독대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율성이었다. 서독을 모델로 삼아 “대학 총장회의”가 설립되었고, 박사학위과정도 서독처럼 재조직하였다. 학생의 과목선택과 수학계획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공, 부전공도 탄력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신세호, 1993 : 265).

대학을 개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인사의 혁신이다. 동독대학은 정치적 이념에 물들지 않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교수와 강사를 확보하는 길만이 서독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적 인사를 민주주의적 인사로 바꾸기 위해서 각 대학과 학과에 교수요원의 자격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률과 경제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서독에서 영입해야 부족한 교수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김태완 외, 1991 : 30).

통일 후 대학은 구동독지역의 53개와 구서독지역의 248개를 합하고, 전문대학은 구동독의 53개와 구서독의 11개를 합쳐서 통일 독일은 301개의 대학과 64개의 전문대학을 갖게 되었으며, 대학생은 구동독지역의 13만명과 구서독지역의 158만명이 합쳐서 약 170만명이 되었다(신세호, 1993 : 293).

구동독 지역의 대학과 연구체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독일통일 후 연방과 여

러 주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혁에 대해 합의를 보았는데, 개혁안의 목표는 대학의 인사를 전문화시키고, 구동독 아카데미의 학자와 연구단체를 대학과 연방과 각 주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 기구로 결속시키고, 대학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하부구조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대학의 연구인력 지원계획에는 인사 개혁, 계속 근무 중용, 후진 양성, 추가연구, 학자교류 등을 포함하였다. 하부구조 확충계획에는 소규모 건설 대책, 소규모 기자재, 내빈용 숙소, 대학생 기숙사, 대학도서관과 중앙 컴퓨터 시스템의 연결 등을 포함하였다.

동독대학에서는 교수제도의 개혁과 신진학자 육성을 위해서 ‘개설교수’, ‘개설총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에게는 기본급료 외에 충분한 지원이 있으며,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이 교수들은 해당 대학의 소관 장관이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최장 고용기간은 5년이다. 독일연방과 동독지역 주들은 90년대에는 동독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은퇴할 것에 대비하여 젊은 학자들의 교수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post-doc 과정을 진흥시키며, 석 박사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신세호, 1993 : 297-299).

통일조약 제13조는 동독지역에서 문화, 교육, 학술기관의 관할권을 주정부에 주었고, 제38조는 학술심의회는 감정서를 근거로 학문과 연구에 관련된 단체를 폐지하거나 보존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구동독의 과학아카데미는 다른 연구단체와 구별하여 학회로 취급한다고 말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폐지된 연구기관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 마스-레닌주의와 관련된 연구소들이다(독일정부, 1990 : 163, 183).

III. 청소년 폭력

독일 통일은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증가한 일이다. 우선, 폭력의 생성과정과 형태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디서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통일의 상징이요 통합된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시의 청소년 폭력의 현황 조사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동독의 중심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청소년폭력과 베를린시의 폭력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는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일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일어난 외국인 상대 폭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폭력의 현황

청소년 폭력은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하지만 특히 대도시와 동독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 조직된 청소년집단의 숫자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황은 계속 변해서 중요 청소년 범죄집단에서 하부 조직이나 분리된 조직들이 생겨났다. 이런 집단들의 성격과 조직은 다양한데, 주로 노인들, 동성연애자들, 다른 청소년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며, 가끔 정치적 이유로 적이 되는 집단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독특한 성격때문에, 폭력은 학습되고,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폭력 형태에서도 청소년이란 나이상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1) 폭력의 생성과 형태

대중매체, 가정, 학교의 영향으로 폭력행위가 학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청소년 폭력행위의 동기와 원인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해 보았다.

(1) 폭력 범죄의 생성과정

폭력은 갈등해소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개인적 불만과 불평의 표현형식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이런 폭력은 학습되는데 가정과 학교, 대중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한 폭력을 행사할 때는 알코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Schwind 외, 1993 : 435).

① 학습과정

가. 성과 익히기 : 행위자가 폭력으로 목적을 이룰 때 공격적인 태도와 방식은 강화되고 세련된다. 한번의 성과는 행위자에게 기대를 일으켜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다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는 다음 번 공격적인 행동의 동기가 된다. 범죄행위에는 간헐적인 강화의 원칙이 작용한다. 때로는 성과 때로는 실패에 이르더라도 범죄행위는 쉽게 중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후에는 범죄자들은 범죄기술을 더욱 엄격하게 배우게 된다.

나. 기본형 배우기 : TV의 폭력장면은 특히 젊은이들이 폭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공격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공격적 모델을 많이 가지게 된다.

다. 중립화 메카니즘 : 폭력을 배우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중립화시키는 메카니즘도 배우게 된다. 중립화는 폭력금기의 극복을 돕는데, 공격이나 투쟁의 희생자들을 비인간적인 상으로 만든다. 적을 미개인, 둔재, 극단적 무정부주의자, 또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을 행하도록 만든다. 행위자의 비인격화 현상은 이러한 메카니즘과 동류이다. 대규모의 군중에서나 확실한 명령계급의 조직에서는 개인성이 사라지거나 개인성을 똑같은 제복뒤에 숨기고 폭력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버리거나 은폐하는 것이 허락된다.

② 폭력학습의 장소

폭력은 주로 가정과 또래 집단에서 배운다. 또래집단이 모이기 쉬우면서 가장 의미있는 사회적 제도는 학교이다. 가정과 학교는 폭력생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가. 가정의 역할 : 가정에서는 부모사이의 싸움이 표본이 되어 아이들의 폭력잠재성을 키운다. 가정에서 효과있는 갈등해소 수단으로서 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나중에 폭력을 쉽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유년시절의 폭력체험과 청소년범죄, 그리고 성인의 폭력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 학교의 역할 : 가정에서 연습된 강압적인 태도와 생활방식은 학교로 이어진다. 심지어 학교가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한다는 말도 듣는다. 학교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아이들의 실패와 갈등의 근원이 된다. 공격적인 어린이는 보통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서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로 더 많은 주의를 끈다.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린이는 동료학생의 효과적인 공격적 모형을 보고 따라하려는 충동을 가지게 된다.

③ 대중매체의 영향

폭력 범죄가 생기는 과정에서 대중매체, 특히 ‘의식산업의 주요기구’로서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매체는 과거에는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이 하던 역할, 즉 공동체의 가치설정과 태도방식에 대해 영향을 끼친다. 잠자거나 일할 때 외에 시민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매체에 할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이 특히 크다고 여겨진다. 적개심을 품게 하는 화면제작, 사회적 분열의 조장, 부정적 세계상 구성, 직접적인 폭력화면의 효과(모방효과, 습관효과, 강화효과), 범죄공포에 관한 제작 등.

④ 알코올의 영향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3대 폭력범죄 즉 살인, 성폭행, 신체상해는 주로 알코올의 영향하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파트너 학대와 어린이 학대의 60%에서 93%까지가 알코올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폭력의 형태

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개인과 집단에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또는 “일방적인 복종과 지배관계에서 힘을 행사하는 궁극적 수단”으로 이해된다(Kühn, 1993; 238).

우선, 폭력이란 파괴적인 행위인데 청소년들의 집단적 폭력은 인생경험이 미흡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청소년 상호간에 긴장이 생기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이가 불안정할 때 폭력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희생자를 분명히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폭력행위자인 동시에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폭력은 힘의 관계인데 폭력의 행위양태와 가치정립에는 물질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이거나, 상징적인 힘의 관계가 작용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중립화하는 기술을 가지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상징적 물질적 가치절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청소년들이 행한 “파괴와 힘”을 본질로 삼는 폭력행위는 종류에 따라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Kühn, 1993 : 240).

첫째,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는 폭력이 있다. 이런 폭력은 주로 소수민족 특히 수용소

에 수감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의 형태를 보면 스킨헤드족(Skinhead)과 반사회적인 단체사이의 대결이나, 외국인 소유의 가정에 대한 공격, 국가적 기념장 소나 지역경찰서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행위는 가끔 조직적인 집단이 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조직구조가 취약한 집단이 행하며,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발생한다.

1991년도 헌법보호소의 보고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극단적 우익에 속하는 폭력행위자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로 증가해서 270건에서 1,300건이 되었다. 이들이 일으킨 폭력사건의 약 30%가 동독지역에서 발생했고, 행위자의 70%가 16세에서 20세 사이의 나이이며, 약 48%가 동독지역 출신이다.

둘째, 청소년 특유의 저항의식에 근거를 둔 폭력이 있다. 국가권력의 대표자를 공격하든가, 좌익과 우익집단 사이의 대결, 외국인 청소년과 독일청소년 사이의 싸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독일학생 조직이나 외국인 청소년 조직들이 관여하며, 청소년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공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지역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가서 폭력행위를 하기도 한다. 외국인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터키청소년들은 독일청소년들중에서 특히 스킨헤드족에 대항해서 자기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터키청소년 집단과 독일청소년 집단 사이에 복수적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셋째, 축구경기같은 스포츠행사장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있다. 주로 홀리간(Hooligan)이나 스킨헤드(Skinhead)집단이 끼인 스포츠판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조직이 형성한 단체와 잘 조직된 단체 등 가리지 않고 관여한다.

1989년 이전에도 경찰과 보호소에 이런 종류의 폭력행위가 보고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히, 축구경기는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해결이나 사회적 저항을 표현하기 위한 공적인 공간을 제공하였다. 축구장 폭력에는 홀리간, 스킨헤드, 펑크집단의 팬들이 많이 관여하였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축구장 폭력의 스펙트럼이 분화되어, 다른 운동의 관중석으로, 난민수용소로 퍼져 나갔다.

넷째, 청소년 생활양식에 고유한 폭력행위가 있는데, 주로 강도와 절도 행위라든가 달리는 차에서 장난치는 것같은 위험을 무릎쓴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행위는 주로 지역사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상대에게 자극받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감정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물질적이거나 상징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점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주택과 대중교통수단 등을 점유한다. 여기에 수

반하여 상점물건을 훔치거나 노인들의 가방에서 돈을 뺏는 일도 일어난다.

다섯째, 여가집단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있는데, 주로 학생집단들이 관여한다. 영성하게 조직된 집단들이 좁은 여가활동 공간에서 일으키는 폭력행위가 된다. 여기에서도 간식거리를 훔치는 가벼운 절도행위나 공갈협박으로 지갑을 뺏는 것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청소년집단폭력을 그 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겠다(Kühn, 1993; 273).

첫째, 주목을 끄는 선전선동적인 폭력행위들 :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치가들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에 주목하게 된다. (예 : 망명문제)

둘째, 지루함을 타파하고, 좌절에서 탈출하는 폭력행위들 :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만족감과 승리감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셋째, 공격적 본능을 해소하는 폭력행위 : 청소년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의 내부는 잠재적으로 불만족스러움과 고독함이 쌓여 있어 언제고 동기나 가능성이 주어지기만 하면 터질 것같은 상태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갈등해소의 전략인 폭력행위 : 청소년들은 성년이 되는 과정속에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 과제로는 확고한 가치의 형성과 성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공적 생활인 직업과 교우관계 속에서 주체적 위치의 정립, 그리고 가족과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 입지를 확립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가진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생태적 여건들과 상이한 정체성의 환경에 따라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해소책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고민속에서 위에 언급된 모임들을 통해 습득한 물리적인 폭력이 빈번히 적합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2) 베를린시의 폭력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집단행동이 베를린시의 몇개의 구역에 집중되는데, 노일켈른, 빌미스도르프, 크로이즈부르크, 스파도, 베딩, 칼로텐부르크, 리이니켄도르프 등이 해당 지역이다. 청소년 집단폭력은 “나이가 8살에서 25살까지 된 청소년 두사람 이상이 저지른 난폭하고 파괴적인 행위”로 이해된다(Diepgen, Krüger, 1992).

1985년 이후 서베를린시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범죄의 대부분은 스킨헤드족이 저질렀고, 그밖에도 여러 청소년 범죄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

도, 자동차과괴, 패싸움 등을 일으킨다. 1988년에는 76건의 절도가 발생했고, 1989년 5월 1일의 폭동은 청소년 집단폭력의 정점이었다. 이해에는 베를린시 전역에서 청소년 집단범죄가 발생했는데, 주로 같은 나이 또래들을 대상으로 자켓이나 워맨을 뺏거나, 전철이나 버스 패스를 강탈하였다. 최근에는 공격대상의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무기와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1990년 3월에서 1991년 3월까지 서베를린시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통계는 다음표와 같다.

〈표 Ⅲ-1〉 범죄발생 건 수(1990. 3~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강도	127	91	105	60	59	37	108	587
신체적 상해	61	56	85	59	45	41	61	408
협박	18	8	18	19	6	4	6	79
재산피해	14	14	7	15	8	3	6	67
기타	42	26	26	9	7	6	11	127
합계	262	195	241	162	125	91	192	1,268

〈표 Ⅲ-2〉 범죄발생 건 수와 범죄자 수(1990.10~199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강 도	179	183	158	203	172	200	1,095
신 체적 상해	146	132	107	118	115	139	757
협박	36	11	15	13	12	16	103
재산피해	22	21	27	37	28	66	201
기타	32	40	32	33	30	48	215
사건 합계	415	387	339	404	357	469	2,371
독일인	84	113	72	112	174	207	762
터키인	72	87	41	56	74	102	432
유고인	9	7	6	7	12	3	44
레바논인	9	9	3	1	5	3	30
기타	4	5	25	10	12	11	67
범죄자 합계	178	221	147	186	277	326	1,335

자료 : Diepgen, Krüger, 1992 : 2-3.

이 표에서 7월과 8월에 범죄발생이 줄어든 것은 그 기간이 여름방학(7월 12일~8월 25일)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절도는 3,156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집단폭력에 해당되는 것은 587건 18.6%였다. 이 기간에 발생한 1,268건의 범죄사건에 참여한 990명의 청소년들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인 304명(30.7%), 터키인 538명(54.4%), 유고슬라비아인 68명(6.9%), 레바논인 42명(4.2%), 기타 38명(3.8%)이다.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7개월과 그뒤 1991년 3월까지의 6개월을 비교하면, 총 범죄발생은 1,268건에서 2,371건으로 87%가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강도와 신체상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없이 각각 46%와 32%였다. 그러나 범죄행위자의 구성비율은 상당히 변해서, 독일인은 30.7%에서 57.1%로 늘었고, 반대로 터키인은 54.4%에서 32.4%로 대폭 줄었다. 그밖에 유고인과 레바논인의 비율은 각각 6.9%에서 3.3%로, 4.2%에서 2.2%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1990년 1년동안 동서베를린시에서 발생한 범죄 35만 사건에서, 약 3,000여 사건이 청소년집단 폭력에 해당한다. 경찰통계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큰거리, 골목길, 광장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이 15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증가의 대부분이 청소년 범죄라고 한다. 이런 변화는 독일청소년들 사이에 극우적 민족주의가 퍼져서 외국청소년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사실과 연관되는 것 같다.

청소년집단들은 폭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젊은 남자 아이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힘의 과시가 레슬링이나 단순한 싸움의 정도를 지나서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든가 강도질을 하든가, 협박하거나, 흥기를 소지하게 되면 비행이 된다.

요즘 청소년 집단구성원의 나이는 전보다 상당히 어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흥기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집단이나 패거리에서 자부심을 얻고, 이런 집단구성원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체로 이런 집단들은 조직은 영성하지만, 그들의 상호관계를 확인하는 독특한 의식을 가진다. 지도력과 서열관계가 엄격히 규정되고, 운동실력이나 음악과 미술실력도 세련된다. 집단구성원의 단결력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모험활동으로 다져지는게 아니고 체육대회나 파티같은 건설적인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다져진다. 청소년집단들은 가족이 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가끔 한다.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가정, 교육, 사회환경에서 심한 차별을 받거나

수준이 낮은 계층 출신이 많다. 이들은 정부나 경찰에 대해 신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반항이나 자기방어적인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서베른린의 청소년집단들은 성격과 조직이 다양해서 어떤 획일적인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미국에 비교할 때 어떤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내 전지역으로 흩어져 있으며, 행위가 그렇게 심하게 난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약취급이나 매춘 행위가 이런 집단들의 수입원이 되고 범죄조직이 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집단들도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2. 폭력의 원인 분석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시의 폭력현상을 살펴보고, 외국인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했다. 다음에 극우주의 태도와 폭력집단에 대한 친밀감을 알아보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는 폭력을 분석했다.

1) 일반 원인

(1) 브란덴부르크주의 폭력분석

포츠담대학 가정과아동연구원(IFK)은 1991년 10-11월에 브란덴부르크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다(Kühn, 1993).

여기서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은 “실존 사회주의”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들은 사회주의 말기에 위기상황과 몰락을 직접 체험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심각하게 맞서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제약때문에 동독 청소년들은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위방식을 형성하였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이후 그들은 일반적인 청년의 삶과 미래의 직업계획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행위규범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회의 기대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그래서 미처 대처할 준비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극복해야만 할 문제들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때문에 생긴 스किन헤드, 무뢰배들, 펑크 등의 청소년 하위문화의 강력한 영향하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표 III-3〉 현재의 생활과 정치적 기본방향에 대한 평가

1. 독일에서 새로운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는 모든 국민들 사이에 자유가 필요하다.
3. 서독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장소와 때에 상관없이 동독인을 욕한다.
4. 나는 어떤 장애도 없는 융화된 독일을 원한다.
5. 나는 통일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인 유럽에 찬성한다.
6. 민주주의는 최상의 국가체제이다.
7. 사회시장경제는 모두의 복지를 추구한다.

(백분율)

위에 언급한 내용	동 의	의견없음	부 정
1.	85.4	11.0	3.5
2.	78.3	16.5	5.2
3.	58.5	27.3	14.3
4.	50.6	35.1	14.3
5.	54.7	25.9	19.4
6.	32.2	57.7	10.3
7.	20.6	38.2	41.2

자료 : Kühn, 1993 : 217.

질문 1에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선정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85.4%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단지 3.5%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11.0%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폭력이 증가되는 사회현상을 의식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른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줄이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책협오감이 더욱 심하게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극단적인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도록 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질문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78.3%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질문 3의 결과는 서독인들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58.5%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단지 14.3%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질문 3이 사실이라는 것에 62.6%가 찬동하고 있다. 하급생의 경우는 59.3%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경제침체속에서 더욱 깊어져간 동·

서독간의 대립의 골을 청소년들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 7 “사회 시장경제는 모두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단지 20.6%만이 그렇다고 했으며, 41.2%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독지역의 경제와 관련하여 비판주의가 그들 사이에 퍼져 있음을 반영한다.

이 조사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에 속하는 것들, 즉 가족의 실업문제, 적절한 직업 교육장을 찾을 수 없다는 고민, 여가를 의미있게 보낼 가능성의 결핍, 많은 수의 청소년모임이 독일의 통일뒤에 문을 닫은 것 등은 청소년들에게 당혹스러움과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극우적 청소년들이 조직화하는 경향은 청소년들이 삶의 현실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예를들면, 외국인들은 실업난에 책임져야 한다거나 대부분의 범죄자는 외국인이라는 식으로.

동독 사회주의의 몰락때문에 기존 가치체계들은 붕괴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80년대 동독의 현실과 정치이데올로기의 불일치를 청소년들이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정당이나 조직들이 대중매체나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선전하는 가치들의 현실성 결여와 기존 가치체계의 붕괴는, 청소년들이 조직하는 모임들이나 그들의 하부문화에 대해 강한 유혹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모임들의 영향력 증가는 동독의 국가와 사회체제를 반대한 대중운동 경험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다. 이런 배경속에서 청소년 모임들은 쉽사리 극우적 경향으로 기울게 되고,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베를린시의 폭력분석

청소년 집단폭력의 여러원인은 개인, 가정, 사회적 요소들의 연관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큰 도시 생활의 익명성이다. 도시는 시골보다 개인이 소외되기 쉽고 사회적 통제가 더 어렵다. 도시생활의 개인적 소외감때문에 청소년들은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소속감, 동료의식, 안전감, 인정받는다는 느낌 등을 경험한다. 한 나라의 인구중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실업, 주택부족, 밝지 못한 인생전망 등의 문제를 남보다 더 많이 느끼는 데도 그들에게 정부가 큰 도움을 못 준다. 사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요소들이 청소년폭력의 전개에 영향을 준다.

독일청소년들은 폭력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통 빈부격차, 사회적 통합의 결핍, 개인화 등의 모순을 지적한다. 이렇게 모순에 찬 상황에서는 부의 축적, 모험, 권력, 인정

받는 것 등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행동에는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이 전통적인 기능을 잃었다. 동독에서 가정은 이제 보호, 안전, 행복을 제공하는 쉽지가 못하다. 실업과 주택부족으로 생긴 생활조건의 악화는 많은 가정에 스트레스를 더해 주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들은 점점 영향을 잃었다. 전체 인구에 관한 문제들이 개인적 실패의 문제로 인식된다. 직장에서의 계층간의 문제, 개인적 발전가능성의 부족, 생활향상에 대한 실망은 사람을 좌절시켜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통일은 동독과 서독사람들사이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Diepgen, Krüger, 1992 : 5).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초래한 것은 대중매체다. 청소년들이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많이 보기때문에 현실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폭력을 수용하게 된다. 대중매체의 세계에 비하면, 현실은 모험이 부족해서 재미없게 느껴진다. 그래서 대중매체 영웅들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대중매체에 관한 연구들은 이런 영향에 대해 많은 예를 보여준다.

만약 이웃, 가정, 학교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많은 경우에 경찰이 개입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웃이나 학교를 통한 부모들끼리의 접촉이 별로 없고, 독일 어머니들과 외국인 어머니들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개인들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회학자들은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통제가 약해져서 생긴다고 말한다. 사회적 통제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영향이 적어져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는 것 같다. 독일로 이민온 부모들은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또 교육정보도 부족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곤란에 처하게 된다.

베를린시 경찰은 청소년비행자들의 동기를 조사했다(Diepgen, Krüger, 1992 : 6). 독일과 이민 청소년들은 소위 “나치”를 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나치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단순히 짧은머리, 흰색 또는 노랑색 구두끈(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상징), 뺨뺨머리를 적의 표시로 이해한다. 이들 외에도, 동성연애자, 적대집단의 구성원들, 전연 무관한 청소년, 행인들이 청소년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더구나 재산피해 범죄중에서도 가게도둑질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런 행위들의 주된 동기는 그들이 돈 주고 살수 없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고, 그 다음으로는 소위 “용기의

시험”과 집단속에서 느끼는 자존심이었다. 청소년비행자를 조사해서 발견한 동기를 종합하면, 모험심, 싸움질하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싶어서, 집단에 끼이기 위한 용기의 시험, 도둑질하기 좋은 상황의 이용, 집단행동, 자기가 만든 적에 대한 복수였다.

조사받은 청소년비행자들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동기가 상당히 잘 나타난다.

우리 집단은 약 50명 되는데 자이언트, 36소년단, TNT, T5B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스킨헤드가 우리파 아이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모였다. 우리는 브리트사이드 광장에서 머리를 위로 빗어올려서 빌리(Billys)같이 보이는 두놈을 봤다. 우리는 사람들을 때려주려고 시내중심가로 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시비걸고 때려주었다. 두놈 다 흰색 구두끈을 매고 있었는데, 우리는 흰색 구두끈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상징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때렸다. 한놈은 얼굴에서 피가 났는데 아마 코가 부러졌을 것이다.

스킨헤드 세명이 우리쪽으로 걸어왔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파란색 축구모자를 뺏었다. 물론 그 친구는 모자를 달라고 즐랐고, 나는 그 친구 얼굴을 때렸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리친구들이 달려들어 스킨헤드 세명을 때려주었다.

왜 남의 자켓을 뺏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건 집단간의 싸움이 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그것을 입고 싶었기 때문에 뺏는다.

내 친구가 구두 한 켤레를 훔치려 할 때 나는 망을 보고 있었다. 그가 구두를 훔쳐야 우리 집단에 들어올 수 있었다.

아이들이 남의 자켓을 뺏는 것은 재미로 그런다고 생각한다. 또 자켓은 다른 물건과 바꾸거나 판다. 나는 다른 동기를 모르겠다. 가끔 외국인 아이들이 모여서 독일 나치들을 잡아서 그들의 자켓을 뺏는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칼을 무기로 사용한다.

질문 : 독일 나치는 어떻게 구별하나?

대답 :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두끈의 색깔로 알아볼 수 있다.

질문 : 나치란 무슨 의미인가?

대답 : 나치란 보통사람들인데 그들의 차별새때문에 눈에 뜨이고, 그들은 외국인을 미워한다.

질문 : 사람들을 때리기 위해 아이들이 집단을 만드는 데 나치만 때리는가, 아니면 그들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는가?

대답 : 나치하고만 싸우는게 아니라, 집단끼리도 싸운다.

(3) 외국인 청소년들의 상황

비 독일인 청소년 폭력집단의 행위는 대중매체에서 외국인의 문제로 취급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화된 관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독일인과 외국인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사회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들이 독일사회에서 조화롭게 사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청소년 집단비행자의 약 3분의 1이 독일청소년이란 사실만 봐도 청소년폭력의 문제가 외국인에게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Diepgen, Krüger, 1992 : 7).

비 독일인 청소년들의 집단활동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상황때문인 것 같다. 폭력행위를 자주하는 청소년집단들은 구성원을 주로 하위계층청소년 중에서 뽑는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 말고는, 사회적 불이익에서 생긴 동기가 집단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 구성원이 되는 것과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취업전망이 나쁜 것, 사회적 참여와 인정받을 기회가 적다는 현실을 보상해 준다.

외국인의 상당수가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해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노동이민 과정에서, 임금이 싸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그 덕분에 독일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었다. 그래서 독일사회의 계층이 민족차이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이민 온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민족차이문제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민에 관련된 요소들이 청소년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악화시켰다. 중요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독일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가정생활이 독일식 교육제도와 잘 맞지 않아서 자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주거제한과 취업제한은 실제적 불편에 더하여 심리적 불안을 주고, 취업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외국인에 대한 무지와 증오심같은 차별대우 등이 있다.

이런 불리한 요소들 외에도 비 독일인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은 문화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 이들은 두개의 다른 문화속에서 자란다. 그들의 가정과 민족적 배경은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에서 독일의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들의 독일적 상식과 상당히 다르다. 소수민족집단에서는 세대차이, 가족해체, 성장과정의 불연속, 정체성의 문제들이 독일의 일반가정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불리한 여건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민족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 다수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 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서 인식하고 아예 피해자 역할을 스스로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단체를 형성하는 일이 이해가 된다. 적으로 둘러싸인 사회환경에서 집단들은 보호와 안전판을 제공하고 공인된 사회적 통로를 통해서 얻어 수 없는 인정과 동의를 제공한다. 더구나 집단들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가득찬 분노와 폭력의 욕구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

비 독일인 젊은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사회적 요소들이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할까 봐 오래전부터 걱정해 왔다. 사회과학자, 사회복지사, 외국인 정책담당자들은 이런 일반적 경향을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깜짝 놀란다. 그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경고하면서, 학교생활, 직업훈련, 취업 정책에서 비 독일인 청소년들을 도와줄 것을 오래전부터 제언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의 일부만 실행되었다.

집단폭력문제가 아직은 주로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점차 사회적으로 불리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질 가능성도 보인다. 민족적 구분과 계급적 구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이 더 분명해지고, 차별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증가하고, 더 심해진 차별대우에서 분명히 들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사회적 발전과 평등화운동을 위협하여 마침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폭발할 지도 모른다.

인구과밀한 도시에서의 민족적갈등이 어떤식으로 나타날 지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려면 이민 온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치적인 결심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런 상황은 동서독 국경이 없어지면서 더 악화되었다. 노동 이민자들은 일자리와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에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정부의 일반정책과 여론의 우선 순위에서 옛 동독사람들 때문에 소수민족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옛 동독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서베를린지역에 널리 퍼졌다.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기분이 비 독일인 청소년들의 자화상에 영향을 주고, 또 1989년 이후 집단폭력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피난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했다. 베를린시에 18살 미만의 피난민이 약 1,000명, 그리고 25살 미만의 청소년이 약 5,000명 있다. 이들에게 의무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임금노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가족과 헤어져서 난민수용소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정은 매우 곤란하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청소년 복지회관 같은 곳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1991년 2월 1일에 의무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난민청소년들은 대부분 망명자로는 허락이 안되고 거주자로만 허락이 되었다. 이들은 일할 기회가 제약되었고, 노동시장에는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들의 교육적 배경과 법적 신분상 제약 때문에, 망명이 허락된 소수만 빼고 대부분 난민청소년들은 독일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 그래서 이들이 집단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민족적 배경을 가진 폭력은 외국인들의 사회경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불리한 여건때문에 발생했다. 외국인에 대한 독일인의 편견, 단순화된 적에 대한 상,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도 폭력증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극우주의 태도와 폭력단체에 대한 친밀감

1991년 10월과 11월 중에 포츠담대학의 가정과아동연구원은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다(Kühn, 1993 : 267-276). 이 조사는 14세부터 18세인 브란덴부르크주의 42개 학교와 상급센터(취업을 준비하는 졸업반)의 학생들 8, 9, 10학년, 그리고 취업준비생들 1,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적 폭력사건보다는 청소년의 극우적 태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폭력단체와의 친밀감 등 청소년 폭력이 발생할 잠재성을 조사했다.

(1) 극우적인 의식

극우주의는 불평등 이데올로기, 폭력을 수긍하고 민주주의적 규정들을 거부하는 태도, 국수주의적인 자기도취, 타민족과 소수집단에 대한 편하와 차별 등을 통해 규정된다.

〈표 Ⅲ-4〉 극우적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

1. 1937년 당시의 국경을 지닌 통일된 독일에 찬성한다.
2. 외국인을 때려서라도 내쫓아야 한다.
3. 독일 모두의 복지를 위해 강한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4.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외국인들이다.
5. 외국인은 오늘날의 실업문제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 독일은 독일인을 위한 것, 외국인은 나가라.
7. 독일에서 네오 나치의 발흥이 나를 근심 시킨다.

(백분율)

연급 순위에 따라	동 의	의견없음	부 정
1	17.5	39.9	42.7
2	28.9	25.6	45.4
3	27.1	30.7	42.2
4	33.4	24.4	42.2
5	38.4	26.0	35.6
6	41.5	25.8	32.6
7	63.6	16.2	20.2

자료 : Kühn, 1993 : 268.

“1937년 당시의 국경을 지닌 독일을 원한다”(질문 1)는 보복적인 요구는 17.5%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났다.

〈표 Ⅲ-5〉 “1937년 당시의 국경을 지닌 독일에 찬성한다”

(백분율)

학교유형, 연령, 성별	동 의	의견없음	부 정
김나지움	14.8	31.9	53.4
종합학교	17.4	45.2	37.3
상급센터	20.1	33.3	46.5
8 학년	13.3	48.4	38.3
9 학년	17.4	41.7	40.9
10 학년	20.0	35.6	44.4
직업훈련생	20.1	33.3	46.5
여학생	9.6	49.8	40.6
남학생	25.1	30.4	44.5

자료 : IFK, 1992 (Kühn, 1993 : 269).

극우적인 경향은 학교의 형태와 연령, 그리고 성별에서 중요한 차이가 난다. 위의 표에서 <질문 1>에 대해 김나지움은 찬동의 비율이 낮은 반면, 상급센터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8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실제적 사회문제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더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 같다. 남자 아이들이 보이는 극우적 성향의 비율은 여자아이들이 보이는 것의 배 이상이다.

<질문 1>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 문제가 언급된 질문들이다. <질문 2>에서 28.9%가 “외국인에 대한 폭력”에 찬동하고 있으므로, 부란덴부르크에는 현재 외국인이 많지 않지만,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문 4>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외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을 청소년의 33.4%가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행스러운 것은 42.2%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 거부하고 있다. <질문 5>에서 38.4%의 청소년들이 “실업의 책임을 외국인들에게” 지우고 있다. 여러 질문중에서 “독일은 독일인의 것 외국인은 물려 가라”는 <질문 6>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아 41.5%나 된다. 이 비율은 그것을 반대한 비율보다 8.9%나 높다. “네오 나치의 수적 증가” <질문 7>는 63.6%의 청소년들에게 근심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반면에 20.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 비율을 동서독 극우정당의 최근 득표율과 비교해 보자. 1992년 서 베를린시의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청소년 18.8%가 공화주의자들에게 표를 던졌고, 브레멘시에서는 17.6%가 독일국민연합과 공화주의자들에게 투표했다. 여기서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청소년 중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약 15%에서 20%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폭력단체에 대한 친밀감

청소년 모임의 형성은 오랜 전통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공통적 관심사를 추구할 수도 있고,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울 수도 있으며, 자신만의 친구를 만나거나 접할 수 있다. 이런 모임들은 특별한 가치관의 정립과 연관되는 자신들의 고유한 하위문화를 가질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가활동과 싫어하는 학습활동 사이의 대립은 근대산업 사회에서 하위문화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매력있게 만들었다. 이 매력은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극복해야 할 때에 더 커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이상한 옷과 머리형

태를 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하던 동독의 말기가 그러한 경우라 하겠다. 그때 동독에서는 극단적인 집단의 폭력행위가 심하게 되었다. 그런 모임의 청소년들은 폭력을 일상 생활속으로 수용하였으며, 그런 모임들의 대표로 좌우익 스킨헤드(Skinheads)와 무뢰배(Hooligans)를 들수 있다.

동독지역의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의 눈에 비친 그들 모임의 매력은 증가되고 있다. 브란덴브루크의 청소년들과 이러한 모임들과의 관계는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II-6〉 청소년폭력 단체에 대한 동조자와 거부자

	동조자의 순위	백분율	거부자의 순위	백분율
래퍼	1.	47.8	12.	17.7
헤비메탈	2.	28.8	5.	24.0
스프레이어	3.	25.1	7.	22.7
스케이터	4.	21.0	14.	15.4
우파 스킨헤드	5.	19.4	3.	52.7
피씨	6.	17.4	6.	23.6
홀리건	7.	15.7	2.	53.0
핑키	8.	15.2	4.	41.3
좌파 스킨헤드	9.	12.3	1.	55.1
롤러	10.	9.9	13.	16.8
퐁키스	11.	5.6	8.	20.6
뉴 로맨틱	12.	5.6	11.	18.5
뉴 에이프	13.	3.2	10.	18.6
테드	14.	3.2	9.	20.0

자료 : Kühn, 1993 : 273.

청소년들에 의해 직접 이름이 붙여진 이들 모임중에는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모임으로 사람들 근심을 자아내는 스킨헤드(좌파, 우파)와 무뢰배가 포함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상이한 모임들에 참여 활동하는 인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모임에 참여활동하는 이들의 연령이 여기서 조사한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념화된 모임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임에 동조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이러한 모임들이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단체부터 순서대로 열거하면 좌파 스킨헤드

(Skin Heads 좌파 : 55.1%), 홀리간(Hooligans : 53.0%), 우파 스킨헤드(52.7%), 헤비메탈(Heavy Metal : 24.0%), 피씨(Peacer : 23.6%)이다. 반면에 이들 단체에 대한 친밀감의 순서는 헤비메탈 28.8%, 우파 스킨헤드 19.4%, 피씨 17.4%, 홀리간 15.7%, 좌파 스킨헤드 12.3% 였다.

이 비율을 1988년의 조사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스킨헤드를 거부하는 청소년이 64%나 되고 동조자가 4%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거부자는 약 11%가 줄었고 동조자는 10% 이상 늘었다. 이런 결과는 매우 근심스러운 것이다. 단 정규학교 학생보다 직업훈련생이 스킨헤드나 홀리간 같은 집단에 더 매력을 느끼고, 상급생들이 하급생보다 더 친밀감을 느낀다(Kühn, 1993).

3)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이 연구는 1992년 동독지역인 작센 주에 사는 14~25세 사이의 청소년을 기초로 하고있다. 8~10학년 학생과, 11~12학년의 김나지움 학생, 그리고 실습생들 3,800명이 포함되었다(Friedrich, 1993).

(1) 감정적 기본 태도

〈표 III-7〉 외국인에 대한 감정적 기본 태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중 간	약간찬성	매우 찬성
전 체	9	30	40	17	4
14~18세	10	32	40	13	5
19~25세	8	29	39	20	4
남성	12	34	38	12	4
여성	7	27	42	19	5
학생	3	21	31	38	7
실습생	10	28	42	16	4

자료 : Friedrich, 1993 : 190.

이 표는, 작센주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1명은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10명 중 2명이 호의적임을 나타낸다. 1990년

말 작센주에서 시행된 청소년연구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그 이후 증가했다는 것과 특히 극우청소년에게서 그 증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집단 사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은 연령층이 높은 청소년보다 외국인에 더 많이 거부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외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습생들은 학생들보다 외국인에 대해 더 배타적이다. 11, 12학년의 김나지움 학생과 실습생들 사이의 차이는 더 명백하다. 김나지움 학생의 24%가 감정적으로 거부를 느끼는 반면, 동년배의 실습생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긍정적인 감정은 김나지움 학생이 45%, 실습생은 단지 20%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가정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숙련공이라면 35%의 젊은이들이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대졸자일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로 줄어든다.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27%가, 조금 더 작은 지역에서는 15~17%가 외국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들은 외국인에 대한 입장은 청소년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III-8〉 “독일인은 다른 외국인들과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중 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4~18세	13	7	18	14	47
8학년	10	7	23	18	42
9학년	14	10	17	14	45

자료 : Friedrich, 1993 : 191.

〈표 III-9〉 “유태인을 거부한다, 그들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중 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4~18세	10	7	18	18	47
8학년	10	7	20	23	40
9학년	10	5	21	18	46

자료 : Friedrich, 1993 :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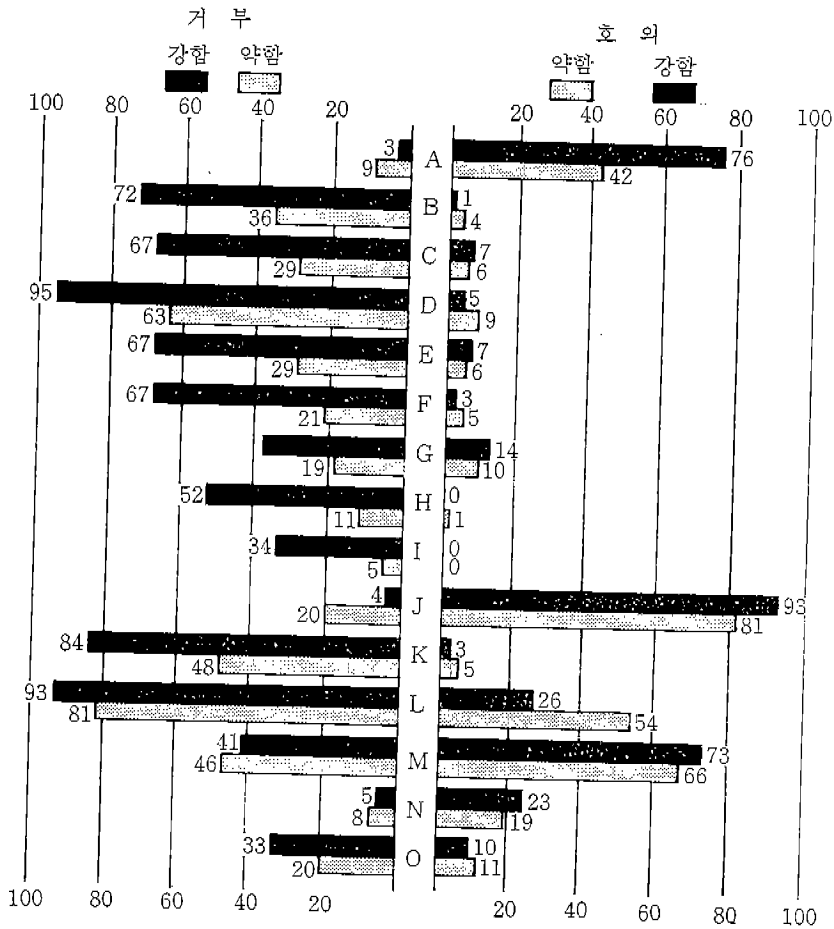
이 표들은 외국인과 유태인에 대해 8~9학년 학생들의 약 20%가 반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복합적인 요소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은 고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 태도와 연관이 되어 나타난다.

〈표 III-10〉

외국인에 대한 반감·호의와 정치적 입장



자료 : Friedrich, 1993 : 190

A : 정치적으로 약간 좌익

B : 정치적으로 약간 우익

C : 독일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D : “독일을 독일인에게”라는 구호에 대해

E : 독일인은 다른 민족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

- F : 유대인을 거부한다
- G : 때때로 폭력이 필요하다
- H : 외국인 사냥(경험했다/그런 상황이 되면 할 것이다)
- I : 외국인들의 본국을 습격한다(경험했다/그런 상황이 되면 할 것이다)
- J :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한다
- K : 독일에서는 단지 독일의 풍습만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적응해야 한다
- L : 삶의 가치 - 많이 벌어야 한다
- M : 삶의 가치 - 다른 사람을 위해서
- N : 삶의 가치 - 예수재림후의 세상을 위해
- O : 10%가 넘는 동독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

이 표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좌익과 우익집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으로 약간 좌익인 집단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76%가 호의를 가진데 반해, 우익집단에서는 72%가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는 청소년들은 “독일을 독일인에게 돌려달라”는 민족적 해결에 대해서는 95%가, 그리고 “외국인 사냥에” 대해서는 52%가 동의하고 있다.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다른 견해는 극우 집단의 60~84%가 긍정하고 있다. 큰 차이는 폭력사용에서 나타난다. 외국인을 거부하는 청소년은 외국인을 내쫓거나 그들 나라의 공격에 동의하며 외국인과의 접촉을 거의 거부한다. 그들의 1/3이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10%가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권력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위협성을 과대 평가하여 “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외국인을 거부하는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 삶의 목표에서는 더 강하고, 사회적 윤리적인 삶의 목표에서는 훨씬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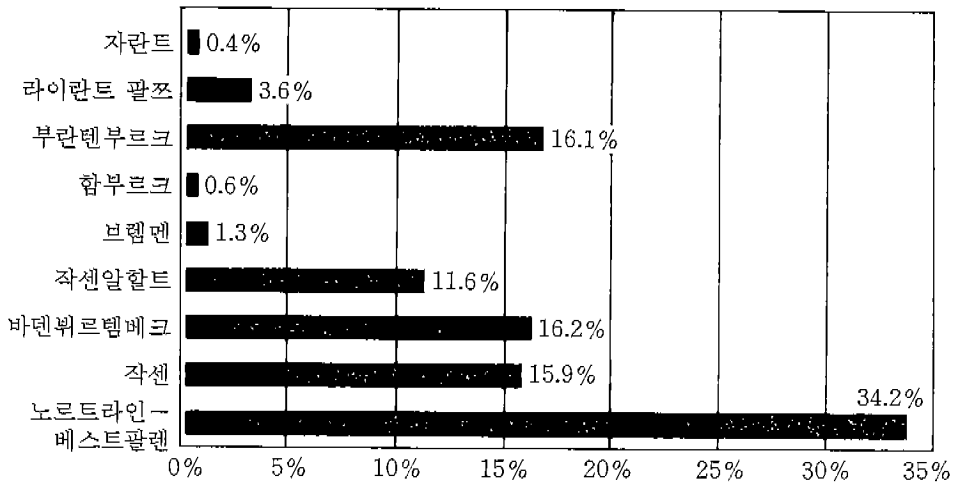
(3) 외국인에 대한 폭력분석

이 조사는 1991년 1월부터 1992년 4월 사이에 독일연방 각주 경찰자료에 근거하였으며, 1,398건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분석하였다. 독일연방 16개주에서 서독 6개주와 동독 3개주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Willems, Würtz, 1993).

외국인 상대 범죄가 제일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서쪽으로 네델란드와 벨지움에 접경한 주이며, 전체범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옛 동독에 속한 3주(브란덴부르크, 작센알할트, 작센)의 합은 전체 범죄의 43.6%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범죄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III-11〉

독일의 범죄행위 분포



자료 : Willems, 1993 : 436.

연구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의 성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①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정치적 우익이나 인종차별의 동기에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저항을 표시하는 폭력인가? 폭력집단들의 노선과 행동양상을 보면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이들을 통틀어서 인종주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우익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통된 사상이나 정치적 확신이 이들 집단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특히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가지는 위협감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이들 행동의 주된 동기가 된 것 같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거공간과 기타 지원을 보면서, 경제적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하여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것 같다.

②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옛 동독시민들의 사회적 해체감이나 계층하락의 체험에 따른 결과인가? 이론들은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집단폭력과 연관시켜 설명하려 한다. 대체로 학교중퇴, 실업, 결혼가정 등의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비뚤어지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알콜이나 마약을 사용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등적인 사회상황이나 변화된 사회구조에 대해 한결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게 아니고, 제각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그에 따른 범죄가능성 및 폭력잠재성은, 사회적 계층이 하락된

집단하고도 관계있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과도 관련이 된다. 경제적 곤란이나 높은 실업률은 노동이민으로 몰려오는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집단폭력의 통계를 보면 공식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직업적 자격을 갖추고, 직업훈련이나 취직의 가능성을 이미 확보한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적대행위자의 절반이상이 학생이거나 직업훈련생들이라는 사실을 볼 때, 현재적으로 불리한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폭력행위로 이끄는 데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통일후 동독지역에는 복지국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과 개인생활의 혼란이 널리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정착민이나 피난수용민의 엄청난 숫자가 유입되고 이들에 대해 정부가 복지차원의 후원과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위협과 갈등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의 해체감이나 계층하락 체험보다는 오히려 분배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에 대한 우월감 등이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집단폭력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③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개인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개인화란 현대 복지국가에서 증가되는 사회적 지리적 유동성과 거기에 따르는 생활양식의 다원화 현상으로 연결된다. 전통적인 친족관계, 사회적 계급, 이웃관계 등의 의미가 축소되고 개인의 생활방식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결정된다. 이전보다 개인이 자유와 기회를 더 가지게 되지만 또한 위험과 부담도 더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관계나 친족관계의 사회적 통제력이 없어져서 개인의 충동에 따라 폭력적 행위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요즘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청소년고유의 문화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런 문화의 존재가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

④ 이런 범죄행위는 계획되거나 조종되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가? 피난민 수용소와 외국인거주지를 공격할 때 부분적으로는 조직화되는 징후가 보였고, 극우당파들과 범죄집단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은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극우정당들의 조종하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아침에 모여서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물을 정도로 무계획적이다. 대개 알콜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외국인을 공격한다.

⑤ 외국인을 배척하는 폭력은 도시적인 현상인가 지방적인 현상인가? 이전의 좌파집단의 폭력은 주로 큰도시에서 발생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소도시들과 지방에서

도 발생하여,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이전의 폭력집단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잘 조직되었지만, 요즘은 조직이 영성하고 성격도 다양한 패거리들이 폭력을 저지른다는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의 거주지와 수용소가 여러지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⑥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은 이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다수 약자들의 폭동인가?

폭력행위자들중에서 노동자와 소시민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숫적으로 좀더 우세하지만 중산층이상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범죄 청소년들은 가정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대한 저항, 부모의 무관심과 지속적인 배려의 결핍, 부모와의 대화상실, 과보호 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불만족과 부적응, 비판능력의 부재, 이분법적 사고방식 등이 이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3. 폭력 대책

독일정부가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행위자를 교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을 살펴 보았다. 이 부분은 주로 1992년 5월에 베를린 출신 상원의원과 베를린시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여러가지 사업을 알아보고, 특히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사법제도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책을 분석했다(Diepgen, Krüger, 1992).

1) 청소년 사업

청소년폭력은 경찰이나 관련된 행정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관련된 여러 기관이 협동할 때만 가능하다. 지방자치기관과 중앙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정보교환과 공동노력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폭력적 공격을 못하게 예방하고 폭력행위자를 교정하는 일이 중요사업이 되겠다.

(1)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

청소년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누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와 청소년 여가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서비스기관에서 배척되기도 한다.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Youth Directed Street Work) 프로그램”은 베를린시 청소년 가족국이 이런 청소년

년들과 접촉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Diepgen, Krüger, 1992 : 15~19).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은 하위문화속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 작업의 과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 주위에 드리운 사회적 벽을 허무는 일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잘 모이는 곳에서 주로 만난다. 청소년들에게 하위문화 생활양식과 또래집단 속에서의 사회화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은 각 지역사정의 자세한 부분과 새로운 면을 잘 알아야 하고,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적기관과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복지사들이 폭력적인 청소년집단과 접촉을 맺은 다음에,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범죄행위의 예방은 형법과 소년법에 관해 상담하고, 경찰과 집주인과 거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들의 정체위기를 극복하는 일과 청소년들의 모험심, 자기주장,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여행, 집단활동과 함께 갈등해소의 방법도 가르치고, 청소년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는 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공동 관심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 적합한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부관서나 단체로 그들을 안내 하기도 한다. 거리작업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갈등과 집단행위를 가르치고, 집단구성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거리작업과 경찰사이의 접촉에서 상대방의 전문영역을 인정하고 과제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법정, 가족사회보장서비스, 교육기관, 학교, 경찰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청소년담당자와 지역정보담당자를 만나고, 지방의 청소년체육과도 청소년집단폭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베를린시는 1991년 예산에서 80만마르크를 할당하여 사회복지사 10명을 채용하여 거리작업팀 셋을 조직해서 웨딩, 그로이썬 버크, 노이골른 지역에 배치하고, 19만 마르크의 추가 예산으로 라이니겐도르프 지역에 한 팀을 더 배치했다. 같은 해에 동독지역을 위해 다시 예산 45만 마르크가 증가되어 반년동안에 적어도 6개 거리작업 팀의 인건비와 물적수요를 충당하게 되었다. 베를린시 23개 구에는 청소년전문가 3명씩으로 된 거리작업 팀이 적어도 15개가 필요하므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예산이 필요하다((Diepgen, Grüger, 1992 : 11).

두번째 단계로, 거리작업반이 만나서 대화를 틀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1989년 각 지역의 여가시설에 관한 베를린시 상원보고서는 사회 문화적인 형태에 따라서 여가시설에 과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청소년 집단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찾아나서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여가시설 직원들은 시설 안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청소년을 찾아나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베를린시 상원과 각 지역관청이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교육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각 지역 여가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찾아나서는 작업을 좀 더 다양하게 전개해야 했다.

집단폭력을 분석해 보니 사회적 생활조건과 직업과 교육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과 청소년을 찾아나서는 작업 등 폭력예방 수단은 폭력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줄임으로써 이런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세번째 단계다.

(2) 청소년 여가센터와 보호 안내소

잠재적인 하위문화는 또래집단에 청소년들이 모인 결과로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다른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집단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바이마르공화국때의 빌렌크리켄, 50년대의 록커즈, 60년대 청소년운동때의 프라크찌오넨, 스쿼터운동때의 아우토노멘, 그리고 요즘의 스킨헤드 등이다. 폭력적인 청소년집단은 전통가치를 부정하는 성격의 개인과 불만스런 사회 상황에 저항하는 사회현상과 연관된다.

지역사회기관에서는 청소년집단폭력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여가센터”를 통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센터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음악, 자부심, 운동에 관한 요구를 채워준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청소년 집단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한다.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폭력에 익숙해진 행위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프로그램의 실행이며, 외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동하거나 사무소를 차린 사회교육적 노력이 청소년폭력의 구체적 예방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방정부의 폭력담당관도 인정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만날수 있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공간은 청소년기에 특수한 활동의욕과 모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그들이 사용할 공간을 장식하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담당기관과 직원들이 이런 요구를 몇년 동안 계속해 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은 그중의 한 두 가지 뿐이다.

경찰서에 불잡혀 온 청소년들중에서 부모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폭넓은 상담과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한 자발적인 지역청소년 사무소와 경찰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상호협조를 위해, 상대방 일에 간섭 안하려는 근심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 안내소”는 비 관료주의적이고 편한 분위기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다. 1971년부터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경계를 넘은 서비스를 하도록 이 기관에 지원금이 지불되었다. 폭넓은 상담업무를 보고 문제청소년들의 잠자리를 12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이거나 경찰에 불잡힌 청소년들을 만나는 또다른 장소로는, 시의 상원 청소년과가족 복지국이 지원하여 24시간 동안 지역경계를 넘어 운영하는 청소년 긴급서비스기관이 있다.

(3) 청소년과가족 복지국

이 기구는 폭력문제를 줄이기 위해 여러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난폭한 청소년들의 충동을 처리하고,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폭력사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베를린시 지역의 청소년 운동부와 민간청소년단체와 청소년 집단폭력에 관해 의논해 왔다. 상원행정국의 지역 관청에서 청소년 폭력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할당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청소년복지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청소년 폭력문제때문에 상의할 사람을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사회교육서비스”와 “청소년복지 증진수단”을 통해서, 비 독일인 가족과 청소년들이 독일사회에 잘 통합하도록 여가활동, 청소년안내사업,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지원, 같은 민족집단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폭력행위가 불법이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비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폭력문제에 관여하는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복지교육센터는 외국인 통합문제, 지역사회사업, 폭력예방과 사회적 거리사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다. 이 기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늘 노력한다. 1991년 5월 “베를린시의 놀이와 생활공간”에 관한 대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서 “학교, 도시, 정치에서의 청소년문화”에 관한 대회도 열었다.

상원 청소년과가족 복지국은 청소년폭력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생활조건과 동기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한 사회사업의 효과를 조사하게 했다. 조사결과 청소년 집단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친구찾기, 소속감, 인정받기와 안전감이었다. 청소년사회 사업은 가족기능의 대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두 민족집단의 갈등속에서 어느 한 쪽에서도 분명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상태, 자기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느낌, 민족적으로 차별받아본 구체적 경험 등이 폭력적인 집단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 같다.

(4) 문화사업과 공공교통국

원칙적으로, 베를린시의 청소년 폭력집단문제의 해결은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 속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에 분산된 문화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예방적이고 재 사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여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폭력사용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형태야 어떻든지 예술활동은 갈등의 잠재력을 줄여준다. 연극과 음악은 이런 효과에 가장 적합하고, 공격성은 집단적인 놀이속에서 적응되고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갈등을 극화하는 것이 폭력으로 향하는 감정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폭력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될 것이다. 문화사업은 또 외국인 청소년과 독일 청소년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불하우스 나우니스트라체는 독일인과 외국인 청소년들의 연극과 음악 집단에 활동할 공간과 지원을 주어, 이들이 만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장려하므로써 이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문화사업은 보통 예방적인 성격을 갖지만,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얻는다면 이미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과 사회복지부서 대표들이 지역문화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시 상원에서는 공공교통국에서 시작한 범죄예방과 교육적인 방법을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공교통국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공공교통수단은 자기것이라는 느낌을 강화시켜 파괴와 폭력을 예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버스정거장, 기차정거장, 차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예술품(낙서도 포함)을 전시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예술품전시가 아이들이 공공교통수단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교통국은 공공교통수단 파괴에 반대하는 홍보활동을 위해 담당관을 임명했다. 이 활동은 학교행정가, 청소년심리학자, 청소년집단들의 협조를 요구한다. 이 홍보활동 기간에, 벽낙서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파괴방지와 환경보존방법이 결정되고, 비데오필름과 자료집과 팜플렛도 활용될 것이다. 상원은 공공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1991년 예산에서 2천만 마르크를 할당했다.

(5) 학 교

집단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학교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고, 이것의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를린시의 중등학교 교장들과 교육관리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 시 상원은 청소년비행의 범위와 형태를 다 파악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상원 청소년국에 알리라고 교장과 관리들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도 말고 또 너무 신경질적으로 취급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생기면 학생 개인과 그 부모들을 만나서 접을 주기보다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Diepgen, Krüger, 1992 : 19-21).

다른 한편, 시 상원은 학교안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 엄격히 다스리라는 훈시도 내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권장했다. 교실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부모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공동체생활 경험을 갖게 한다.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은 학생과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할 때 솔직한 토론이 가능하게 만든다. 집단폭력이란 주제를 다룰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학생의 입장에서 다루고,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 선생이 학생들을 다룰 때는 참을성 있고 평화적인 태도의 모범을 보이고, 서로 경쟁하는 학생집단들에게 고르게 의논할 기회를 준다. 학생과 선생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때는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로 설명하여 학생쪽에서 잘 납득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발달에 관련된

법과 규칙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교육과목에는 법률을 가르치는 내용을 꼭 포함한다. 폭력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규칙과 금지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과 교수내용을 통해서 학교생활의 심리적 측면같은 주제에 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1990년과 1991년 학년도에 베를린 학교를 대표하는 선생 한 사람이 교육청에 임명되어, 청소년 폭력에 관해 선생과 교육자들의 상담에 응하게 했다.

2) 외국인 청소년 대책

외국인청소년들의 집단폭력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관련이 되고, 외국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면, 학교와 직업훈련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바꾸고, 독일어 교육을 확장하고, 이민 온 사람들에게 독일인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주는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사실이 교육이나 사회보장정책에서 외국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서 외국인 청소년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치주의자들은 독일 어디에나 있다”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독일인과 평화롭게 같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칙들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합법적인 저항과 심지어 자신들까지 파괴하는 공격적 행동의 차이를 인식시켜야 한다. 외국인 청소년들과 만날 때는 그들의 특수한 민족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해야 된다. 외국인 가정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청소년대상 사업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외국인 공동체에서는 가족간의 유대가 강하고, 청소년들의 지원수단으로도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iepgen, Krüger, 1992 : 21-24).

외국인들 자체의 조직과 협조하는 일은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 조직들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사회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외국인청소년들은 곤란한 문제에 부딪칠 때 이런 조직들에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인 단체나 사업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조직은 또한 독일인과 접촉하고 협조하는 일에 방해될 정도로 강한 연대감을 키울 수도 있다.

교육기간에 외국인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외국인의 문화적 배경에 특수한 측면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기가 쉽게 된다.

1976년의 “외국인 통합에 대한 안내와 새 대책”에 따라 시 상원 청소년과가족 복지국은 외국인 청소년을 사회문화적으로 통합하려는 여러가지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했다.

외국인 담당관의 권한하에, “폭력에 반대하는 청소년”이란 사업팀이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폭력과 무기사용에 반대하도록 행동강령을 만들어 주었다. 이 팀은 규칙적으로 모였는데, 대개 14살에서 25살 사이의 다른 나라 청소년과 동서독 청소년들이 약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팀의 목표는 청소년 또래집단이 확대되는 폭력문제를 인식케 하고,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국인 담당관은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 폭력문제에 관한 외국인 대상 수단과 프로그램이 효과적인가 또는 고치거나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시켰다. 이 담당관은 또 집단폭력과 인종주의와 민족차별에 관한 전문가 2명과 함께 외국인 연수프로그램을 짰다. 앞으로는 집단폭력에서 유명해진 청소년들도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비행자와 폭력집단 구성원들의 생활배경과 사회구조를 연구할 팀이 구성되어, 그 연구결과를 청소년관련 부서에 보낼 것이다.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외국인 청소년들이 주말 세미나 같은데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여러국적의 베를린청소년과 젊은 순경들이 함께 비디오필름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서로 잘 이해하게 되었다. 외국인 담당관의 홍보활동에서도 청소년폭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청소년폭력에 대해 가끔 편견을 나타내는 독일과 외국의 언론인들을 만나 토의할 계획도 서 있다. 외국인 담당관은 터키인 신문 컬럼에서도 가끔 이 문제를 홍보한다. 젊은 난민들에게 노동시장이 개방되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겠다. 시의 주요 사회문제 사무소, 청소년과가족 복지국, 외국인 담당관 등의 노력으로 난민을 돕는 지원금이 좀 마련되었지만, 노동허가와 직업훈련법 같은 법적인 장애는 그래도 남아 있다.

베를린시 경찰은 외국인 지원자를 받는데, 훈련이 끝나고 독일시민권을 얻어야 경찰에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 2세나 3세 젊은이들이 독일국가와 국가기관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3) 법적인 대책

1990년부터 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집단의 폭력을 전담하는 특별반이 활동하고 있

으며, 청소년집단의 폭력수사에 능률을 더해 주었다. 1989년 여름부터 베를린시 상원 사법위원회는 청소년에게는 형법절차를 생략하고 “대체 절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이 비공식적인 절차때문에 청소년비행에 대해 더 건전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청소년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더 신중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Diepgen, Krüger, 1992 : 24-29).

꼭 처벌을 해야 할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형법절차를 사용하였다. 소년법정의 도움으로 시간은 더 들지만 청소년들의 성격과 주위환경을 세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봄에 청소년비행자들에게 법정절차에 관해 교육시키기 위해, 시 상원 청소년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절차를 만들었다. 1990년 5월 시 지방법원 검찰청에 청소년관련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화해절차를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재판도 하기전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심각한 범죄를 되풀이하는 청소년 범죄자를 청소년수용소에 보냈다. 이 교육적 과정의 기간과 교육내용과 형식에 관해서는 시 상원이 법사위에서 토의하였다. 심각한 범죄자와 여러번의 전과자들은 청소년복지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문제도 의논하였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청소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은 그들에게 잠잘 곳과 직업을 찾아주고 개인적 빚까지 갚아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처벌을 받고 풀려난 청소년들의 성격과 사회적 인맥이 안정되도록 담당기관에서는 규칙적으로 그들을 모아 놓고 도움을 준다.

청소년 비행자의 교화에 관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은 맡은 일이 다르므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다. 같은 주의 기관들이 매달 규칙적으로 모여서 청소년집단폭력에 관해서 협동할 것이다. 청소년담당부서가 책임지고 청소년교화에 관한 조정책임자를 세워야 하겠다. 정보교환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그리고 청소년 법정의 판사와 검사들도 참여할 것이다.

청소년교화에 관한 조정팀은 여러지역에 걸친 문제의 분석과 해결, 장기적인 폭력예방을 위한 상호연락의 유지, 청소년과 학교와 경찰 등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의 정리와 관련기관에 배부, 청소년 교화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홍보등의 일을 책임진다. 각지역의 청소년과 운동담당 부서에 지역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조정자를 파견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보교환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준비시킨다. 이 모임은 청소년을 위한 거리작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청소년 부서의 조정자는 관련된 여러부서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을 위한 거리 작업과 청소년을 찾아나서는 작업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해야할 것이다.

① 경찰청

1990년 2월 베를린시 경찰청에는 청소년 집단폭력을 담당할 특별반이 조직되었는데, 4명의 형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맡았다. 집단폭력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과 사후처리, 경찰서 내외에 집단폭력에 관한 상황설명과 보고, 청소년복지기관, 학교, 소년법정, 검찰청과 접촉하여 공동노력하도록 조정, 경찰단속 또는 다른 기관과 합동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 모색, 베를린시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의 청소년담당자들을 지휘하여 집단폭력의 예방을 위해 광범위하고 부처 상호간의 공동작업을 계획 등이다.

지방 경찰청 범죄담당자의 책임범위를 조절하여 청소년집단이나 개인이 행한 모든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참모집단과 하나의 담당책임자가 모두 관장하도록 한다. 청소년집단이 만나거나 모이는 장소는 더 주의깊게 지켜보고, 경찰관 훈련과정에서 청소년 폭력문제를 더 강조한다. 경찰청안에 청소년 집단폭력에 관한 최신 정보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경찰청밖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보교환모임이 있을 때는 특히 교장, 선생, 학부모들이 만날 때는 경찰관이 꼭 참석한다.

경찰이 청소년 집단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눈 결과, “블랙팬서”집단과 “36 소년들” 집단사이에 평화협상을 열게했다. 변두리에 있던 집단들이 모여들어 브라이트셰이드광장이 청소년집단의 집합장소가 되어 경찰입장에서는 이곳이 요주의 장소가 되었고, 1990년 4월부터 7명의 경찰관이 이 지역에 근무하면서 문제발생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청소년집단들과 접촉도 하고 그들을 달래기도 한다.

경찰관의 홍보활동이 효과를 발휘해서 일반시민들이 청소년범죄신고에 협조하여 청소년범죄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희생자들이 사건보고하기를 너무 무서워 해서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② 소년법정의 지원과 비행자 수용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법적절차에는 소년법정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보통 경찰서에서 청소년 복지기관에 최종보고 한 다음 소년법정이 관여하게 된다. 청소년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영장발부나 소년원 수감을 피할 수 있을 때는 경찰의 요청으로 소년법정이 법적절차의 초기단계에 관여하는 수도 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의 사건담당자가 관련정보를 가지고 소년법정에 간다. 소년법정의 중요 역할은 비행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해서 자유를 뺏기보다는 법적 처리과정에서 적합한 사회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민간단체들이 소년법정을

도와서 이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베를린 통합지원”이란 단체가 중요한 일을 했다.

재판전의 청소년들이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피하려고,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구금소를 만들어 28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개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구금소공간은 충분한 편이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뒤에는 이런 공간의 수요가 늘었다. 1990년부터 동베를린청소년, 동독청소년, 그리고 폴란드청소년까지 수용하기 시작하여, 서베를린 폭력집단에서 온 청소년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③ 대체적 사법과정

지금까지 신체부상을 일으키는 범죄자는 다른 단순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검사가 취급하기도 하고, 검찰청 청소년국에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0년 봄 베를린 지방검찰청에 “제80특별반”이 구성되어, 청소년집단의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범죄행위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 특별반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맡았다: 공공 질서의 파괴, 단체나 패거리들이 행한 집단적이고 심한 폭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전체 대중에게 영향주는 폭력행위, 신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범죄의 전과자가 재범할 경우 등이다.

“제80특별반”에 2명의 검사가 파견된 후로 청소년 범죄처리가 더 빨라져서, 1990년 5월에 특별반이 생긴후 1991년 3월까지 377사건 중에서 304건을 처리하고 73건만 미결로 남았다. 일의 능률이 크게 향상되어서 1990년에는 매달 평균 29건씩 처리하다가 1991년 첫 석달동안엔 평균 두배씩 처리했다.

범죄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성장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므로 늘 공식적 사법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더 적합할 때가 많다. 교육적으로 봐서 대체절차가 바람직한 사건은 이 방법이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범죄수사국, 소년법정, 청소년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식기소를 줄이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㉔ 작은 잘못이나 피해가 적은 사건이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아무 처벌도 없이 기소를 안한다.

㉕ 비행청소년을 부모의 용돈금지나 선생의 경고 등으로 교육적 수단을 취한 다음 석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서명경고를 주거나 본인과 교육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기소를 유예한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범죄수사관이 수사를 마친 다음 청소년과 교육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

㉔ 청소년법원 판사는 청소년 비행자와 교육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생산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인 추가교육을 명령하고 나서 석방할 수도 있다.

이 절차는 1989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특별히 검사들이 이 절차를 적용하라고 말했으며, 비행자가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는 판사가 이 사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식 범절차를 밟지 않고 대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각 사건을 엄밀히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청소년 집단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용한다. 이 대체절차는 청소년 비행자에게만 적용되고, 청소년 비행자일 경우 이 절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교화에 있다. 한 청소년이 지하철에 페인트를 뿌려 낙서를 했다면, 그에게 지하철 청소를 시킨다면 자기가 한 잘못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처를 준 청소년은 병원에서 다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을 것이다. 양로원에서 일하게 된 청소년은 자기가 약한 노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얼마나 나쁜 지를 알게 될 것이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쪽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찾을 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1989년 4월부터 베를린시 상원 청소년 가족국과 사법국은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을 함께 교육시키는 일을 시작했다.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이 일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1990년 5월에 상원법사위는 베를린시 지방검찰청과 검사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소년법정과 민간 청소년기관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Ⅳ. 노동환경과 청소년 실업

청소년문제는 그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청소년실업은 그 사회의 경제사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선, 동독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나서 청소년실업을 다루었다. 청소년실업은 경제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므로 직업의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전체의 실업대책을 살펴보았다.

1. 동독의 노동환경

여기서는 통독후 동독의 경제사정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경제구조의 개편, 노동현황을 조사하였다.

1) 경제 사정

동독지역 경제는 통일 후 사정이 악화되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면 1991

〈표 Ⅳ-1〉 동독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1990~1992)

(단위 : 십억 DM)

	1990				1991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농림수산업	1.0	1.0	1.4	1.1	0.7	0.7	1.1	0.8	0.5	0.5
○ 공업전체	34.9	34.7	24.4	22.5	17.3	16.3	16.8	17.1	16.6	16.4
-에너지·광업	2.9	2.6	2.4	2.7	2.7	2.0	1.9	2.1	2.0	1.6
-제조업	27.2	26.0	16.6	15.1	11.1	10.4	10.4	10.6	9.9	9.5
-건설업	4.8	6.0	5.3	4.7	3.5	4.0	4.5	4.5	4.7	5.2
○ 무역 및 교통	16.8	16.3	9.9	10.0	8.3	8.1	8.0	8.7	8.0	8.3
○ 서비스업	12.4	12.1	12.6	12.1	11.6	11.4	11.8	12.2	12.6	12.9
○ 국가·가계활동	14.4	14.3	14.1	12.6	11.8	11.1	11.6	12.2	11.9	12.1
○ 전체 경제	79.5	78.4	62.2	58.2	49.8	47.7	49.4	51.0	49.5	49.4
총 부가가치 생산										
○ GDP(국민총생산)	80.4	79.6	60.2	56.8	46.4	44.0	45.5	47.1	46.0	46.0

주 : ① 1991년 가격 기준임.

② 총 부가가치 생산에 판매세와 관세를 합해서 GDP가 됨.

자료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주독대사관, 1992 : 42).

년 2/4분기에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과 대비하면 1990년 현재 아직도 경제규모는 그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농림수산업 1992년 2/4분기 생산량은 1990년 1/4분기에 비교하여 그 절반 수준이고, 제조업 분야 생산량은 1/3 수준밖에 안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 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한다. 다만, 동독지역 지방시장에 유통되는 식료품과 생필품이 잘 팔리고, 건축경기 덕분에 건축자재산업이 호황을 누린다. 이 표에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1992년 2/4분기 현재, 1990 1/4분기의 생산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조정이 순조로운 것 같다.

오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유산때문에 동독지역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건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동독경제의 생산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용한 것 같다. 과거에 동독무역의 70%를 차지하던 COMECON국가들의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동독 제품은 큰 시장을 잃었고, 많은 동독의 토지와 건물들이 소유권 분쟁에 말려들어서 투자를 방해한다. 각종 허가와 증명서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것 등이 기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밖에 동독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든다. 독일통일조약은 동독화폐를 서독화폐와 1대 1로 바꾸는 바람에 임금이 3배로 늘었다고 한다(주독대사관, 1992 : 43).

〈표 IV-2〉 동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생산성(1990~1992)

(단위 : DM/시간당)

	1990		1991		1992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임 금①	10.86	12.22	16.04	22.72	21.11
생 산 성②	19.16	18.66	17.81	20.39	19.18

주 : ① 노동자 1인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임금의 총 노동자수로 나눈 액수).

②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액수.

자료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주독대사관, 1992 : 43).

통독직후의 동독사정은 서독과 비교하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다음표는 동서독의 인구, 면적, GNP, 생산성, 임금 등을 비교하였다.

〈표 IV-3〉

통독이후 동·서독 경제규모 비교(1991)

구 분(단 위)	주 요 지 표			구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독일전체	구서독지역 대 비	독일전체 대 비
1. 인 구(백만)	62	16.5	78.5	26.6	21.0
2. 면 적(천km ²)	249	108	357	43.3	30.2
3. G N P(10억DM)	2,615.2	193.1	2,808.3	7.3	6.9
4. 국내총수요(10억DM)	2,427.3	361.2	2,788.5	14.9	13
5. G D P(10억DM)	2,597.7	183	2,780.7	7.0	6.6
6. 총취업 인구(백만)	29.17	7.16	36.33	24.6	19.7
7. 생산성(DM) : GDP/총취업인구	89,046	25,537	76,521	28.7	—
8. 소비자물가상승률(%)	3.5	13.6	—	—	—
9. 실업률(%)	6.0	14.4	6.7	—	—
10. 실업자수(천명)	1,821	1,116	2,937	—	—
11. 임금인상률(%)	7.0	40	6.9	—	—
12. 시간당임금비용(DM)	44.7	72.3	46.55	+ 61.6%	—
13.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697	1,647	3,280	44.5	—
14. 임금-생산성 격차 서독을 100으로 할때	100	155.3	103.2	+ 55.3	—

주 : 9.10은 92년 8월 현재.

자료 : ① 연방경제성 발행 “신설연방주 상황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② 5대경제연구소 추계 ‘91 GNP는 구서독지역이 2조 6,312억 DM, 구동독지역이 1,954억 DM, 전체가 2조 8,266 DM임(주독대사관, 1992 : 44).

1991년말의 동독을 서독과 비교하면, 인구는 약 4분의 1 (6천2백만 대 천6백5십만)인데, GNP는 약 14분의 1 (2조6천억 대 천9백억)이 된다. 여기서 서독의 1인당 소득은 동독의 1인당 소득의 3.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성은 약 3.5분의 1인데 평균임금은 약 2.2분의 1 (3천7백 대 천6백5십)이므로, 동독기업이 임금의 압박을 더 받는다. 물가상승율은 약 3.9배 (3.5 대 13.6)인데 임금상승율은 약 5.7배 (7 대 40)가 되므로 동서독의 실질임금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다. 실업률은 6.0 대 14.4로 동독이 2.4배가 된다.

2) 경제구조 개편

동독에서는 토지단위 면적에 투입된 농업노동력이 구서독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동독의 농업구조를 경쟁력있게 고치려면, 농촌의 은폐실업자를 줄이는 일이 필요했다. 1992년 중반기의 농업인구 29만명은 1990년 초의 96만명에 비교하면 단지 30% 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다른 직업으로 바꾸거나, 은퇴하거나, 직업전환 훈련중이거나,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농업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나타낸다. 동독의 농업구조가 개편된 것은 1991년 7월 농업구조조정법이 만들어진 후의 일이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되고 농업생산협동조합이 개편되었다. 그 결과 농협은 1991년 말까지는 개인자영농과 회사농 또는 농협으로 다시 등록되었다(주독대사관, 1992 : 45-47).

〈표 IV-4〉 동독지역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개편(1992. 2)

형 태	개 수	총 농경지중 경작비율(%)	평균 영농규모 (ha)
○ 개 별 농	17,072	24.8	74.2
- 가족농 형태 자영농	12,647	17.1	69.2
• 그중 전업농	5,565	14.6	134.6
- 협업농	933	7.3	397.7
- 원예농	2,462	0.1	2.1
- 기 타	1,030	0.3	16.2
○ 법 인 체	3,039	75.2	1,266.4
- 새로 등록한 협동조합	1,475	43.9	1,521.7
- 유한책임회사 형태 기업농	1,120	20.7	945.4
- 다른 법인 형태	157	2.3	764.8
- 합자회사 형태 기업농	287	8.3	1,481.2
전 체	20,111	100	254.4

자료 : 독일경제연구소, 1992. 9. 24 보고서(주독대사관, 1992 : 45).

농협중에서 빚이 많고, 생산성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해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정리했다. 농지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농협개혁에 큰 방해가 된다. 사유화 대상인 농지와 산지의 면적(농지 약 195만 ha, 산지 약 190만 ha)중에서 단지 14,917 ha만 사유화(1992.6)되었다. 소유권이 분명하지 못한 국유지는 구소유자

나 농협에 임대하고, 농협농지는 조합원에게 임대하였다.

독일정부는 92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 139억 마르크중 26억을 구동독지역에 사용하였고, 가족농 재건을 위한 융자, 과거 부채(1990.7.1 이전 발생)의 경감, 농업 경영 지원, 가공과 유통구조의 현대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에 농업지원금을 주로 사용하였다.

신탁청은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계속 추진하여 92년 10월말 현재 관리기업중 10,403개를 매각하고 3,189개가 남아있으며, 6,056건의 재산이 지방행정기관에 이양되었다. 신탁청이 국유기업을 판 수입이 약 362억 마르크가 되고, 장래에 투자가 보장된 금액이 1,576 마르크가 되었기 때문에 133만명이 취업하게 되었다. 반면에 신탁청 관리기업중 1,924개의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27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동독지역 투자에는 기한부 투자보조금과 특별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였는데, 91년에는 225억 마르크, 92년에는 435억 마르크가 투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IFO 연구소 추정).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1991.3), “제2차 재산법”을 개정하여(1992.7) 소유권반환 원칙에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독일정부는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썼다.

동독지역 투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교통, 우편·통신, 도시건설, 환경보호 분야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현대화하고 교통분야에 300억 마르크('92-'95), 우편 통신 분야에 550억 마르크('91-'97)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동독에 투자할 때 유리한 점도 있는데, 질 높은 노동력,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 독일 정부의 각종 지원, 동유럽시장으로 진출할 기회 등이다.

3) 노동 현황

독일이 통일된 뒤 2년동안에 동독의 취업인구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에서 1992년 2/4분기 총 취업인구는 620만인데 1990년 1/4분기에 비교하면 336만명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별 차이가 없으나 농림수산업이 67만, 공업이 214만명의 일꾼을 잃었다. 그리고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통일 후 2년 사이에 약 52만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대개 임금, 자녀교육환경, 문화생활기회 등에서 서독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사간 것이다. 그밖에 집은 동독에 있는데 서독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서 1992년 2/4분기에 78만명이나 되었다.

〈표 IV-5〉

동독지역 취업인구 감소추세(1990~1992)

(단위 : 천명)

	1990				1991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전 체	9,568	9,130	8,674	8,048	7,770	7,284	6,902	6,708	6,315	6,201
-농림수산업	960	830	770	600	560	478	430	382	335	290
-공 업	4,266	4,097	3,805	3,517	3,385	3,074	2,727	2,540	2,198	2,120
-무역및교통	1,623	1,547	1,469	1,359	1,303	1,303	1,265	1,243	1,196	1,200
-서비스업, 국가	2,719	2,656	2,630	2,560	2,481	2,328	2,246	2,186	2,190	2,187
-고용창출	—	—	—	12	41	101	234	357	396	404
조치 (ABM)										
○ 1989 4/4분	-186	-624	-1080	-1,706	-1,984	-2,470	-2,852	-3,046	-3,439	-3,553
기 대비감소										
-실업자	13	83	309	556	756	835	1,023	1,037	1,254	1,172
-Pender ①	14	28	85	145	226	320	400	482	526	534
-이주자	129	166	221	299	352	384	416	648		
-조기은퇴자	45	190	310	410	430	516	563	661	776	781

주 : 주거지는 동독지역에 있으면서 서독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

자료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주독대사관, 1992 : 65).

〈표 IV-6〉

통독이후 동·서독 지역 노동시장 발전 추세

연·월	실업자 (천명)		단축조업자 (천명)		실업률 (%)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90.10(통 독)	1,687	537	39	1,704	6.5	6.1
1991. 1	1,874	757	93	1,856	7.0	8.6
1991.10(통독1년)	1,599	1,049	173	1,199	6.0	11.9
1992. 1	1,875	1,343	214	521	6.9	17.0
1992. 8(통독2년)	1,821	1,169	228	287	6.0	14.4

자료 : 주독대사관, 1992 : 67.

동독지역의 실업자는 통독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통일 2주년이 되는 1992년 8월부터는 줄기 시작했다. 실업율도 통독 당시의 6.1%에서 92년초의 17%까지 올라갔다가

92년 중반에 14.4%로 줄었다. 서독의 실업은 통독 후 2년동안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반 실업인 단축 조업자는 통독 후 1년 동안 동독에 1백만이 넘게 있다가 2년되는 때에는 상당히 줄었다. 오히려 서독은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 증가하였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실업대책은 실업수당 지급, 취업 알선,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 창출 조치(ABM)확대, 전직·자질향상 훈련 실시 등이다.

동독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상당히 늘었다. 1989년 4/4분기에 월 평균 1,180 동독 마르크에서 1992년 4/4분기에는 2,910도이치 마르크로 147%나 증가했다. 서독마르크와 1:1 교환을 통한 동독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생각하면 실제 증가율은 몇배나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7〉 동독 취업자의 평균 월수입 변화

시 기		평균 월 수입
1989년	1/4분기	1,270 동독 마르크
	2/4분기	1,120 동독 마르크
	3/4분기	1,120 동독 마르크
	4/4분기	1,180 동독 마르크
1990년	1/4분기	1,400 동독 마르크
	2/4분기	1,410 동독 마르크
	3/4분기	1,250 DM(독일 마르크)
	4/4분기	1,410 DM
1991년	1/4분기	1,440 DM
	2/4분기	1,610 DM
	3/4분기	1,870 DM
	4/4분기	2,170 DM
1992년	1/4분기	2,100 DM
	2/4분기	2,300 DM
	3/4분기	2,580 DM
	4/4분기	2,910 DM

자료 : 독일연방 통계청, 독일경제연구소(DIW) (지버트, 1993 : 142).

동독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992년 말 현재 서독 취업자의 70%이고, 1993년 말에는 80%에 이를 것이다.

2. 청소년 실업

통일된 독일의 일반적 실업문제 중에서 특히 청소년실업에 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실업에 대해 느끼는 의식과 실업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1) 동독의 청소년 실업증가

청소년실업은 청소년시기의 특별성, 즉 성숙과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배경에서 관찰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실업은 심리상태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결합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는 조건인 경제적 토대를 얻기 위하여 학교에서 지적이며 사회적인 교육을 받으며, 직업교육은 자신의 자아가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학교와 직업적인 교육에서 청소년들은 가치체계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윤리적 의식을 얻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자기정체화 단계, 그리고 사회일원의 역할을 배우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직업의 획득은 성인상태의 교육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

옛 서독 지역에서는 청소년실업이 80년대초의 최고상태에 비하여 거의 절반정도로 줄었지만, 옛 동독지역에서는 청소년 실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옛 서독에서 청소년 실업은 이제 더 이상 놀랄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직업교육장의 부족이 부분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부족으로 바뀌지만, 청소년실업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청소년실업은 특히 중요한 교육의 결핍과 행동장애를 가진 특수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Hermanns, 1991 : 20).

통일독일후의 실업문제는 이제까지 알려진 구조적인 실업과는 다른 형식의 과도기적 실업이 많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통제되는 노동시장에서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정부의 후견하에 있는 직업진로에서 개인의 능력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선택으로, 생활 필수품의 분배에서 자유경쟁적인 임금교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독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제질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실업이 많다.

이런 형태의 과도기 실업에 대한 전략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실업의 발생에 대해서 직업부족이라는 직접적인 이유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개인적, 집단적인 청소년 실업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 실업자는 사회주의적 적자 경제로 설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 의식, 행동에서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청소년 실업의 빠른 극복은 새로운 국가 사회질서에 대해 청소년들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 때문에 청소년 실업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실업에 대한 의식

구동독지역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실업이 널리 퍼져 있다. 직업을 얻느냐 실업자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은 독일통일의 성공이나 실패냐에 대한, 그리고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 민주주의 체제에 통합되느냐 못되느냐에 대한 시금석이다.

콘라드 아테나워 연구소가 1992년에 15~25세의 독일 청소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다.

〈표 IV-8〉

실업에 대한 공포

“당신이 어느날 실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단위 : %)

	서독		동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두렵습니다	25	27	58	57
아니오, 두렵지 않습니다	70	67	32	31
현재 실업자 (단축 조업자가 아닌)	4	4	9	12

자료 : Jaide, Hille, 1994 : 63.

이 조사에 의하면, 동독 청소년은 57%가 실업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하여 서독 청소년의 2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위르겐 뵘의 조사에 의하면 구동독에서 실업에 대한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하던 청소년들이 통일이후 부모와 이웃들이 직장을 잃은 모습을 경험하면서 약 76%가 실업의 두려움을 표시하였는데 서독청소년은 약 40%만 실업 문제를 거론하였다(뵘, 1994 : 145). 이러한 실업문제는 외국인 망명자들이 주택과 직업을 빼앗아간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외국인 차별과 증오감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동독 청소년들은 학제의 변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등으로 부모의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업의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에 대한 양독 청소년의 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실업은 독일에서 진지한

문제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에 서독 청소년(80%)이 동독 청소년(66%)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즉 서독 청소년이 동독 청소년에 비하여 실업에 대해 더 여유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서독의 4%, 동독의 11%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직의 공급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다. 1991년 여름에는 6,000개의 비어 있는 직업훈련직에 2,500명의 아직 주선받지 못한 지원자가 있었다. 실업은 무엇보다도 구동독지역에 있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문제임이 명백하다. 모든 연령그룹의 실업자들은 변혁에 의해 매우 부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업에서 벗어날 가능성, 지역내의 이동성과 경제적 지원을 예전보다 적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에 대한 공포는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상의 성공기회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키고 있다.

〈표 IV-9〉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실업

“어느 정도까지 당신은 직업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위 : %)

	무제한	주로	절반쯤	거의없다	알수없다/무응답
동독 전체	9	47	30	11	3
실업이					
두려운 사람들	5	43	36	13	3
두렵지 않은 사람들	16	63	17	3	1
실업자들	4	20	39	29	8

자료 : Jaide, Hille, 1994 : 64.

그밖에 염려스러운 실업과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의 관계가 조사되었다.

〈표 IV-10〉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업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단위 : %)

	대부분	때때로	드물게	거의 불안하지 않다
동독 전체	8	37	35	19
실업이				
두려운 사람들	8	42	32	17
두렵지 않은 사람들	3	29	43	25
실업자들	22	41	20	15

자료 : Jaide, Hille, 1994 : 64.

염려스러운 실업뿐만 아니라 실제 실업도 이 조사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실업자와 비실업자간 뿐만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실직중인 젊은 사람간의 세심한 비교를 요구한다. 실업자와 비실업자의 경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1〉

실업자와 비실업자의 개략적인 특징

(단위 : %)

	서 독		동 독	
	실업자	전체	실업자	전체
직업상의 성공이유				
노력	33	70	63	77
우연/인간관계	61	24	36	21
직업상의 이상실현 확신				
무제한적으로	2	13	4	9
주로	22	56	20	47

자료 : Jaide, Hille, 1994 : 65.

개인적인 노력에 비해 우연/인간관계가 실업자들에게서 “직업상의 성공기회의 이유”로서 매우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자기자신의 직업상 이상실현에 대한 확신”은 실업자들에게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동독과 서독간의 차이가 눈에 띈다. 동독실업자들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독실업자들은 우연이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실업자들은 정당에 대한 신뢰가 특히 낮다. 이러한 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 낮은 만족에서 나타난다.

〈표 IV-12〉

실업자의 정당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서 독		동 독	
	실업자	전체	실업자	전체
정당에 매우 만족한다	10	27	4	8
정당에 다소 만족한다	52	62	63	72

자료 : Jaide, Hille, 1994 : 68.

동독과 서독 실업자들의 의식은 명백히 특수성을 보인다. 실업자들의 답변은 전체 설문대상자의 답변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독 청소년의 경우에 특히 높은 데 구체적 상황(경제 상태, 개인적인 견해,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들(일의 의미,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 자기신뢰, 성취지향, 직업상의 출세)에도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독 실업자의 경우 이와 반대로 단지 구체적인 상태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그 반면에 일과 직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는 아무런 흠이 없다. 예를 들면 구동독 지역의 실직한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직업에 있어서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동독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일/직업이라는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기본가치를 서독 실업자보다 훨씬 더 많이 유지하고 있으며 또는 덜 문제삼는다.

3) 실업의 결과

(1) 심리적 부담

젊었을때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자기평가 감정을 두드러지게 저하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는 억압적 분위기와 미래에 대한 공포를 불러낼 수 있다. 실업을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은 실업의 지속성과 성별과 실업자비용에 따라 다르다. 확대된 실업은 일반적으로 희망상실과 노동생산성 퇴보, 냉담한 분위기를 증가시킨다(Hermanns, 1991 : 22).

개인에게서 실패의 예견과 결합된 심리적 스트레스는 공격잠제력과 즉각적인 감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직업세계에서의 재분류에 따라 새로운 실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서 누적적인 실업의 사슬이 생긴다. 실업은 생계를 이어가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한걸음씩 한걸음씩 제외되어가는 출발점이다. 실업은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만성적인 정체성 위기를 가져온다. 이 정체성 위기는 정체성 파괴로까지 상승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나치적 분위기에, 또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해당된다. 노동의 상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된다. 개인의 자율권은 실업을 통해 제한된다. 이런 경험은 개인화가 특징인 현재에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한 방식으로 괴롭힌다.

(2) 사회적 접촉의 상실

장기적인 실업과 낮아진 자기평가 감정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의 양식과 범위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접촉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실업자가 금방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작업장에서 가졌던 사회적 접촉의 상실은 개인의 정서발달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교육과 직업적 자질이 낮은 장기적인 실업자의 경우에 사회적 고립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때 실업청소년들은 사회적 접촉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직업 교육에 대한 희망이 감소하고, 다른 실업 청소년들과 만난다는 의욕마저 잃게 된다.

동시에 규칙적인 시간리듬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고 노동과 여가시간의 대립이 긴장을 만들어 내는 반면에, 시간은 변화가 없고 지루한 것이 된다.

사회적 접촉의 상실과 소극적 태도의 증가, 지루함, 시간낭비는 가족에게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실업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가정에서의 마찰은 증가하고 부모의 질책과 훈계는 계속된다. 쇼버가 연구한 20세이하 실업청소년들의 38.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실업자라고 비난을 한다.” 여기서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상당수의 부모들이 아들이나 딸의 상태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한다(Hermanns, 1991).

(3) 실업의 정치적 영향

자격상실, 차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무 전망성, 접촉감소, 실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 특히 이러한 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정치적 영향을 불러 일으킨다. 러시아 사회학자 쇼로킨은 대중실업은 혁명과 저항을 복돋우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테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업에 따른 지속적인 비참화는 정치적 무관심, 에너지 상실, 퇴보, 숙명주의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일 인과관계 분석은 과거에 속하며, 실제적인 결과는 더 구별되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사회 정치적 문맥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실업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Hermanns, 1991 : 23). 정치적 무관심, 존재하는 정당에 대한 희망포기, 정치적 무감각과 회의의 확대(체념테제),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의 방향전환과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반정부테제), 노동자의 정당으로 생각되고 완전고용을 보증하는 정당에 대한 강력한 동일성(동일화 테제), 공적인 삶의 급진화와 극단적 정당과 운동으로 기울기(반체제 테제) 등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와는 달리 오늘날의 청소년 실업은 대중적 비참화의 배경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경제적 안정성의 높은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일반적인 위기분위기는 없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미래가 없다는 생각”은 소수에게만 있고, 전쟁과 생태학적 파멸에 대한 공포보다는 실업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다. 그렇지만 주관적 전망의 상실과 좌절감은 공격잠재력을 일깨울 수도 있다. 확산된 청소년 실업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тезис는, 알려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입증되기는 어렵다.

급진주의와 실업 경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정치과정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정치 경제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누적된다. 다시말하면 의기소침한 경험들은 감정의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집약된 힘으로 폭발하는 수가 있다. 숨어 있는 장기적 흐름은 공개적인 청소년 현상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설명될 수도 있다. 실업청소년들은 그들을 특별히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 세대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

1968년의 네오나치즘적 학생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체제와 권리체제에 대한 유토피아적 요구와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였다. 혁명적 변혁과 계급투쟁에 대한 의욕은 1973년 이래로 뚜렷하게 후퇴했는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때문인 것 같다. 청소년들의 이상주의 사고방식과 현실적인 좌절감이 결합되어, 경제불황과 청소년실업이 청소년들의 저항잠재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민주주의 의식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동독은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1984/85년 서독의 선거에서 30세 이하 실업자들의 34%가 녹색당을, 그리고 20%가 기민당/기사당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실업자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저항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IV-13〉 실업자의 정당 선호도(%)

실업자	체제만족	선호도			
		CDU/CSU	FDP	SPD	녹색당
30세이하	35	20	1	44	34
30세이상	46	27	4	61	8

자료 : Hermanns, 1991 : 27.

또 독일은 1932/33년에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나치당을 지지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 동독청소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좌절을 경험했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의 경험이 이들을 급진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실업에 의해 위협받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파극단적인 분위기는 증가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교육을 받아오던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우파극단적인 잠재력은 증가되고 있으며, 서독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던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된 실업은 폭력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1987년의 Kreuzeberger의 폭동에서도 그곳의 높은(50%) 청소년 실업율이 폭력행위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3. 청소년의 직업의식

청소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업의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소년들의 인생에서 직업이 가지는 의미, 가정과 직업의 관계, 사회와 직업, 교육과 직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1) 직업과 인생

직업생활에서 배제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측정하고자 한다면 직업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 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종교개혁후 직업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루터의 직업개념과 켈빈의 노동윤리를 통하여 직업과 노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평가받았다. 막스 베버는 일상생활의 합리적 생활태도에 끼치는 프로테스탄트적 믿음의 영향을 조사했다.

그러나 현재 프로테스탄트적 노동윤리가 그 실행능력을 상실하고, 독일의 노동자, 특히 청소년들사이에는 70년대부터 “느슨한 노동윤리”가 슬며시 들어와 자리잡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느슨한 노동윤리를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는 없겠다. 괴팅겐 연구소의 청소년 사회연구에서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정체성을 추구할때 직업과 노동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둔다”는 사실과, 이것은 그들의 생활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쾌락적”인 생활형태는 청소년들의 16%만이 두둔한다. 그러나 직업과 노동이 오늘날 청소년들

에게 아주 중요하다면, 작업장의 감소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서의 실패는, 심리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Hermanns, 1991 : 20).

(1) 일의 중요성

동서독 청소년들을 비교할때 직업과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동의한다. 동시에 동독지역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은 그곳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실업에 대한 공포를 준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그들의 개인적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확신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이런 커다란 신뢰잠재력은 신중하게 지지되고 유지되어야겠다.

다음의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Hille, 1993). 동서독 청소년들은 교육, 직업,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와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며, 삶의 목적을 위해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보다 더 단호하게 결정한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도구적, 물질적 근거들은(봉사, 안전성, 상승)서독 청소년들보다 동독 청소년들이, 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자주 언급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동기는 여학생에 의해 더 자주 언급되고, “업적과 성공은 나에게는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은 동독 청소년들이 더 빈번히 언급한다. 직업계획의 실현은 서독에서보다 동독에서 더 비관적으로 평가한다.

독일의 EMNID 연구소는 동서독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1991/92년에 의식조사를 하였다(Jaide, Hille, 1994). 어느 만큼 구동독지역에서 정치적 체제전환이, 무엇보다도 경제적 붕괴와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체제 전환 후의 비교조사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주제들이 조사되었다.

- ① 나머지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일의 중요성과 일반적인 기대 혹은 염려
- ② 직업선택과 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
- ③ 직업상의 성취에 대한 생각
- ④ 학교, 직업훈련 그리고 노동활동에 대한 만족
- ⑤ 실업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과 이에 따른 의식의 모습

우선 조사시점에서 설문대상자의 직업상 처지는, 특히 지금까지 획득한 자격능력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과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 설문들은 그것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다.

〈표 IV-14〉 “당신이 성취하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갖는다는 것은”

(단위 : %)

	서 독	동 독
매우 매우 중요하다	43	55
매우 중요하다	40	34
중요하다	12	9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

자료 : Jaide, Hille, 1994 : 51.

여기서 동서독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직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독 청소년들이 일에 대해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희망이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표 IV-15〉 “나는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다”(-3 부정, +3 긍정)

(단위 : %)

	서 독	동 독
+3/+2/+1	77	81
0	14	13
-1/-2/-3	10	7

자료 : Jaide, Hille, 1994 : 51.

동독인들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한 상대적인 우세는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대한 그들의 다소 낮은 가치평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서 1990/1991년 겨울 라이프치히의 청소년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 “전념할 수 있는 직업상의 업무”라는 문항에 대해 연령 그룹(14~25세)에 따라서 심지어 90~100%(남자), 97~100%(여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직업상의 발전교육도 원했다. 1990년 여름 독일 청소년연구소의 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내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을 원했다 (동독 : 매우 많이 73.7%, 많이 23.6%).

(2) 취업 동기

동독과 서독에서 직업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가치평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IV-16〉

직업선택의 동기

“당신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중답변)

(단위: %)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좋은 수입의 가능성	38	34	45	34
인도적인, 인간적인 노동조건	21	25	18	22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13	21	13	31
안정된 직장	25	25	40	32
독립성	24	25	23	27
나를 개인적으로 만족시키는 업무	40	44	30	43
인생에서 출세하는 것	21	16	29	22
나의 부모의 소망을 고려해서	2	3	2	3
나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3	3	4	4
그 밖의 동기	35	34	25	24

자료 : Jaide, Hille, 1994 : 53.

“나를 개인적으로 만족시키는 업무”라는 동기가 서독 남녀와 동독 여자 청소년의 경우 첫번째 순위에 있다. 이에 반해서 동독 남자의 경우 “좋은 수입의 가능성”과 “안정된 직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동기는 동독여성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흥미롭게도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IV-17〉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동기

“왜 당신은 바로 이 직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다중답변)

(단위: %)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좋은 수입의 가능성	50	40	41	33
인도적인, 인간적인 노동조건	18	20	12	16
안정된 직장	47	40	34	27
독립성	22	21	21	16
나를 개인적으로 만족시키는 업무	33	38	32	38
인생에서 출세하는 것	27	20	23	15
나의 부모의 소망을 고려해서	7	8	7	6
나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4	4	3	2
그 밖의 동기들	6	9	8	11

자료 : Jaide, Hille, 1994 : 54.

동독 여자 청소년의 경우 희망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는 “독립성”과 “출세하는 것”의 동기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서독인의 경우 “안정성”과 “수입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결정에서는 훨씬 더 높은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동독과 서독간의 동기구조가 전체적으로 보아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각 개별 동기에서의 구체적인 차이는 현실 상황에 직면하여, 특히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노동시장에서의 가능성과 어려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안정에 대한 필요와 관련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동독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성취와 성공에 대한 태도

일과 직업에서의 성취에 대한 생각들도 중요하다. 1983년 청소년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1986년 EMNID 설문조사에서도 서독 청소년의 경우 문항 “가”에 동의한 비율이 77%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독이 80%, 동독이 88%로 늘었다.

문항 “나”에 반대한 비율은 동서독이 각각 60%, 47%에 달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서도 몇 년전부터 관찰되어온 미결정상태인 중간으로의 이동과정이다. 일의 중요성에 관해 먼저 조사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동독 청소년들은 성취 준비태세가 서독 청소년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IV-18〉

성취지향적인 태도

가 : “내겐 성취와 성공은 인생의 일부를 이룬다”

나 : “나는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기 때문이다”

(단위 : %)

	서 독		동 독	
	가	나	가	나
+3/+2 (동의)	59	14	75	11
+1	21	13	13	8
0	15	25	9	20
-1	3	18	1	13
-2/-3(거부)	2	29	1	47

자료 : Jaide, Hille, 1994 : 55.

2) 직업과 가정

오늘날 젊은 가족의 주요문제는 결혼, 모성애, 가족생활과 직업의 결합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들 사이에 전형적인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통적 태도는 서독 남학생에 의해 대표되는데, 그 태도는 여성이 가정생활을 위해 직업활동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에서 표명된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직업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데 동서독 여학생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원인이 되겠다. 동독 여학생들은 이런 경향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데, 통일되기 전의 대략 90%에 다다르는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이 설명해 준다.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부모는 가까운 인물, 그리고 신뢰하는 인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독보다 서독에서 더 빈번히 동년배 친구들이 두 번째 자리에 언급된다.

상대적으로 성장 초기의 지속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는 부모 자식간의 강력한 친근감은 동서독 청소년들에게서 다같이 강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긍정적 가치평가는 동서독 비교와 시대비교에서 안정적이다. 오늘날의 동서독 젊은 여학생들은 가족과 직업의 결합을 희망한다. 취업하지 않는 전업가정주부, 결혼, 가족은 젊은 여성에게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동독의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을 새로운 독일의 정치사회 체제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정과 사회라는 두 생활영역의 원만한 연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유보시켰는데 그안에서 갈등잠재력이 자랐으며 그 갈등잠재력의 정치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겠다.

〈표 IV-19〉

가정과 직업의 중요성

“당신의 직업에 대해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위 : %)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가정이 직업보다 중요하다	44	50	35	43
가정은 똑같이 중요하다	49	45	62	55
가정이 덜 중요하다	5	3	3	2

자료 : Jaide, Hille, 1994 : 52.

직업-가정-자유시간-정치 영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상호 보완적인 혹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서독 청소년들은 직업과 자유시간을 상호 경쟁적인 생활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양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간의, 그리고 남녀 청소년들간의 비교는 오랜 기간 경험적 조사에서 입증된 차이를 새롭게 나타내고 있다.

서독 여자들의 가정에 대한 약간 높은 선호는 높은 생활수준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독인들은 직업과 가정을 동급에 놓는 경향이 더 많다. 동독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직업을 통한 권리의 평등이 이 경우 뚜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구 동독에서는 여성은 직업을 가지거나 직업훈련과 사회교육에 전념하는데서 결혼때문에 방해받아서 안된다고 하였다(동독 가정법 조항 제15조).

특히 동독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정과의 관계에서 직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출산 단계를 위한 우선적인 해결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0〉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려면 여성은 직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단위 : %)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동의한다	23	19	14	8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49	50	51	40
동의하지 않는다	27	31	35	51

자료 : Jaide, Hille, 1994 : 52.

동독 여자 청소년들은 평생동안 계속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을 확실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한 찬성은 대다수의 성인여성도 표시하고 있다. 이경우 지금까지의 직업은 가정과 공식적으로 대립되어 있지 않았다. 옛 동독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인 활동을 모성과 일치할 수 있도록 “남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고 했다(가정법 10조).

또한 서독 젊은 성인과 비교해서 볼때 이른 초혼연령과 이른 가정형성은 지속적인 직업활동에 대한 희망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표 IV-21〉

동서독 남녀의 결혼 연령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989	28	25.5	25.3	23.2

자료 : Jaide, Hille, 1994 : 53.

3) 직업과 사회

예상한 대로 이 조사에 참여한 동독 청소년들 중에는 이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독 청소년들 중에는 학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훈련과 직업에 대한 생각은 청소년들이 이들 생활영역에 일반적으로 내리는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일에 대한 평가는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동독 청소년들은 변혁 이후 새롭고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자신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표 IV-22〉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서독	동독
학교/전문대학 재학중	1,357	572
직업훈련중	480	291
직업을 갖고 있음	906	759
실직한 상태	88	172
연방국방군복무/사회봉사군무중	71	34
직업활동하지 않음/주부	96	50
나머지/그밖의 응답	117	14
	3,115	1,892

자료 : 콘라드-아테나우어재단연구소, 문서번호 9104 (Jaide, Hille, 1994 : 49 에서 재인용).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격변기에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구조적인 변화에 부딪친다. 독일의 정치적 통일을 통해서 상실한 안정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내다볼 때 느끼는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990년과 1992년에 이런 영향을 설명하려고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표 IV-23〉 직업적 이상충족에 대한 주관적 확신 수준(작센주)
 “당신은 자신의 직업적 개념이 나중에 충족되리라고 확신하는가?”

1 (아니오) - 5 (예)

	1990		1992	
	평균값	응답자수	평균값	응답자수
1학년				
남성	4.66	332	4.43	285
여성	4.14	317	4.27	230
2학년				
남성	4.51	201	4.30	371
여성	4.07	298	4.10	258

자료 : Palentien, 1993 : 6.

독일이 통일된 뒤에 남학생들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불확실성은 직업교육이 끝나는 2학년이 되면 더 증가한다. 이것은 1990년과 1992년에 다 적용된다. 학생들의 확실성은 실제 노동시장이 주는 기회에 기대지 않고 막연한 희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장래에 대해 더 불확실하게 느낀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더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 같다.

〈표 IV-24〉 얻고 싶은 직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
 “당신이 얻고 싶은 직업활동에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까?”

1(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 7(예, 완전히 믿습니다)

	1990		1992	
	평균값	응답자수	평균값	응답자수
1학년				
남성	5.55	333	5.62	286
여성	4.88	316	4.97	233
2학년				
남성	5.25	202	5.32	373
여성	4.53	298	4.74	260

자료 : Palentien, 1993 : 7.

1990년보다 1992년에 동독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직업적 희망은 더 불확실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직업적 미래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별에 특수한 유사성과 나란히 두번째 유사성이 있으니, 젊은이들이 어른들보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사실이다.

2년전의 청소년들에 비해 1992년의 청소년들은 미래가 있는 직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 통일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높은” 계획은 1992년에는 포기하고, 그에 비해 “낮은” 계획에 대해 더 기대하게 되었다.

1975년과 1986년의 EMNID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서독 청소년들은,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은 누구나 다 출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매우 옳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옳다고(1975 : 59%, 1986 : 50%) 생각했다. 1992년에는 이런 생각이 증가된 셈이다. 이 질문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5〉

직업적 성공기회

두명의 청소년이 미래의 직업적 성공기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소년이 말한다;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다.” 다른 소년이 이와 반대로 주장한다; “자신의 성공은 결국에는 우연과 좋은 인간관계가 결정한다.” 어떤 견해를 당신은 따르겠습니까?

(단위 : %)

	서독	동독
노력하는 사람은...	70	77
자신의 성공은.....	24	21

자료 : Jaide, Hille, 1994 : 65.

다음 질문은 노동체계가 성과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동독 청소년들에게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가 되겠다.

〈표 IV-26〉

시장경제하에서의 성과와 보상

“우리 경제질서(시장경제)는 더 많이 성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으며, 더 적게 성취하는 사람은 더 적게 획득하게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매우 정상적이다			
서독		동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82	79	83	79

자료 : Jaide, Hille, 1994 : 56.

동서독 청소년들이 큰 차이없이, 또 남녀간에도 큰 차이없이, 시장경제의 보상체계를 긍정하였다.

성취지향에 대한 진술의 정확한 해석은 전체 사회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IV-27〉

사회적 목표의 중요성

		금 정 비 율		우 선 순 위	
	%	남자 %	여자 %	남자	여자
당신은 새로운 생각과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열려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체	27				
서독		27	29	2.	2.
동독		22	21	4.	4.
당신은 시민이 모든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체	29				
서독		30	30	1.	1.
동독		23	30	3.	1.
당신은 성취를 통해 출세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체	19				
서독		21	14	4.	4.
동독		28	23	1.	3.
당신은 정의와 법이 존경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체	23				
서독		21	24	3.	3.
동독		26	25	2.	2.

자료 : Jaide, Hille, 1994 : 56.

여기서 동독 청소년들이 직업적 성과에 대해 내린 판단이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동독 청소년들의 성별차이이다. 시민적 자유가 소녀들에게는 성취를 통한 성공보다 더 중요하며, 소년들에게는 그 반대이다.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의 권리가 소녀들에게는 직업생활에서의 대등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일과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보충적인 자료를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은 자신과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에서 문제되는 것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냐는 것이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는 양자택일 판단은 일곱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표 IV-28〉 동독과 서독 청소년들의 상호 평가 (단위 : %)

	부지런하다 1/2/3		4		게으르다 5/6/7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독지역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서독인들에 의해서	58	57	28	30	13	12
동독인들에 의해서	55	49	37	42	7	7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서독인들에 의해서	40	40	33	34	24	22
동독인들에 의해서	60	60	31	35	9	5

자료 : Jaide, Hille, 1994 : 57.

특히 여자들이 중간위치에 많은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보편화된 판단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을 입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근면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동독인들은 이와 반대로 자신들을 서독인들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여기고 있다.

ZIJ의 1968년과 1990년의 비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근면하다”는 고정관념이 1968년에는 양쪽 주민들에게서 거의 같은 정도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서독인들이 88%로 56%의 동독인들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동독 청소년들의 자기네 주민에 대한 주목할 만한 거리감이 나타났다 (Jaide, Hille 1994 : 57).

인생행로, 특히 직업에 있어서 다가올 기회와 위험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술에 대한 평가이다.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일반적인 불만족과 개인적인 처지에 대한 염려를 나타낸다. 그리고 동독 청소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도 같이 나타낸다.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술적 진보에 대해 표명된 신뢰는 양쪽 청소년층의 보편적인 만족과 낙관주의와 관계된다.

〈표 IV-29〉

기술적인 진보와 그 결과

(단위 : %)

	서 독	동 독
“기술적인 진보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평가(+3/+2/+1)는 다음과 같은 찬성을 얻고 있다		
남성전체	34	26
여성전체	44	32
15~17세의 남성	38	32
18~25세의 여성	38	28

이와 반대로 “기술적인 진보는 생활수준을 보장한다”(+3/+2/+1)

남성전체	60	64
여성전체	57	57
15~17세의 남성	57	57
18~25세의 여성	59	62

자료 : Jaide, Hille, 1994 : 62.

4) 직업과 교육

이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견해는 학교생활과 직업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얻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경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의 나이가 든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보다 구동독체제가 망하는 모습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양쪽 모두 1990/1991년의 변혁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독 청소년들은 이와 반대로 평상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가벼운 변화만 경험하였다.

학교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 “학교/대학교는 재미있다...” 이러한 질문이 학교생활에 관한 다른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표 IV-30〉

학교/대학교에 대한 만족

(단위 : %)

	재미있다	그저 그렇다	견디기 어렵다
서 독	51	41	7
동 독	37	56	6

자료 : Jaide, Hille, 1994 : 59.

그것들을 다른 변수에 관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재미있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더 나은 적응태세나 통합능력에 기인하거나, 성공지향에 기인하는 것 같다.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판단이 우세한데, 그들 학교/대학교의 현재 상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들은 다른 생활영역의 분위기나 만족도와 관계되는 것 같다.

〈표 IV-31〉

심적상태와 학교에서의 경험

(단위 : %)

	재미있다		그저 그렇다		견디기 어렵다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생활형편에 만족한다	54	50	40	54	5	5
미래를 확신한다	54	41	39	54	6	3
경제발전을 낙관적으로 본다	55	37	38	57	6	6
실직을 걱정하지 않는다	56	45	37	48	6	5
민주주의에 만족한다	61	49	34	46	5	3

자료 : Jaide, Hille, 1994 : 59.

〈표 IV-32〉

생활형편과 교육수준

(단위 : %)

		만 족	어느정도 만족	절반쯤 만족	오히려 불만족	불만족
국민학교	서독	30	36	21	7	3
	동독	29	43	20	6	1
견습공	서독	44	37	14	2	1
	동독	26	42	24	6	2
김나지움	서독	45	36	14	2	2
	동독	28	43	24	4	1
전문대학교	서독	40	37	15	7	—
	동독	27	45	24	3	—

자료 : Jaide, Hille, 1994 : 60.

보통정도로 학교에 만족하는 동독인들은 다른 생활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만족을 나타낸다. 현재의 개인적인 생활형편에 대한 만족은 서독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상승하고 있지만, 동독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노동생활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서도 서독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견습공의 60% 이상이 “일/직업훈련이 재미있다”는 문항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은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재미있다”는 사람이 더 적다. 이것은 동독의 직업훈련 과정과 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표 IV-33〉

직업훈련과 일에 대한 평가

(단위 : %)

	재미있다	그저 그렇다	견디기 어렵다
서독전체	63	31	3
동독전체	53	40	5
직업훈련에서			
서독	70	23	3
동독	45	46	3
직업에서			
서독	60	35	3
동독	55	38	5

자료 : Jaide, Hille, 1994 : 60.

동독 청소년의 학교와 직업에 대한 더 큰 불만족은 체제전환 후의 새로운 마찰뿐만 아니라, 과거 체제에서 나온 “오래된 부담”과 비융통적인 직업전환과 좁은 범위내에서의 직업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Hille, 1993).

서독 여자 청소년은 노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오히려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

〈표 IV-34〉

학교와 노동의 만족에 대한 성별 차이

(단위 : %)

	재미있다	그저 그렇다	견디기 어렵다
전체여자	63	31	4
서독	65	29	3
동독	54	37	6
전체남자	59	35	3
서독	61	33	3
동독	54	41	6

자료 : Jaide, Hille, 1994 : 61.

서독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직업훈련과 일에 대한 큰 만족은 1989년 통일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동독지역의 경우 월등하게 낮은 만족도는 그곳의 학교, 직업훈련, 노동의 현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부모집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일과 직업훈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표 IV-35〉

부모집 동거와 일의 만족도

(단위 : %)

	재미있다	그저 그렇다	견디기 어렵다
부모집에 거주			
전체	65	29	3
서독	68	25	3
동독	54	40	4
부모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체	57	38	4
서독	58	37	4
동독	53	39	6

자료 : Jaide, Hille, 1994 : 61.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이 일에 대한 생각 혹은 새로운 체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넓은 빈 공간이 자리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평가는 서독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76%가 나쁘다/매우 나쁘다). 이것은 1990년 6월과 1990년 9월의 ZIJ/Leipzig의 설문조사와도 일치한다(Jaide, Hille, 1994 : 61).

그와 반대로 동독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관련한 동독 청소년들의 낙관주의는 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68%가 장래의 경제적 발전이 매우 좋다/좋다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높은 신뢰잠재성이다.

경제상태의 긍정적인 평가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동반하고 나타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높은 신뢰는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 실업 대책

동독지역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당면하여, 통일된 독일정부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정책으로 많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1) 노동법

동독노동법 제55조는 통독 후에도 계속 유효하여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해고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은 최소한 2주일이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해고 예고기간을 적용해 오다가 1990년 5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같은 해고 예고기간을 적용하게 되었다(통일대비 특별정책연수단, 1992 : 207-208).

동독에서 적용하던 최단 휴가기간은 계속 유효한데, 1년에 20일이다.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이 기간보다 긴 최단 휴가기간은 1991년 6월말까지만 유효했다.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했다. 동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일요일과 공휴일 규정은 1993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후엔 서독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야간에 빵을 굽거나 배달하는 일과 공사에서 야간 노동과 부녀자 노동은 서독법에 따라 당장 금지되었다. 동독의 생산설비는 1991년까지 옛 동독법이 적용되지만 설비의 기술상태에 대한 안전검사나 위험방지를 위한 변경은 감독관청이 서독법규의 더 진보적인 조항의 적용을 당장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보장제도

원칙적으로 통일 후에는 서독의 고용촉진법이 동독지역까지 적용되지만, 몇개의 특별 규정은 통일 후에도 동독규정이 계속 유효하다. 1990년 5월의 국가조약에 포함된 단축조업수당에 관한 특별규정은 계속 적용되었다(통일대비 특별정책연수단, 1992 : 209-213). 단축조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노동행정부서에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기여금을 지불해 주었다. 직장조성대책이란 취직하기 어려운 실업자가 일정기간에 공익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방고용청이 자금을 대주는 것이다.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체 등이 직장조성대책에 참여하였다. 조기퇴직 규정은 새법이 적용되어 55세 이상의 여자와 57세 이상의 남자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5년 동안 준양로연금을 받았다. 1991년 이후에는 남녀 구별없이 57세 이상 3년이 적용되었다. 준양로연금은 2년 8개월간은 연방고용청이 자금을 부담하고, 남은 4개월간은 연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기한부로 대여하는 것을 규정한 근로자대여법과 불법노동방지법은 동독 주들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재해보험금부법규는 동독법이 계속 적용되다가 1992년 1월 1일부터는 서독법이 적용되었다.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규정, 노동재해시의 구조에 관한 규정, 사용자면책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법이 동독에 적용되었다.

동독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의 급부에 대한 사회보장추가지급금」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연금수령자에게만 해당되고, 사회보장추가지급금은 연금이 아니므로 길어야 1995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적용될 것이다.

단축조업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한 만큼 실업수당을 받는데, 규정노동시간의 절반이상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단축조업자의 57%(1991.6)나 되며, 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가 약 200만이었는데 새로운 행정기관에 인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6개월(50세 이하)내지 9개월(50세 이상)동안 최종봉급의 70%를 받았다. 이들은 대개 경과기관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직되었다. 1991년 현재 동독의 공공기관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약 140만 명이 되는데 서독지역 공무원 봉급의 60% 밖에 못 받았다. 동독지역에는 연금받는 사람이 약 60만 명 있는데 1991년 7월부터 한달 평균 600마르크를 받는다. 45년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을 낸 사람은 동독지역에서는 평균 773마르크, 서독지역에서는 1,751 마르크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동독지역의 실질임금은 통일후에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물가는 많이 올

랐지만 명목임금이 더 많이 올랐고 또 서독에서 막대한 사회보장기금이 동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자가 2명인 4인가족의 한달 평균 임금은 3,691 마르크가 되어 89년보다 28%가 늘었고, 1명이 취업하고 1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4인 가족은 3,436 마르크가 되어 19%가 는 셈이다.

독일연방정부는 동독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독에 재정지원을 하여 서독의 각종 사회보장체계를 동독지역으로 확대시켰다. 그 주요내용에는 의료보험기관 보조, 연금액 인상, 무주택자에게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최저 생계수준 이하의 빈곤계층에 부조금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옛 동독에서 경제와 행정의 획기적 변혁은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공공부문에서 옛 동독의 5개 주에 보낸 재정지원은 1990년 670억 마르크, 1991년에 1400억 마르크, 1992년에 1670억 마르크에 달했다(슈미트, 1993 : 49-56). 라인란드 베스팔렌경제연구소(RWI)는 최근의 경기보고서에서 1991년에는 통일비용 부담의 50%, 1992년에는 40% 이상이 실업보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연방정부는 세금을 올렸다.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독일 정부는 7.5%의 임금, 소득, 법인에 대한 추가세금을 징수하였다. 국민총조세율(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 부담의 비)이 1990년에는 약 2%였는데 1992년에는 42.5%로 대폭 올랐다.

동독의 경제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지방자치정부와 연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옛 동독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1990년에 1240억 마르크, 1991년에 1225억 마르크였고, 1992년에는 약 1125억 마르크가 되었다. 독일의 공공부채는 1989년의 1조 300억 마르크에서 1995년에는 배로 증가하여 2조 2500억 마르크가 될 것이다.

동독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은 독일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2년 이후 독일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흑자를 보여주었고, 통일 1년 전 흑자수준은 1080억 마르크였다. 1990년에 이미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수입때문에 흑자는 775억 마르크로 줄어들었다. 1991년에는 1981년 이래 처음으로 340억 마르크의 무역 적자를 보았다. 약 13%의 수입증가율이 적자증대를 촉진했다. 수입증가는 옛 동독지역 주민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3) 적극적 실업대책

실업대책으로서의 조업단축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재교육방안과 고용창출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기업체의 협력을 얻어 추진한 고용창출 조치로 1991년에 28만명을 계획하여 8월말 현재 26만명을 취업시켰다. 또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전직훈련과 자질 향상훈련은 1991년에 55만 명을 계획하여 8월말 현재 53만 명을 훈련시켰다.

청소년실업자 수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대학에 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여기에는 동독대학체제의 개혁이 전제된다.

연방정부가 실업대책을 위해 쓴 돈은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연방노동청은 1991년에 동독을 위해 299억 마르크를 쓰고 그 다음 해에는 54%를 늘려서 460억을 썼다. 연방노동청이 1992년에 동독에서 얻은 돈은 33억 밖에 안 되어 그 해에 지출한 460억 중 427억 마르크는 적자였다. 1991년과 그 다음해의 지출내용을 비교하면, 단축노동자 지원금은 100억에서 27억으로 상당히 준 반면, 직업 교육지원, 고용창출조치, 연금지출, 실업보험은 상당히 늘었다.

〈표 IV-36〉

연방 노동청의 수입과 지출 내역

(단위 : 십억DM)

내역	1991	1992
동독지역에서의 수입	4.6	3.3
동독지역에서의 지출	29.9	46.0
(그중) 직업 교육 지원	4.8	11.4
고용 창출 조치(ABM)	3.1	7.8
단축 노동자 지원	10.1	2.7
조기연금 및 연령초과지불	2.7	9.3
실직자 보험	7.8	11.8
동독부흥을 위한 공동지출 ^{A)}	2.5	3.0
동독을 위한 재정결산 ^{B)}	25.3	42.7
서독 지역의 지출	42.1	47.5
지출 총계	71.9	93.5

주 : A) 연방 재정의 재원 중에서.

B) 서독지역으로부터 이전을 통한 재정.

자료 : 독일연방 노동청, 1992(지버트, 1993 : 142).

1992년이 되면서 동독기업체에 대한 투자기대가 증가되면서, 통일직후부터 급속도로 떨어지던 동독 공업부문의 생산량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멈춘 것 같다. 특히 건설경기는 2/4분기에는 1/4분기보다 56%나 증가된 발주가 있었다. 가공업분야도 IFO연구소의 경기테스트에서 장래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청사업도 잘 진척되어 매일 평균 20개의 국유기업이 민간에게 팔려서 1991년말 현재 모두 4,000개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앞으로 몇년 동안 700억 마르크의 투자를 약속받아서, 약 58만명의 일자리가 확보된 셈이다. 1992년 중반까지 113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156개의 동독기업을 샀다(통일대비 특별정책연수단, 1992 : 217, 220).

동독지역에 투자를 촉진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쓴 결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1990년에 등록된 영업허가가 47만건이나 되었다.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실업자도 많이 줄었는데, 직장조성사업으로 한해 동안 26만명이 취직하고, 50만명이 직업교육을 받아서, 1990년 이후 2년간 약 100만명이 취직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인과 구직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에 직업훈련을 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만큼 직업훈련장이 확장되었다.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동독지역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애쓰는데, 도로건설, 통신시설 개선, 환경보호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연방채신청은 동독통신망의 확충에 1997년까지 550억 마르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어 동독의 단축 조업자는 1991년 하반기부터 줄고, 실업자는 1991년 초부터 줄기 시작했다. 이런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고용청, 신탁청 같은 기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통일이전의 동서독일과 남북한의 실정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의식문제, 교육문제와 실업문제는 비슷하게 발생하리라 짐작한다. 두개의 다른 사회체제가 통합되자면 교육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고, 사회변화의 혼란속에서 의식문제와 과도기적 실업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다른 점을 파악하고 남한의 교육문제와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한편, 북한의 교육과 노동시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의식과 교육과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청소년 폭력 문제에서 우리는 독일같은 인종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가난과 젊음에 근거한 폭력은 지금 당장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교육제도 개편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혼란과 사회변혁속의 과도기적 실업이 많은 상태에서 청소년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란 중요한 갈등요소가 빠졌으니 독일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독일의 청소년의식, 교육문제, 실업문제, 폭력문제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 청소년 의식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성장한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이 사고방식과 생활태도가 상당히 차이나서 통일후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정치적으로 통일되기 바로전에 실시된 청소년들의 의식조사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것처럼, 동서독청소년들의 인생관, 정치경제관, 사회문화관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했고, 특히 상대편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된다. 최근에 북한에서 귀순한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남쪽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때문에 생활에 큰 변화를 겪은 쪽은 동독청소년들이므로 주로 그들의 의식상태를 설명하자면, 현재 동독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에 대해 크게 불평하면서도 통일된 독일의 장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것은 사실상 독일통일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동독국민들이 서독의 발달된 자본주의와 거기에 따르는 선진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람들이 남한정부에 대해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고 그밖의 민생문제를 잘 해결하여, 남한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겠다.

통일후에 동독청소년들이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여행의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북한청소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크게 자랑하는 자유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여야 겠다. 반면에 통일후에 동독청소년들을 제일 당황시키는 것이 취업자와 실업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의 인간불평등이라고 하므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기둥 중의 하나인 사회평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문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교육에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문제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가진 각종 자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학업 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교과서 공급, 교사충원, 새로운 교육방식, 전학, 진학 등에 관한 문제였다.

통일 직후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존속과 일부 법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과도체제는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았다. 두 이질적인 체제가 통합할 경우 과도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간은 짧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통일 후 학부모들의 관심은 자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는 일이었으나, 동독지역의 학교제도 개편은 이같은 체제 적응 노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는 체제통합을 위한 장기적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독 후 동독지역 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은 낡은 교육시설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의

불비, 맑스-레닌주의에 치우쳤던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저하, 교육 종사자들의 의식구조의 문제, 고등 교육기관과 연구개발 체제의 낙후 등이었다.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교육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교육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하여 두 교육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각 체제의 교육제도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학생과 교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주때문에 발생하는 학생과 교원의 이동에 대비하는 교육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한의 유치원 교육은 대체로 민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북한은 취학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남한은 취학전 교육을 강화하여 공교육화하는 방향에서 개편되어야겠다.

북한은 유치원부터 인민학교 4년을 거쳐 고등중학교 6년까지 11년의 무상의무교육제이다. 남한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학교 의무교육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무상의무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학교 단계를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초등교육은 4년으로서 남한의 6년에 비해 2년이 짧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고 북한의 초등교육은 1년 더 연장함으로써 보통교육의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는 상호간의 이질적인 체제를 우선 이해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북한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단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하겠다. 특히 자기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통합의 방향은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뛰어넘는 더 발전된 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3. 폭력 문제

독일의 청소년 폭력문제는 통일이전에도 있었지만 통일이란 대변혁속에서 증가되어 심각해진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변화속에서 일부 동독 청소년들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문제의 해결이 청소년 비행과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독경제의 대혼란이 대량실업을 낳았고 그 중에서 청소년 실업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빠지기 쉬운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동독경제의 회복과 청소년실업의 감소가 비행과 폭력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될 때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교육문제와 청소년실업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간접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남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문제도 가볍지 않고, 통일이란 대변혁속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통일이 된 다음의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남한의 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하므로, 독일의 여러가지 청소년사업과 사법적 지원제도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 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체에는 “청소년여가센터”, “청소년보호안내소”, “청소년과가족복지국”등이 있다. 지역사회기관에서는 청소년집단폭력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여가센터”를 통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센터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음악, 자부심, 운동에 관한 요구를 채워준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청소년 집단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한다.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폭력에 익숙해진 행위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프로그램의 실행이며, 외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만날 수 있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공간은 청소년기의 특수한 활동의욕과 모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그들이 사용할 공간을 장식하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경찰서에 붙잡혀 온 청소년들중에 부모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폭넓은 상담과 도움을 주는게 필요하다. “청소년보호 안내소”는 비관료주의적이고 편한 분

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다.

“청소년과가족복지국”은 난폭한 청소년들의 충동을 처리하고, 직접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폭력사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비 독일인 가족과 청소년들이 독일사회에 잘 통합하도록 여가활동, 청소년안 내사업,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지원, 같은 민족집단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폭력행위가 불법이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비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생활조건과 동기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한 사회사업의 효과를 조사하게 했다. 조사결과 청소년집단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친구찾기, 소속감, 인정받기와 안전감이었다. 청소년사회사업은 가족기능의 대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두 민족집단의 갈등속에서 어느 한쪽에도 분명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상태, 자기자신의 생애를 계획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느낌, 민족적으로 차별받아 본 구체적 경험 등이 폭력적인 집단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 같다.

(2) 사법기관의 지원

1990년 2월 청소년 집단폭력을 담당할 특별반이 조직되었는데, 4명의 형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맡았다. 집단폭력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과 사후처리, 경찰서 내외에 집단폭력에 관한 상황설명과 보고, 청소년복지기관, 학교, 소년법정, 검찰청과 접촉하여 공동노력하도록 조정, 경찰단속 또는 다른 기관과 합동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대책 모색, 베를린시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의 청소년담당자들을 지휘하여 집단폭력의 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부처 상호간의 공동작업을 계획 등이다. 지방 경찰청 범죄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조절하여 청소년집단이나 개인이 행한 모든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참모집단과 하나의 담당책임자가 모두 관장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안에 청소년 집단폭력에 관한 최신 정보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경찰청밖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보교환모임이 있을 때는 특히 교장, 선생, 학부모들이 만날 때는 경찰관이 꼭 참석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집단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눈 결과, “블랙팬서”집단과 “36소년들” 집단사이에 평화협상을 열게했다.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법적절차에는 소년법정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영장발부나 소년원 수감을 피할 수 있을 때는 경찰의 요청으로 소년법정이 법적절차의 초기단계에 관여하는 수도 있다. 소년법정의 중요 역할은 비행자

를 체포하거나 구금해서 자유를 뺏기보다는 법적 처리과정에서 적합한 사회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범죄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성장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므로 늘 공식적 사법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더 적합할 때가 많다. 교육적으로 봐서 대체절차가 바람직한 사건은 이 방법이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범죄수사국, 소년법정, 청소년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 대체절차는 청소년 비행자에게만 적용되고, 청소년 비행자일 경우 이 절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교화에 있다. 한 청소년이 지하철에 페인트를 뿌려 낙서를 했다면, 그에게 지하철 청소를 시킨다면 자기가 한 잘못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처를 준 청소년은 병원에서 다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을 것이다. 양로원에서 일하게 된 청소년은 자기가 약한 노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9년 4월부터 베를린시 상원 청소년 가족국과 사법국은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을 함께 교육시키는 일을 시작했다.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이 일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1990년 5월에 상원법사위는 베를린시 지방검찰청과 검사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4. 실업 문제

독일통일과정에서 생긴 청소년 실업문제는, 통일 후 독일경제 특히 동독지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자 증가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청소년실업문제의 해결은 동독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으며,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통일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혼란과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비하자면, 독일이 동서독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다고 지적되는 몇가지 실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슈미트, 1994 : 47).

첫째, 동독마르크화를 서독마르크화와 1대 1로 교환해 주어 동독마르크화를 실제로는 약 3배로 평가절상하였다. 이것 때문에, 가격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다면 독일과 유럽

공동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견딜만한 제품을 생산하던 동독기업들의 경쟁력이 똑 떨어졌다.

둘째, 동독의 “인민소유”기업들을 민영화할 신탁관리청의 조직구조와 임무가 잘못 되었다. 신탁관리청은 그 활동에 대해 어떤 입법행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시민들의 장래가 걸리고 독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무책임하게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기관은 동독 주정부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민소유”기업의 민영화와 동독경제구조의 조정을 위해 많은 돈을 취급하는데, 1994년 말까지 3천억 마르크가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연방정부에 큰 부담을 준다.

셋째, 통일조약에서 통일이전의 동독 사유재산권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보상이전에 반환”이란 원칙은 잘못 되었다. 1993년 현재 240만 건의 소유권 반환신청이 있었는데 해결된 것은 10분의 1밖에 안된다. 이 원칙은, 동독의 주택점유자들에게 언제 거리로 쫓겨날 지 모른다는 불안을 주어서, 주택의 수리나 신규투자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원칙은 동서독 민족을 분열시키고, 동독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방해한다.

넷째, 동독의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과 독일연방정부는 통일이후 1992년까지 3번에 걸쳐 동독임금을 평균 1,170마르크에서 2,090마르크로 인상하였다. 이 조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득증가를 의미했지만,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게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는 이런 실수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 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도 민영화 대상기업의 존속여부를 너무 지나치게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이 파산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직업전환이나 직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하게되면 계획경제하의 만성적 물자부족때문에 억제되었던 북한주민들의 수요욕구가 남한상품에 대한 실물 선호경향으로 일시에 폭발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기업이 파산되어 대량실업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경제적 회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가 일시에 흡수통합되는 형태의 경제통합보다는 북한경제체제가 자체적인 체제전환을 모색한 후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경제성장이 가시화되었을 때 경제

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본방향은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로 먼저 전환하여, 경제부문 전체에 걸쳐 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경제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된 이후에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 결혼한 여성들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탁아문제는 북한에서는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으니,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남한의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하여 탁아소를 더 설립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상단, 김영준, 교육과정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1987.
- 김영식, 학제의 발전방향, 교육개혁심의회, 1987.
- 김태완 외, 한국 중국 독일의 교육통합정책에 관한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91.
- 김형운 외, 독일통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독일정부, “통일조약(1990.8.31)”, pp. 155-187, 박재윤 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 박재윤, 백성준, 독일의 교육 통합, 1992.
- 뵘, 위르겐(이학로 역). 헤이 오씨 안녕 배씨, 푸른나무, 1994.
- 서정화, 주요국가의 교육행정 제도, 한국교육개발원, 1987.
- 슈미트, 헬무트(박성조 역), 이건 아니다, 전예원, 1993.
- 슈미트, 헬무트 외(허선 역), 이웃에서 동반자로, 매일경제신문사, 1994.
- 신세호,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 주독한국대사관, 독일통일 2주년 중간결산, 1992.
- 지버트, 호르스트(허선 역),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 을유문화사, 1993.
- 최희선,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 운영체제, 성원사, 1991.
-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독일통합 실태연구, 통일원, 1992.
- Deutsches Jugendinstitut(독일청소년연구소),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Diepgen, Eberhard und Thomas Krüger, “Report on by Youth Group Vilence in Berlin”, Berlin, 1992. 5.
-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Basic and Structural Data*, 1992/93.
- Friedrich, Walter, “Einstellung zu Ausländern bei ostdeutschen Jugendlichen, Autoritäre Pers nlichkeit’ als Stereotyp”(동독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입장. 상투적인 말로서 ‘권위적인 개인성’), pp.189-199, in Hans-Uwe Otto,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 단주의적 폭력) , Leske + Budrich, 1993.

- Förster, Peter und Wilfried Schubarth, “Politische Einstellung und Grundpositionen Jugendlicher in Ostdeutschland”(동독청소년들의 정치적 입장과 기본태도), pp. 3-15,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시대), 1992. 9.
- Gille, Martina, “Lebensziele und Politikvorstellungen von Jugendlichen in Ost und West,”(동서독 청소년들의 생활목적과 정치이해),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Hermanns, Manfred, “Auswirkung der Jugendarbeitslosigkeit”(청소년 실업의 결과), pp.20-29,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시대), 1991.6.
- Hille, Barbara “Lebenssituation und Lebensperspektiven Jugendlicher im vereinten Deutschland”(통일된 독일 청소년들의 생활상황과 전망), pp.14 - 20,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사회), 1993.6.
- Hoffmann-Lange, Ursula, “Politische Zufriedenheit und die Legitimität des Politischen Systems”(정치적 만족과 정치체계의 합법성), pp. 88-99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Hofmann, Walter, “Annäherung an Jugendliche Lebensformen”(청소년 생활양식에 접근), pp. 54-67, in 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실증적 심리연구소), *Die Selbstbewusste Jugend*(자각한 청소년), Leske + Budrich, 1992.
- Jaide, Walter und Barbara Hille, “Jugend und Beruf”(청소년과 직업), pp. 49-71, in Veen, Hans-Joachim, u.a., *Eine Jugend in Deutschland?*(독일의 청소년), Leske + Budrich, 1992.
- Jaide, Walter, “Dimensionen der Lebenden Grundstimmungen Bei Jugendlichen”, pp. 13-37, in, Veen, Hans-Joachim, u.a., *Eine Jugend in Deutschland?*(독일의 청소년), Leske + Budrich, 1994.
- Kühn, Horst, “Jugendgewalt und Rechtsextremismus in Brandenburg”(부란덴부르크의 청소년 폭력과 우파극단주의), pp. 267-266, in Hans-Uwe Otto,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단주의적 폭력), Leske + Budrich, 1993.
- Kühnel, Wolfgang, “Gewalt durch Jugendliche im Osten Deutschlands. Versuch

- einer Ursachen-und Bedingungsanalyse”(동독 청소년들의 폭력. 원인파 조건 분석 시도), pp. 237-246, in Hans-Uwe Otto,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단주의적 폭력), Leske + Budrich, 1993.
- Lenz, Karl, “Jugend in Gefahr”(위기에 놓인 청소년), pp. 20-30,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시대) 1993. 5.
- Müller, Happy und Wilfried Schubarth, “Sechstextremismus und Aktuelle Befindlichkeiten von Jugendl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우파극단주의와 새연방국가 청소년들의 실제 상황), pp. 16-28,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시대), 1992. 9.
- Otto, Hans-Uwe und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단주의적 폭력), Leske + Budrich, 1993.
- Palentien, Christian und Käte Pollmer, Klaus Hurrelmann, “Ausbildung und Zukunftsperspektiven Ostdeutscher Jugendlicher nach der politischen Vereinigung Deutschlands”(독일통일 이후 동독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전망), pp. 3-13,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사회), 1993. 6.
- Schubarth, Wilfried und Wolfgang Melzer(Hrsg.), *Schule, Gewalt und Rechtsextremismus*(학교, 폭력, 우파극단주의), Leske + Budrich, 1993.
- Schubarth, Wilfried, “Einstellungen zur Deutschen Nation und Wiedervereinigung,” (독일민족과 재통일에 대한 입장) pp. 67-79,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Schwind, Hans-Dieter u.a., “Dokument I, Kurzfassung des Endgutachtens des Unabhängigen Regierungskommission zur Verhinderung und Bekämpfung von Gewalt(Gewaltkommission)”(자료 1, 폭력의 저지와 투쟁을 위한 독립 정부위원회의 최종분석 요약), pp. 415-431, in Hans-Uwe Otto,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단주의적 폭력), Leske + Budrich, 1993.
- Schubarth, Wilfried und Ursula Hoffmann-Lange “Nationalistische und Rechtsextremistische Orientierungen”(민주주의적, 우파극단주의적 방향전환),

- pp. 114-127,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Six, Ulrike und Ursula Hoffmann-Lange, “Politisches Interesse und Politische Informationsquellen”(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정보 원천), pp. 42-66,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 Einheit*(독일 통일의 문턱에 선 학생들), Leske + Budrich, 1992.
- Veen, Hans-Joachim u.a., *Eine Jugend in Deutschland?*(독일의 청소년), Leske + Budrich, 1994.
- Veen, Hans-Joachim und Walter Jaide, “Jugend und Politik”(청소년과 정치), pp. 73-100, in Veen, Hans-Joachim, u. a., *Eine Jugend in Deutschland?*(독일의 청소년), Leske + Budrich, 1994.
- Willems, Helmut, Stefanie Würtz und Roland Eckert, “Fremdenfeindliche Gewalt : Eine Analyse von Täterstrukturen und Eskalationsprozessen”(폭력 : 범죄자 구성과 확대 과정), pp. 432-449, in Hans-Uwe Otto, Roland Merten, *Rechtsradikale Gewalt im Vereinigten Deutschland*(통일독일에서의 우파극단주의적 폭력) , Leske + Budrich, 1993.